

202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보고서 개요

KB금융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통 체계를 다각화하여 다양한 독자의 정보 수요를 반영해 보고서를 3종으로 나누어 발간합니다. 투자자에게는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이용자에게는 검증된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여 투명하게 공개하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는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을 이야기로 나눕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재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B금융그룹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제2호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이력 관리를 위한 전문 데이터북”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은 KB금융그룹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된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스토리북

“일상 속 지속가능한 가치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스토리북”

〈지속가능경영 스토리북〉은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통을 위한 채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본업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보고서 개요

KB금융그룹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재무 중대성 평가를 통해 2025년에는 리스크 관리·기후위기 대응·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디지털 혁신 및 기술의 5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가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의 적시성 및 중요도에 따라 일부 항목은 2026년 상반기의 내용을 포함하며, 정량적 성과는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일부 환경 데이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는 KB금융그룹 전체의 활동이 반영되도록 연결재무제표 기준 성과로 보고하였으며, 비재무성과는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특정 프로그램은 주관 계열사를 명시하여 보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KB금융그룹 지주 및 각 계열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 KB인베스트먼트, KB데이터시스템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본사 및 국내외 전 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는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열사 외 기타 종속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성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침의 원천

당사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해 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의 식별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 Korea Management Registrar)의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의견서는 본 보고서 107~111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공시정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 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

당사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식별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한 결과, 리스크 관리·기후위기 대응·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디지털 혁신 및 기술의 5개 주제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정보의 식별

당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성격,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필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공시정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범위 재평가

당사는 유의적인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재평가합니다. 유의적인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는 당사가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이 변화한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가치사슬에서의 유의적 변화, 연결회사의 사업모형, 활동 또는 기업구조의 유의적 변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익스포저의 유의적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측정불확실성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추정에는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발생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가정이 수반됩니다.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간별 재무정보에 미치는 예상 영향

본 보고서는 당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보고일 현재 당사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측정되었으나,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본 보고서의 '기후위기 대응' 주제의 공시정보에는 11개 계열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 대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사업장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일부 값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본 보고서에서는 PCAF 방법론에 따라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추정값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은 가치사슬 내 자료의 가용성과 품질에 대한 값의 의존성에 영향을 받으며, 당사는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합니다. Scope 3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 및 가정에는 계산에 기반한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사슬 내 특정 활동으로부터의 자료, 적시성 있는 자료, 검증된 자료도 투입변수 및 가정으로 고려합니다.

4. 시나리오 분석

당사는 NGFS 시나리오 및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한 기후 변화 경로와 정책 변화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온도 상승 경로, 탄소 가격,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추정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개요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재무중대성 평가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크 관리

기후위기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

Appendix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Index

SASB Index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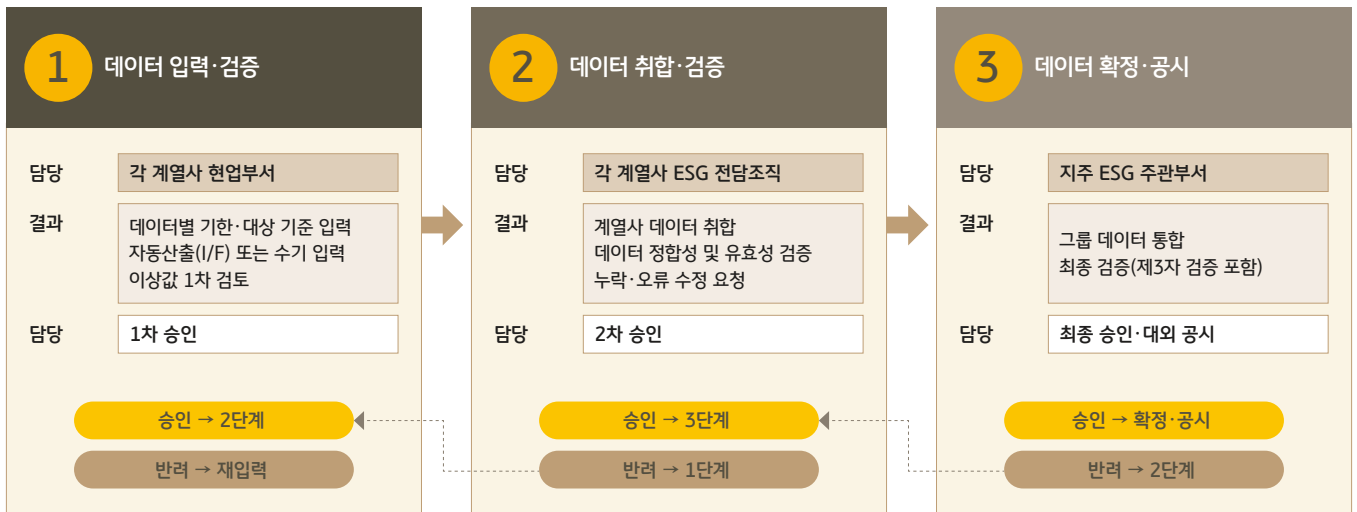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

KB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열사별 데이터의 체계적 입력·취합·산출 관리와 3단계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국내외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입력·취합·산출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3단계)



공시정보 신뢰성 확보

공시 산출물



KRX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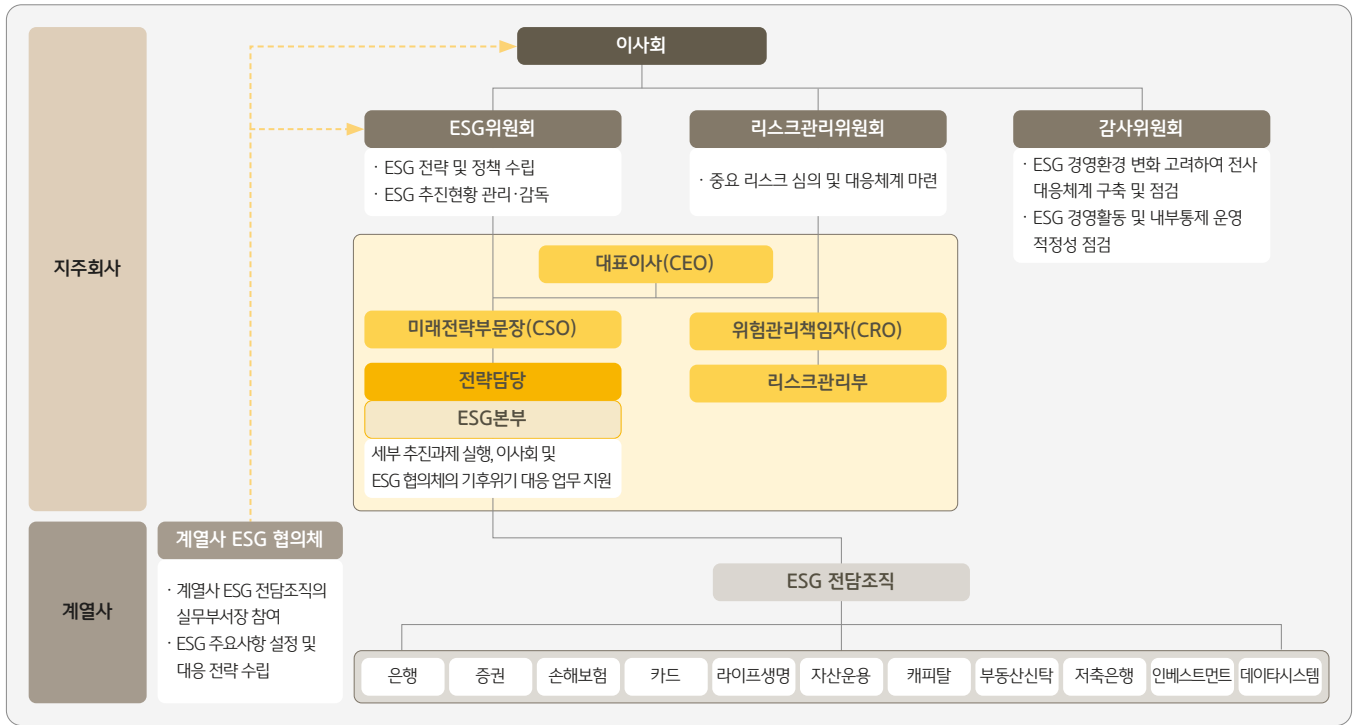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과 책임

KB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주요 계열사도 대표이사 및 C레벨 경영진이 참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와 ESG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장급 실무자 협의체를 통해 그룹 ESG 전략의 실행을 지원합니다.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관리·감독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규정, ESG위원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각 의사결정기구의 권한, 책임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안건의 보고, 심의 체계를 관련 내규와 직무기술서 등에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 위원회 명 | 역할과 책임 | 구성 | 관련 규정 |
|----------|---|------------------------|------------------------|
| ESG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 지속가능성 관련 그룹의 전략 및 정책 수립·승인 · 주요 추진과제 이행 현황 정기 점검·감독 | 사외이사 3인 상임·비상임이사 2인 | ESG위원회 규정 |
| 리스크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의 리스크 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 및 전략 수립·승인 ·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감독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포함한 중요 리스크의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 | 사외이사 4인 |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정책 |
| 감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사 대응체계 구축 적정성 점검 · 지속가능성 관련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점검 | 사외이사 4인 | 감사위원회 규정 |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관리·감독 의사결정기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KB금융지주는 ESG 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2025년 기준 지주 이사회 구성원 전체 9명 중 3명(33.3%)은 ESG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및 ESG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이사회 구성원의 지속가능성 관리·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ESG 관련 교육, 세미나, 포럼 및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 역시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주 사외이사 대상 교육

| 교육일시 | 교육명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2025.7.1 | ACI 세미나 | 감사위원회 위원 |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의 과제 등 |
| 2025.8.5 | 금융회사 사외이사 세미나 | ESG위원회 위원 | · 최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ESG이슈 |
| 2025.12.11 | ESG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 ESG위원회 위원 | · ESG 공시 동향과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차원의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는 그룹 ESG 전략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 현황이 반기마다 보고되며, 필요시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보고도 이루어집니다. 각 계열사별 ESG 협의체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이슈와 대응 현황을 각 사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자율 보고합니다. 2025년도에는 총 3회의 ESG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ESG 성과와 전사 경영성과의 유기적인 연계, ESG 실행 계획 수립 시 현업 실행부서의 이해도와 참여도 제고, 단순 정량적 지표 관리를 넘어 ESG 활동의 실질적인 이행 충실도 모니터링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 규모 확대를 위해 전사 성과평가지표(KPI)를 신설하는 등 ESG 성과와 경영성과의 연동 체계를 강화했으며, 전환금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심사 및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의 실질적인 ESG 경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CEO 및 계열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계열사 ESG 이행현황 보고’ 절차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ESG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 차수 | 개최일자 | 안건구분 | 결의 및 보고사항 |
|----|---------------|------|--|
| 1차 | 2025년 6월 12일 | 보고 |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현황진단, 중대성 평가, 활동 분석, 보고서 작성, 제3자 검증 프로세스 |
| 2차 | 2025년 7월 25일 | 보고 | · 2025년 ESG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 |
| 3차 | 2025년 12월 11일 | 보고 | · 2026년 ESG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계획 · 2025년 포용금융 추진 현황 및 2026년 추진계획 |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관리·감독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KB금융그룹은 그룹의 전략과 정책 수립시 기업가치와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지주 ESG 위원회에서는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친 ESG 전략 및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그룹의 전략, 주요 의사결정 및 리스크관리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감독합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및 이행 점검, 기후리스크를 포함한 환경리스크 대응, 친환경 금융 생태계 선도, 친환경 투자·대출 확대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및 생산적금융 확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인권 및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정보공시 고도화, 종합적인 지배구조 평가체계 구축 등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추진과제를 이행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절충(trade-off)

KB금융지주는 ESG위원회규정과 관련 내규에 따라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 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재무적·전략적 영향의 크기를 함께 검토하고 관련 기회요인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성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지향합니다. 향후에는 재무영향 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상호 연계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지주는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의 설정과 이행 진척을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경영진의 성과평가지표(KPI)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ESG 업무 주관부서인 ESG사업부는 주요 과제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각 계열사 또한 그룹 전략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ESG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대상 | 구분 | 성과평가지표(KPI) | 전체 KPI 대비 비중 |
|---------|-----------|---|--------------|
| ESG 본부장 | ESG 전략 실천 | · 그룹 ESG 전략에 부합한 실천과제 수립 및 이행 실적 · 이행과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 실적 | 38% |
| | 친환경경영 | · 친환경상품 개발 및 투자 실적 · 탄소배출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목표 수립 저감 실적 · 여신/투자 심사시 ESG 요소를 반영한 프로세스 개선 실적 | |
| | 사회적가치 증진 | · ESG 관련 공시 및 외부평가 대응에 대한 결과 및 기여도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

경영진에 위임된 역할과 감독 방식

KB금융그룹은 CEO를 중심으로 미래전략부문장(CSO)과 위험관리책임자(CRO)가 각각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과 위험관리 영역에 대한 전사적 ESG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경영진은 그룹의 지속가능성 전략, 기후위기 대응, 기후금융 확대 및 리스크 대응 방향을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 ESG 금융상품 확대 등 주요 전략과 연계된 지표를 KPI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경영진이 감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 및 절차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와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ESG 추진과제의 이행 현황과 주요 이슈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되며, 관련 성과와 주요 현안은 ESG위원회와 이사회에도 주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환경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그룹ESG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공시에 관한 부서별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관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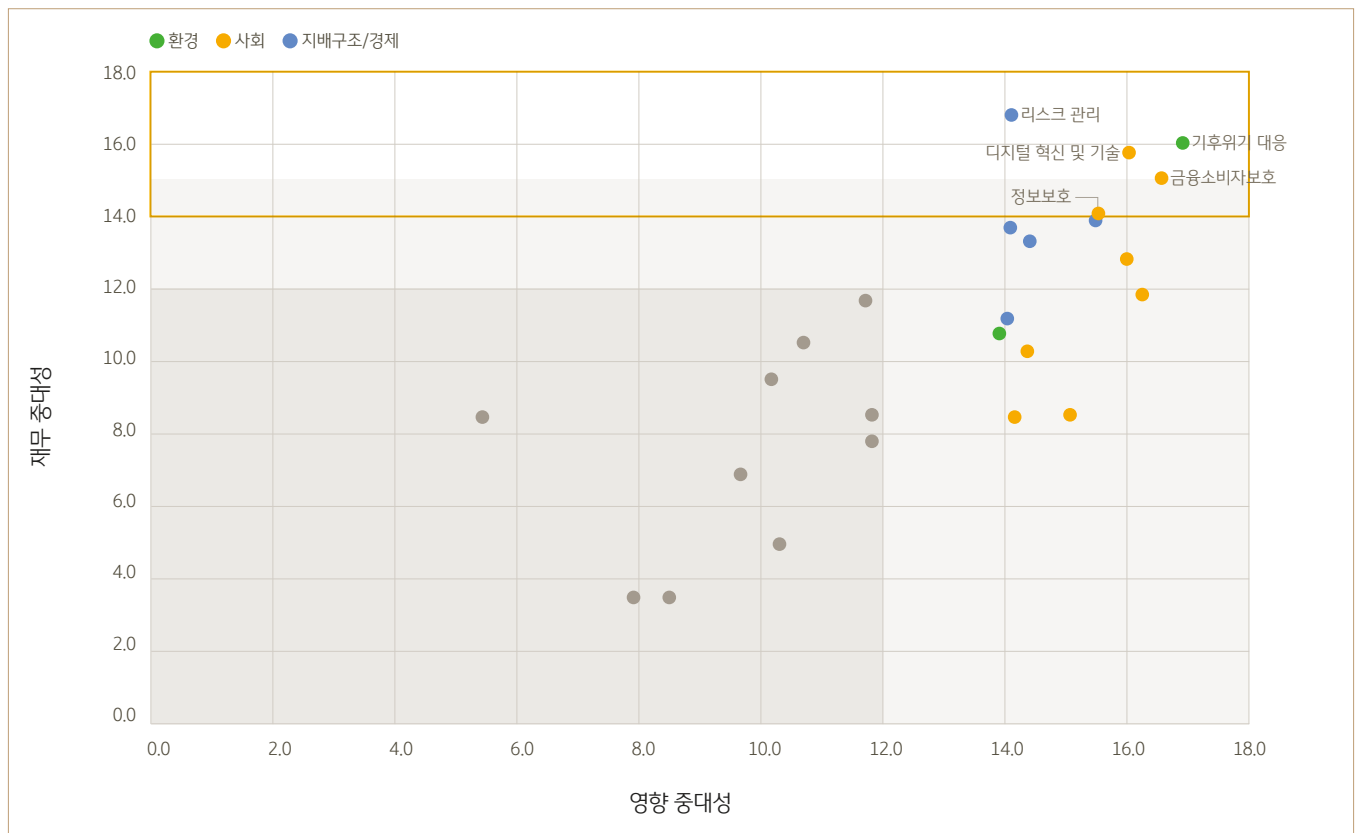
재무중대성 평가

KB금융그룹은 외부 환경 변화가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재무 중대성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재무적 영향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에 따라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합니다.

2025년 재무 중대성 평가 결과, 리스크 관리·기후위기 대응·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디지털 혁신 및 기술의 5개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5~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중대성 평가 결과



| 이슈명 | 이슈별 주요 재무 영향 |
|-------------|---|
| 리스크 관리 |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재무적 리스크가 재무적 손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 기후위기 대응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이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 |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불완전판매 관련 잠재적 재무 리스크의 선제적 차단 |
| 정보보호 |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기업 신뢰도와 무형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반영 |
| 디지털 혁신 및 기술 | 디지털·AI 기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초개인화된 고객경험 제공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창출하는 미래 수익성 지표 반영 |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과 책임

KB금융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에서 정한 리스크 관리 철학에 따라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 및 전략 수립,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 · 그룹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인 위험성향(Risk Appetite) 설정 및 정기 점검 |
| 리스크관리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 및 계열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지주 리스크관리부장으로 구성 · 각 계열사별 리스크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 협의 ·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현황 모니터링, 필요 조치 수립 및 시행 |
|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부분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운영 · 리스크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아닌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최종 승인,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위험관리책임자 소관부서로서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따른 업무 수행 지원 <p><small>*위험관리책임자는 그룹 리스크 관리 세부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총괄</small></p> |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KB금융지주는 「리스크관리정책」을 그룹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최상위 규범으로 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정책」에서 규정한 그룹의 리스크관리 철학 및 원칙에 기반한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주 및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을 통해 그룹의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역할 변경,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등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운영리스크 3단계 통제체계

감독당국은 감독규정 내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 Principles for Sound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를 규정해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재무·인사·IT 등 지원조직 포함),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준법 조직 포함) 및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내부·외부조직 포함)로 구성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원칙에 입각한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KB금융그룹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위사업부문’, ‘리스크 관리 조직과 준법 조직’, ‘감사조직’으로 구성된 3단계 통제체계를 수립하여 감독규정을 준수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부 「운영리스크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
| 1단계 단위사업부문 | 계열사 RM조직 | |
| | · Biz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1차 식별·평가 및 한도 준수 등 포트폴리오 관리 | |
| 2단계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준법 조직 | 지주 리스크관리부 | 준법추진부 |
| | · 그룹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계열사별 리스크 한도 부여, 모니터링 | ·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및 임직원 윤리 강령 준수 감시 |
| 3단계 감사조직 | 지주 감사부 | |
| | ·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감사 | |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

KB금융그룹은 분기별 1회 이상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리스크 관련 정보를 보고합니다. 리스크 유형별, 계열사별 리스크 제한도 관리현황 및 계열사별 주요 리스크 이슈를 분기 1회 이상 보고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실태 및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 협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되며, 협의회 운영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기마다 보고됩니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성과 리뷰, 경영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그룹의 리스크 특성 및 주요 변동사항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K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이해도와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목적의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리스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와 관련된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 전략방향을 전파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리스크 관리 교육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2025.08.05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 금융회사 사외이사 세미나 - 최근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ESG 이슈 |
| 2025.08.27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 리스크관리위원 연수(간담회) - KB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이해, 내부자본 관리 체계 및 RA 수준의 적정성, 그룹 자본시장 비즈니스 및 리스크 관리 |
| 2025.11.12 | 리스크 관리 담당자 | ·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와 관련하여 그룹 리스크 관리 전략방향을 전파 |
| 2025 연간 온라인 교육 | 전 임직원 | · 신용평가모델 개발 역량강화 교육 (연 2회) - KB 모델 개발인력 연수 프로그램 ('25.6.9~'25.11.26), KB 신용평가모델 인력 양성 프로그램 ('25.10.21~'25.12.9) ·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해 온라인 교육 (연 1회) -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동영상 교육 ('25.10.1~'25.12.19) |

리스크 관리

한편, KB국민은행은 행내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CE Academy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육성·발굴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교육 이수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인력 육성을 위한 Pool에 편입하여 관리 및 리스크 관리 인력 배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스크관리 직무인증제도, SAS 프로그램 위탁교육 등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리스크 관련 인증 자격(FRM, CFA 등)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하는 방식

KB금융그룹은 경영계획 및 전략 수립, 신상품 및 신규 사업 진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 | | |
|-----------------|------------|--|
| 그룹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 | 자본계획 | · 계열사별 수익 목표, 자본조달 계획, 영업환경 및 위험요인, 그룹의 자본적정성 등 고려하여 가용자본 한도 내에서 자산증가 계획 수립 |
| | 위험성향 | · 계열사의 차년도 자산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리스크 유형별 예상 위험 분석하여 그룹의 위험성향과 내부자본 한도 설정에 반영 |
| | 잠재적 리스크 대응 | · 주요 경영 의사결정(경영전략 수립, 자본증권 발행, 해외 대규모 투자, 배당 및 성과보상 등)시 규제비율과 위험 성향의 영향도 분석 등 잠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 신상품 및 신규 사업 진출 | 사전 리스크 심의 | ·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과 사전 협의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전 점검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지주 리스크관리부 협의 후 그룹 차원에서 최종 실행 여부 결정 |
| | 금융소비자보호 연계 |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협의체 및 소비자보호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상품의 적합성 점검 · 계열사별 별도의 상품위원회 운영하여 상품의 출시 및 판매 전 상품성 심의, 사후 모니터링 점검 |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그룹은 Tier1 비율(기본자기자본비율), RoRWA(위험가중자산수익률)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지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 주요 의사결정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 | 성과평가지표(KPI)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 위원의 역할과 책임 수행 여부 점검 ·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활동 및 성과의 적정성 평가 |
| 위험관리책임자(CRO) | · 리스크 관리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KPI에 반영 |
| 경영진 | · RAPM(위험조정성과지표)의 주요 지표인 RoRWA(위험가중자산이익률) 포함하여 자본 효율성과 위험관리를 KPI에 반영 |
|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 · 영업실적 관련 지표를 배제한 독립적인 성과평가 체계 적용 |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분석

KB금융그룹은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위험요인과 잠재적 재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기간 범위

KB금융그룹은 주요 리스크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리스크 유형 | 위험요인 | 영향도 | 단기 | 중기 | 장기 | 예상 재무적 영향 |
|----------|--|-----|----|----|----|---|
| 신용리스크 | · 부도 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 (Default loss) | 상 | | ● | ● | · 연체·손상·채권재조정 익스포저 증가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증가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순장부금액 감소(대손충당금 증가) |
| 재무 리스크 | ·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 상 | ● | ● | | ·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금융자산 공정가치 하락 및 평가손익 감소,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 상승 |
| | ·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지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상 | ● | | | ·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으로 자금의 유동성 제한 |
| | · 금리 변동 시 금리 민감 자산, 부채 등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 상 | ● | ● | | · 금리 변동으로 자기자본 감소 및 순이자수익 감소 |
| 신용편중 리스크 | · 특정 부문에 자산운용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단일 신용 또는 관련 신용집단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룹의 재무 건전성과 영업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 | 중 | ● | ● | | ·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가치 하락 및 가격 변동성 상승으로 투자 유입 감소 |
| 비재무 리스크 |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 | 상 | | ● | ● | ·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외부 환경 등의 결함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 규제 위반으로 일반관리비(발급 및 소송비용) 증가 |
| | ·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결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중 | | ● | ● | · 시장에서 경쟁력 감소에 따라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등 수익 감소 및 부적절한 전략 수립에 따른 불필요한 자본 또는 자금 손실 |
| | ·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등의 외부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중 | | ● | ● | · 그룹 신뢰도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등 수익 감소 및 추가 하락 |

이머징 리스크

KB금융그룹은 경제,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변화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로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 리스크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고갈 및 생물다양성 손실 리스크 | AI 도입 및 활용 프로세스 전반의 유무형 손실 위험 |
|-------|--|---|
| 정의 | 수자원, 토양 등 자원의 물리적 고갈과 생물다양성 공시 기준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금융 시스템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금융 분야 전반에 AI(생성형 AI 포함) 도입 및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 및 품질 저하, 설명가능성 부족, 모델 오작동, 소비자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 |
| 위험 구분 | 환경적(Environmental) | 기술적(Technological) |
| 사업영향 | · 자연자본 관리 역량 미흡, 글로벌 환경 규제 미충족 시 연쇄적 자산가치 훼손 위험 -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도율(PD) 상승 및 위험가중자산(RWA) 확대 등 재무 안정성 저해 | · 시의 오작동 및 데이터·모델 관리 실패로 인한 의사결정 오류, 운영 중단 위험 - 사고 대응 비용, 손해배상 및 제재 비용 발생 · 외부 위탁 또는 특정 기술·사업자 의존도 높을 경우 복구 비용과 전환 비용 확대 · 알고리즘 편향 및 정보침투·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브랜드가치·디지털 수용성 하락 |
| 대응방안 | · 환경·사회·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SMR) 운영 · 금융권 최초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발간 - 자산 포트폴리오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및 재무적 리스크 분석 내용 공개 · 중장기 탄소 중립 전략 'KB Net Zero S.T.A.R' 수립 -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녹색금융 투자확대, 온실가스 직접 감축 및 RE100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 4가지 추진과제 이행 | · 그룹 차원의 AI 윤리기준 제정 · 전 임직원 대상 AI 윤리교육 실시 · AI윤리위원회 등 전담조직 설치 · AI 도입 및 이용 위험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마련 - 기획 단계: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고위험 AI 해당여부 사전 검토 - 개발 단계: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대표성, 편향성, 최신성 점검 - 평가·검증 단계: 편향성 공정성, 설명가능성 평가·검증 실시,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승인 및 검증 절차 적용 - 운영단계: AI서비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사후관리 단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재평가 및 개선조치 수행 |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전략은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이 그룹 차원에서 정한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의 결정, 위험자본 배분 및 리스크 한도관리 전략을 의미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전략 수립 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과 경영환경,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그룹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중대 이슈별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그룹 차원에서는 통합 리스크 관리로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추진과제

| 전략 | 추진과제 | 리스크유형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부문별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 심사기준 정교화 및 시스템 고도화 · AI 기반 자체 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고도화 | 운영리스크 신용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각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 감소로 대손충당금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및 영업이익 개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잠재위기대응체계」 수립 · 계열사 특성 및 사업영역 반영한 리스크 관리 활동 실적의 성과평가지표(KPI) 반영 | 신용편중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각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위기대응 체계로 재무 건전성 개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손실 규모 및 자본적정성 분석을 통한 대응 조치 실행 | 시장리스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 확보 및 관리 체계 운영 · 비정상적인 금리 변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외부 전문가 활용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 조정,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감소 | |
|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및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 전략리스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관리 교육 정기 실시 ·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마련 | 평판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및 손실 예방 효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부즈맨 활동 결과와 주요 이슈 관련 전사적 개선 활동 반영 및 투명한 공유 · 리스크 관리 기여 직원 포상을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 평판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각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정보 공유로 운영 불확실성 관련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감소 | |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정책과 절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을 통해 그룹의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역할 변경,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등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기본 방침을 마련하여 해당 내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룹이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리스크 유형별 세부 지침을 통해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화하여 전사 범위로 실행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 |
|-------|--|
| 위험 식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규정」에 그룹이 관리하여야 할 ‘중요 리스크’ 정의 - 신용, 시장, 운영, ALM(금리·유동성), 신용편중, 전략, 평판, 보험 리스크 |
| 위험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리스크’ 유형별 측정 방법론 수립 후 측정모델 구현 및 평가 · 리스크 측정모델의 적합성 검증 - 각 계열사: 모델 개발 및 운용 부서와 독립된 조직에서 정기 수행 - 지주: 각 계열사 검증 결과 점검 및 모델 개선·재검증 조치 시행, 리스크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 그룹 위기상황분석 (연 1회): 지주 리스크관리부 수행, 경기 순환주기 및 경제전망 등 반영한 잠재적 위험 평가 |
|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정보시스템(RIS, Risk Information System): 리스크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 · 전사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ERMS, Enterprise Risk Monitoring System): 계열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 모니터링 ·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목표 위험성향(Risk Appetite) 설정, 그룹 내부자본 총한도 설정 및 계열사별·리스크 유형별 한도 배분 · 지주 리스크관리부: 계열사별 내부자본 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분기별 리스크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 내부 감사조직: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업무 적정성 감사 수행(연 1회), 감사담당 집행임원·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감사결과 보고 |

위기상황분석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리스크 유형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연 2회 실시하여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지주 리스크관리부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그룹 차원의 위험성향과 리스크 한도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합니다.

| 위기상황분석 프로세스 | 주요 내용 |
|----------------------|--|
| 위기상황 시나리오 작성 | · 위기상황 심각도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 설정 |
| 시나리오별 리스크 측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유형별 측정 요소값 추정 · 리스크 유형별 손실규모 및 당기손익 추정 |
| 시나리오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측정 결과 분석 및 시나리오별 자본적정성 평가 · 그룹 및 계열사별 대응방안 마련 |
|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 보고 · 위험성향 설정 및 의사결정 활용 |



Investor headlines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2025년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148,926 tCO₂eq으로, 전년 대비 약 6,398 tCO₂eq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확대,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 그리고 자원 순환 및 에너지 효율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금융 배출량(Scope 3)

KB금융그룹은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중장기적인 이행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고자, 금융배출량 총량 관리와 함께 탄소집약도^{*1}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집약도는 자산 포트폴리오 간의 상대적인 탄소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KB금융그룹의 자산 단위당 탄소집약도는 20.1 tCO₂eq/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며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주식·회사채, 비상장주식·기업대출, 주거용 부동산, 차량대출 등 주요 자산군 전반에 걸쳐 피투자·여신 차주들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KB금융그룹의 배출량 측정 고도화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기반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통해 산출 커버리지^{*2}(2024년: 84.5% → 2025년: 84.8%)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PCAF 데이터 스코어^{*3}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데이터 품질(2024년 및 2025년: 3.2)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자산 규모(1억 원 당) 대비 배출량 수준
 *2 PCAF 정의 금융배출량 산출 대상 자산 익스포저 중 산출 익스포저 비율
 *3 PCAF 정의 데이터 품질 점수(1점~5점), 1에 가까울 수록 데이터 신뢰도 높음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자본적정성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를 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전환 위험)과 기후변화(지구 평균온도 상승 등)에 따른 물적 피해(물리적 위험)로 구분하여 기후리스크가 실물경제와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규모 및 영업이익의 미래 성장세를 배제한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단·중·장기에 걸친 그룹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에도 선제적인 자본 효율성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그룹의 견고한 재무적 펀더멘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환 위험 (NGFS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GFS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적용 시, 고탄소 업종의 자산 가치 하락 및 위험가중자산(RWA)의 증가로 인한 2025년 말 기준 대비 장기(10년) 시점의 BIS비율 및 CET1비율의 영향도는 각각 0.35%p, 0.29%p로 예상됩니다. 분석된 예상 수치는 그룹의 손실 흡수 능력 범위 내에 있어, 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리적 위험 (IPCC RCP8.5 시나리오)

IPCC RCP8.5 시나리오 적용 시, 이상 기후에 따른 담보가치 손실 및 위험가중자산(RWA)의 증가로 인한 2025년 말 기준 대비 장기(10년) 시점의 BIS비율 및 CET1비율의 영향도는 각각 0.05%p, 0.04%p로 예상됩니다. KB금융그룹은 지역별 자산 분산과 적극적인 위험회피 전략을 통해 물리적 위험의 노출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회복력 강화

KB금융그룹은 저탄소 전환을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며, 그룹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연착륙을 위해 고탄소 자산을 배제하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기후 회복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 기후 시나리오 기반 탄소집약도 모니터링
- 고탄소 자산 단계적 축소
- 저탄소 자산으로의 자산 재배분

전환금융 실행

- 성과연계대출(SLL) 등 전용상품 확대
-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제공
- 공급망 및 지역 생태계 금융 지원

데이터 인프라

- ESG정보공시시스템,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배출량 상시 관리
- 업무연속성계획에 기후 요소 반영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KB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각 계열사는 그룹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ESG 협의체 및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추진합니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과 책임

이사회는 그룹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감독합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위원회별 역할 및 책임, 위원회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7~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KB금융그룹은 기후위기 등 환경 영역을 포함한 ESG 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 계열사별로 기후 관련 교육·포럼·세미나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기후 관련 교육

| 교육일시 | 교육명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2025.7.1 | ACI 세미나 | 감사위원회 위원 |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의 과제 등 |
| 2025.8.5 | 금융회사 사외이사 세미나 | ESG위원회 위원 | · 최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ESG이슈 |
| 2025.12.11 | ESG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 ESG위원회 위원 | · ESG 공시 동향과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
| 2025.9.3, 2025.9.10 | 외부 전문가 특강 | 경영진 | · 경제학의 눈으로 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관리·감독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ESG위원회는 「ESG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그룹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합니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 기후변화 대응 전략 관리, 친환경 금융 생태계 선도, 친환경 투자·대출 확대 등을 추진해 ESG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통합 위기상황분석 및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고받으며, 기후리스크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이사회 규정과 관련 내규에 따라 주요 안건 심의·의결 시 기후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재무적·전략적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단기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 간의 구조적 절충 등 기후 관련 기회와 다른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상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인 ‘KB Net Zero S.T.A.R.’와 기후 기회 대응 전략인 ‘KB Green Wave 2030’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수익 기반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기후리스크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지주 ESG위원회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과정 전반을 직접 감독합니다. 기후 목표는 ESG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단기·중기·장기별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는 파리협정, SBTi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됩니다. 특히 이사회는 주요 사업부문별 이행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목표가 수립되도록 감독합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평가지표(KPI)에 ESG 관련 지표를 반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KPI

| 대상 | 구분 | 성과평가지표(KPI) | 전체 KPI 대비 비중 |
|--------------------------------------|-----------------------------|---|--------------|
| CEO 및 경영진 (CSO, CRO, ESG본부장 등) | 기후위기 대응 전략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도 | · ESG 전략 실천 | 3~17% |
| | | · 친환경경영 | |
| | | · 환경정책 고도화 및 기후금융 확대 | |
| ESG 전담조직 | 부서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추진 실적 | ·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 · 기후위기 대응 추진과제 이행 | 10% |
| | | · ESG 실천과제 이행여부 ·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실적 · 그룹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률 · 기후금융 이행 촉진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감축 활동 ·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

경영진에 위임된 역할과 감독 방식

KB금융그룹은 CEO를 중심으로 미래전략부문장(CSO)과 위험관리책임자(CRO)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위험 관리 영역을 구분하여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각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CSO는 그룹 ESG 업무를 총괄하며, 그룹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수립·이행 및 그룹 내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를 담당합니다. CRO는 기후리스크의 식별·평가와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영진은 탄소배출량 감축, ESG 금융상품 확대 등 주요 전략과 연계된 지표를 KPI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책임을 강화합니다.

경영진이 감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 및 절차

KB금융그룹은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절차를 ESG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 관련 데이터의 생성, 검토, 보고 단계에서 정보 생성자와 검토자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3단계 승인 단계를 거쳐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관련 통제 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기존의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동일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기후 정보 공시가 재무적 정보와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이슈가 재무적 고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경영 성과는 ESG위원회와 이사회에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 및 기회

KB금융그룹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를 기반으로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합니다. 식별된 요인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전반에 반영되며, 특히 기후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회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으로 인식합니다.

기간범위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범위는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에 적용되는 주기와 연계되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에서 정의한 기간범위와 동일합니다.

| 구분 | 기간범위 | 정의 |
|----|-------------|--|
| 단기 | 1년 이내 | · 그룹 연간 경영계획, 예산 수립 및 성과관리 주기 · 단기적인 자본 배분, 즉각적 규제 대응,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1차적인 리스크 관리 수행 기간 |
| 중기 | 1년 초과 5년 이내 | · 그룹의 중기 전략 수립 주기 및 내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범위와 연계 · 탄소가격 상승 및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환 위험이 고객의 신용도 및 재무상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
| 장기 | 5년 초과 |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그룹의 'KB Net Zero S.T.A.R.' 로드맵의 중간 목표 달성 시점과 연계 · 글로벌 기후 시나리오(NGFS, IPCC 등)상 장기적 변화 반영 · 저탄소 경제로의 완전한 전환과 물리적 위험이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간 |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도 평가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을 전환 위험(정책·법률, 시장 등)과 물리적 위험(급성, 만성)으로 분류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정량·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식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시나리오 기반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각 위험요인이 사업모형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평가 결과, 전환 위험에서는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법률 및 시장 위험이, 물리적 위험에서는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성 위험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상위 순위 위험요인은 그룹의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핵심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험 식별

| 유형 | 위험요인 | 중요도 | 기간범위 | | | 사업모형 |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은행 | 금융투자 | 보험 | 여신전문 | 저축은행 | |
| 전환 위험 | 정책 및 법률 위험 |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 규제 의무 강화 · 환경 관련 소송 증가 | 상 | ● | ● | ● | ● | ● | ● | ● | ● |
| | 시장 위험 | ·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 고탄소 섹터 투자 감소 및 친환경 금융상품 선호 확대 | 상 | ● | ● | ● | ● | ● | ● | ● | |
| | 기술 위험 | · 대출·투자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신기술 투자 실패 · 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전환비용 증가 | 중 | ● | ● | ● | ● | ● | ● | ● | |
| | 평판 위험 | · 고탄소 산업 대상 금융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하 | ● | ● | ● | ● | ● | ● | ● | |
| 물리적 위험 | 급성 위험 | · 극심한 기후현상(태풍, 산불 등) 빈도 증가 및 강도 강화 | 중 | ● | ● | ● | ● | ● | ● | ● | |
| | 만성 위험 | · 이상 기후패턴의 장기적 고착화로 기후 취약성 증대 | 하 | ● | ● | ● | ● | ● | ● | ● | |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후 관련 기회의 중요도 평가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기회를 상품 및 서비스·시장·자원 효율성·에너지 자원·복원력으로 구분하고, 식별된 기회요인이 그룹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정성 및 정량 평가를 병행하여 분석합니다. 국내외 시장 트렌드와 그룹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KB Net Zero S.T.A.R.' 및 'KB Green Wave 2030'와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각 기회요인이 자금조달 비용 절감, 수익원 다변화, 자본적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가 결과,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신규 시장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 기회요인에 대해 그룹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이를 통해 기후금융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질적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기회 식별

| 유형 | 기회요인 | 중요도 | 기간범위 | | | 사업모형 | |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은행 | 금융투자 | 보험 | 여신전문 | 저축은행 |
| 상품 및 서비스 | ·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확대 · 저탄소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 상 | ● | ● | | ● | ● | ● | ● | ● |
| 시장 | · 신규 시장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상 | ● | ● | | ● | ● | ● | ● | ● |
| 자원 효율성 | ·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 중 | ● | ● | ● | ● | ● | ● | ● | |
| 에너지 자원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 중 | | ● | ● | ● | ● | ● | | |
| 복원력 | ·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수익 다각화 | 중 | | | ● | ● | ● | ● | | |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KB금융그룹은 지구 산하 11개 계열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상이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전환 위험

| 사업모형 | 위험요인 | 현재 영향 | 예상 영향 |
|---|--------------|--|---|
| 은행부문 (KB국민은행) | · 정책 및 법률 위험 |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운영 · 여신 심사 프로세스에 ESG 요소 반영 ·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체계 정비 | · 탄소 규제 및 여신 심사기준 강화로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 재편 · 기후 공시 의무화 확대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외부 검증비용 증가 |
| | · 시장 위험 | ·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 탄소집약 여신 축소 대응 및 고탄소 기업고객과의 관계 재정립 | · 저탄소 전환 수요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 역량 개발 및 공급 확대 · 탄소집약 여신 부도를 상승 및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손충당금 증가 |
| | · 기술 위험 | · 친환경 신기술 기업 대출 심사 역량 확보 필요 · AI 기반 기후리스크 측정 시스템 구축 투자비용 증가 | · 저탄소·신기술 연계 신상품 개발 및 심사 인프라 고도화 |
| | · 평판 위험 | · 그린워싱 위험 감소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 구축 및 기후 관련 소송 발생가능성 모니터링 | · 기후 관련 소송 및 법무 수수료비용, 손해배상 충당부채 설정 확대 |
| 금융투자부문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정책 및 법률 위험 | · ESG 공시 규제 연계 ESG 실사(Due Diligence) 업무 부담 가중 · 탄소배출권 관련 운영 및 보고절차 복잡성 증가 | · 탄소가격 규제 강화에 따른 피투자기업 수익성 저하 |
| | · 시장 위험 | · 탄소배출권 시장 조성자 업무 및 관련 파생상품 수익 확대 · 고탄소 업종 주가하락에 따른 운용자산 수익 감소 · 친환경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상품 개발 압력 | · 투자 포트폴리오 내 좌초자산 전환 위험 증가 · 저탄소·신기술 연계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및 전문역량 개발 · ESG 채권 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규 증개수익 기회 증가 |
| 보험부문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 정책 및 법률 위험 | · 기후 연계 보험상품 인수기준 강화 및 언더라이팅 모델 고도화 필요 · 친환경 전환 보험상품 의무화 규제 대응을 위한 상품 라인업 조정 | · 재보험사 인수기준 강화로 재보험 가용성 감소 및 출재비용 증가 · 기후 소송 관련 배상책임보험 인수 리스크 증가 및 손실 가능성 확대 |
| | · 시장 위험 | · 친환경 및 기후 관련 보험 상품 수요 증가 · 기후 취약 지역 및 업종 보험 가입 축소 · 보험 투자자산의 고탄소 업종 채권 및 주식 비중 축소 | · 기후 관련 신규 보험상품 시장 확대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기반의 언더라이팅 기준 정교화 · 보험 투자자산의 녹색채권, 인프라투자 비중 증가 |
| 여신전문부문 (KB국민카드, KB캐피탈) | · 정책 및 법률 위험 | · 친환경 소비 촉진 관련 법규 강화로 카드 상품 설계 조정 · 내연기관 차량 잔존가치 산정기준 강화 및 친환경 차량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할부금융 수익구조 재편 | · 친환경 카드 혜택 규제 강화에 따른 상품 설계 유연성 제한 · 내연기관 차량 판매 규제 강화로 할부금융 포트폴리오 구조적 재편 |
| | · 시장 위험 | ·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 고탄소 소비 연계 가맹점 매출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익 감소 | · 친환경 카드, 자동차금융 시장 성숙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 및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성 증대 |
| | · 기술 위험 | · 디지털 청구서 전환 가속화, 친환경 카드 인프라 구축 필요 · 친환경 차량 잔존가치 평가기술 미성숙으로 리스자산 가치 변동성 리스크 상존 | · 탄소발자국 기반 소비 분석 서비스 등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친환경 차량 잔존가치 평가모델 고도화 투자 |
| 저축은행부문 (KB저축은행) | · 정책 및 법률 위험 | · 기후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압력 · 서민금융 계열사 기후 공시 의무화 단계적 도입 대응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 선제적 정비 필요 | · 중소기업 전환비용 증가에 따른 부도를 상승 및 대손충당금 증가 · 기후 공시 의무화 범위 확대시 제도 대응 비용 발생 가능성 |
| | · 시장 위험 |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익성 악화 및 상황능력 저하 | · 소상공인 에너지 전환 부담에 따른 장기 부실화 및 대손비용 증가 |

* KB데이터시스템은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그룹 내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모형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 물리적 위험

| 사업모형 | 위험요인 | 현재 영향 | 예상 영향 |
|---|---------|---|--|
| 은행부문 (KB국민은행) | · 급성 위험 | · 영업점 피해복구 비용 및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 · 기후 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 · 업무연속성계획 강화 및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 재해 빈발지역 담보가치 구조적 하락에 따른 여신 포트폴리오 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증가 |
| | · 만성 위험 | · 기후 취약지역의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및 수익성 악화 · 고탄소 산업 구조적 전환에 따른 특정 지역·센터 여신 리스크 가중 | · 기후 취약지역 익스포져 관리 및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수립 · 만성 위험을 반영한 여신심사 및 담보가치 평가체계 고도화 |
| 금융투자부문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급성 위험 | · 피투자기업 시설물 손상 및 생산 중단으로 투자자산 가치 하락 · 재해지역 투자자산 처분 제한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자산가치 하락 | · 최초자산 전환 가속화에 따른 투자자산 장기 손상 위험 증대 · 기후 취약 투자자산 축소에 따른 인프라펀드·녹색 부동산 투자 확대 |
| | · 만성 위험 | · 기후 취약지역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및 수익성 악화 · 고탄소 기업 채권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 부담 | · 기후 회복력 기반 자산 분류체계 도입 및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수립 · 만성 위험을 반영한 자산 가치 평가 모델 고도화 |
| 보험부문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 급성 위험 | · 재해보험 손해를 급등 및 지급보험금 증가로 단기 유동성 부담 가중 · 재보험료 인상 압력 증가 및 보험 영업비용 증가 | · 재해보험 손해를 구조적 악화 및 손익 변동성 증대 · 재보험사 인수기준 강화로 재보험 가용성 감소 및 비용 급증 |
| | · 만성 위험 | · 보험손해를 예측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 관련 질병 지급리스크 증가 · 기후 취약지역 인수기준 강화 및 보험 공급 축소로 보장 공백 발생 | · 건강보험 청구 증가 및 사망률 변화로 인한 장기 손해를 구조 재편 · 기후 만성 위험요인 반영한 언더라이팅 기준 정교화 · 기후 적응형 보험상품 설계로 장기 손해를 안정화 및 신규 시장 선점 |
| 여신전문부문 (KB국민카드, KB캐피탈) | · 급성 위험 | · 기후 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담 가중 · 재해지역 가맹점 매출 급감에 따른 수수료수익 감소 및 할부금융 담보가치 하락 | · 재해 피해고객의 단기 지급능력 상실에 따른 연체를 구조적 상승 · 재해 대응체계 재정비에 따른 디지털 채널 회복력 제고 및 투자 |
| | · 만성 위험 | · 기후 취약지역 포트폴리오 건전성 저하 | · 기후 회복력 우수 지역 및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수립 |
| 저축은행부문 (KB저축은행) | · 급성 위험 | · 기후 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 재해지역 담보가치 급락으로 추가 담보 요구 | · 재해 피해지역 소상공인 부도율 증가 · 재해 복구 지원 금융 확대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증가 |
| | · 만성 위험 | · 기후 취약지역 포트폴리오 건전성 저하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에 따른 상환능력 저하 | · 기후 취약지역 경제 악화로 신용위험 가중 및 자본 관리 부담 증가 · 기후 취약지역 외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 |

* KB데이터시스템은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그룹 내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모형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 기회

| 사업모형 | 기회요인 | 현재 영향 | 예상 영향 |
|---|---|--|---|
| 은행부문 (KB국민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시장 · 자원 효율성 · 에너지 자원 · 복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 PF 및 기업대출 수요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전환기업 대상 전환금융 수요 증가 · 탄소집약도 개선을 통한 자본적정성강화 및 기후 규제 선제 대응 · 기후금융 리더십 확보를 통한 우량 고객 유치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 금융투자부문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시장 · 자원 효율성 · 에너지 자원 · 복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채권 발행 주관 및 기후 연계 상품 확대로 비이자수익 창출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로서 비이자수익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신기술 및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기반 인팩트 투자 확대 ·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로 증개 및 운용수익 증가 · ESG 채권 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규 증개수의 기회 증가 |
| 보험부문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시장 · 자원 효율성 · 에너지 자원 · 복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형 상품 판매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 ESG 통합 투자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보험 투자자산 수익 관리 · 기후리스크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시나리오 기반 언더라이팅 기준 정교화를 통한 손해를 최적화 · 헬스케어 융합 등 상품 다변화로 장기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 · 기후 관련 피해 예방 및 보상 서비스 연계를 통한 고객 충성도 제고 |
| 여신전문부문 (KB국민카드, KB캐피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시장 · 자원 효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소비 혜택 중심의 카드 이용 확대 · 전기차 및 친환경 장비의 리스/할부금융 수요 확대 · 친환경 소비 패턴 분석 기반 데이터 마케팅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결재 생태계 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 확대 · 친환경 차량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
| 저축은행부문 (KB저축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목적 정책자금 대출 및 서민금융 상품 연계 기후금융 수요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밀착형 영업망 활용을 통한 포용적 기후금융 시장 개척 · 담보가치 산정 시 기후 회복력을 반영한 담보자산의 안정성 확보 · 기후 정책 연계 상품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

* KB데이터시스템은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그룹 내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모형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이 가치사슬 내 광범위한 피투자기업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각 사업부문에서 향후 자금조달, 상품 개발 및 심사 프로세스, 고객 수요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 관련 위험

| 유형 | 가치사슬 | 현재 영향 | 예상 영향 |
|--------|-------------------------------|--|---|
| 전환 위험 | 업스트림 (자금 조달, 공급망 관리) | · 글로벌 투자자의 ESG 정보공시 요구 강화로 인한 자금조달시 기후정보 공개 항목 확대 필요성 | · 고탄소 배출 업종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경우, ESG 채권 발행시 금리 가산 및 자본조달 비용 상승 |
| | 기업 자체 운영 (상품 개발, 심사, 위험관리) |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운영 · 대출 및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ESG 요소 반영 고도화 | · 기후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 상승 및 위험 관리비용 증가 |
| | 다운스트림 (영업 및 마케팅, 판매, 고객관리) | · 친환경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및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 피투자기업의 저탄소 전환 실패 시 자산 포트폴리오 내 신용손실 발생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가중 |
| 물리적 위험 | 업스트림 (자금 조달, 공급망 관리) | · 자연재해 발생시 주요 사업장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복구체계 가동 | · 극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공급망 중단 시 운영 효율성 저하 및 복구비용 급증 |
| | 기업 자체 운영 (상품 개발, 심사, 위험관리) | · 물리적 위험의 익스포저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 및 리스크 분석 시행 | · 기상이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손해를 예측 불확실성 증대 · 언더라이팅 기준 강화 필요성 |
| | 다운스트림 (영업 및 마케팅, 판매, 고객관리) | · 자연재해 피해 고객 대상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및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로 인한 대출채권의 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률(LGD) 상승 |

- 기후 관련 기회

| 유형 | 가치사슬 | 현재 영향 | 예상 영향 |
|----|-------------------------------|--|--|
| 기회 | 업스트림 (자금 조달, 공급망 관리) | · ESG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 그룹의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외 투자자로부터 낮은 조달비용 확보 |
| | 기업 자체 운영 (상품 개발, 심사, 위험관리)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심사체계 고도화 및 친환경 특화 금융상품 개발 | · 전사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탄소가격 내재화 |
| | 다운스트림 (영업 및 마케팅, 판매, 고객관리) | ·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친환경 차량 시장 내 수요 확대 | · 저탄소 금융시장 선점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 기후리스크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ESG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

- 자산유형별

KB금융그룹은 전환위험이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산업 부문별 익스포저와 탄소배출량을 비교하고 탄소집약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가장 높은 산업은 유틸리티(3.804), 소재(0.475), 에너지(0.389) 순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전환 위험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KB금융그룹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하여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채권 인수를 중단하고, 익스포저 및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탈석탄 금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율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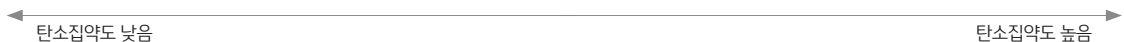
① 산업 부문별 익스포저 및 탄소배출량 비율

| 산업 부문 | 익스포저 (조 원) | 익스포저 비중 | 탄소배출량 (tCO ₂ eq) | 탄소배출량 비중 |
|--------|------------|---------|-----------------------------|----------|
| 금융 | 43.3 | 27.9% | 1,315,312 | 3.5% |
| 일반 | 36.1 | 23.3% | 8,325,738 | 22.3% |
| 임의 소비재 | 19.6 | 12.6% | 4,607,329 | 12.4% |
| 소재 | 18.5 | 11.9% | 10,443,888 | 28.0% |
| 부동산 | 10.6 | 6.9% | 310,502 | 0.8% |
| 필수 소비재 | 8.6 | 5.5% | 2,804,319 | 7.5% |
| 정보 기술 | 7.3 | 4.7% | 1,444,331 | 3.9% |
| 헬스케어 | 3.7 | 2.4% | 1,003,817 | 2.7% |
| 통신 서비스 | 2.9 | 1.9% | 294,485 | 0.8% |
| 에너지 | 2.7 | 1.7% | 2,297,896 | 6.2% |
| 유틸리티 | 2.0 | 1.3% | 4,452,772 | 11.9% |

② 산업 부문 및 자산 포트폴리오별 탄소집약도(C/R 집약도)¹⁾

(단위: tCO₂eq/매출액 백만 원)

| 구분 | 산업 부문 | | | | | | | | | | | |
|-------|-------|--------|-------|--------|-------|--------|-------|------------------|-------|-------|-------|-------|
| | 부동산 | 통신 서비스 | 금융 | 임의 소비재 | 정보 기술 | 필수 소비재 | 헬스 케어 | 일반 ²⁾ | 에너지 | 소재 | 유틸리티 | |
| 포트폴리오 | 종합 | 0.091 | 0.101 | 0.133 | 0.176 | 0.181 | 0.191 | 0.228 | 0.293 | 0.389 | 0.475 | 3.804 |
| | 대출 | 0.089 | 0.104 | 0.192 | 0.177 | 0.179 | 0.186 | 0.229 | 0.206 | 0.303 | 0.466 | 3.542 |
| | 채권 | 0.107 | 0.099 | 0.087 | 0.180 | 0.258 | 0.236 | 0.081 | 0.684 | 0.541 | 0.570 | 4.004 |
| | 주식 | 0.061 | 0.042 | 0.029 | 0.097 | 0.149 | 0.397 | 0.196 | 0.158 | 0.000 | 0.463 | 0.406 |



* 산업 부문 분류는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름

1) 매출액 대비 탄소집약도

2) 자본재, 상업서비스, 운송 등

- 지리적 영역

KB금융그룹은 RCP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지역별 부도시 손실률(LGD)의 변화를 분석하여 물리적 위험이 집중된 지역을 식별하였습니다. 17개 시도 단위로 산불, 태풍, 홍수 피해액 분포 및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근 산불과 호우 등 복합적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집중되었던 경상북도 지역이 모든 재해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 LGD 변화율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식별되었으며, 경북에 이어 충북, 강원 지역 순으로 담보가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의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시나리오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2030년 이후 장기 시계열에서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을 검토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이행합니다.

사업모형에 대한 현재 변화 및 예상 변화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와 친환경 산업 관련 정책의 확대를 리스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을 다양한 직·간접적 전략을 사업모형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 섹터 비중을 조절하는 '자본 재배분'과 사업장 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환하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후 관련 위험

| 유형 | 위험요인 | 현재의 노력 | 예상되는 노력 | |
|--------|------------|---|---|---|
| 전환 위험 | 정책 및 법률 위험 |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 규제 의무 강화 · 환경 관련 소송 증가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 시스템 기반 ESG 데이터 산출 및 고도화 | · 기후 공시 의무화 이행 · 기후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상시 모니터링 |
| | 시장 위험 | ·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 고탄소 섹터 투자 감소 및 친환경 금융상품 선호 확대 | ·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 순환 활동 수행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대출 공급 확대 ·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 장기적 PPA 계약을 통한 외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기후금융 지속 확대 |
| | 기술 위험 | · 대출·투자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신기술 투자 실패 · 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등 전환비용 증가 | · 친환경 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금융 혜택 부여 ·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 · 상품 및 서비스 개발·투자 결정 시 친환경 기술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속 확대 |
| 물리적 위험 | 평판 위험 | · 고탄소 산업 대상 금융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 탈탄소 금융 선언 · 투자·대출 의사결정에 ESG 요소 반영 | · 전사 의사결정에 ESG 요소 반영 · 내부 탄소가격의 적용 확대 |
| | 급성 위험 | · 극심한 기후현상(태풍, 산불 등) 빈도 증가 및 강도 강화 | ·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수립 | ·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지역 식별 및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
| | 만성 위험 | · 이상기후패턴의 장기적 고착화로 기후 취약성 증대 | ·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 모의훈련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 자연재해 대비 인프라 구축 투자, 복구 지원 대출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솔루션 공급 |

- 기후 관련 기회

| 유형 | 기회요인 | 현재의 노력 | 예상되는 노력 |
|----------|--|---|--|
| 상품 및 서비스 | ·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확대 · 저탄소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 ·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 기후 혁신기술 보유 기업 대상 생산적금융 확대 |
| 시장 | · 신규 시장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 탄소시장 참여 · 환경 부문 ESG 상품·투자·대출 포트폴리오 확대 | · 글로벌 탄소시장과의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개인고객 대상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
| 자원 효율성 | ·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 ·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 | · 친환경 자원 사용, 에너지 효율화 지속 확대 |
| 에너지 자원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및 사용 확대 | · 장기적 PPA 계약을 통한 외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 복원력 | ·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수익 다각화 |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ESRM) 운영 · ESG 금융상품 관리체계 운영 · 기후금융 체계 구축 및 고도화 | · 기후금융 지속 확대 - KPI와의 연계를 통한 기후금융 이행 촉진 |

기후위기 대응

전략

간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KB금융그룹은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이니셔티브 및 산업협회 활동에 참여하여 산업계 전반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친환경 활동과 기부를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재의 노력 | 예상되는 노력 |
|---------------------------|---|---|
| 고객 및 피투자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지원 - ESG 컨설팅 서비스 제공 - KB탄소관리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기반 지속가능연계 금융 확대 - 고객의 자발적 탈탄소화 전환 유도 강화 |
| 친환경 이니셔티브 활동 및 정책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니셔티브 리더십 - 책임은행원칙(PRB),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TNFD) 가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친환경 이니셔티브 추가 가입, 정책 논의 참여 -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의견 제언 |
| 친환경 캠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친환경 캠페인 추진 - 환경경영 실천 캠페인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 추진 - 계열사별 플로깅, 자원순환 캠페인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후변화 적응 지원 - 기후 취약지역 소상공인 대상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 전개 |

전환 계획

KB금융그룹은 SBT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1년 10월 SBT에서 탄소 감축 목표(Near-term)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절대량 감축 접근법(ACA)에 의거해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을 관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2% 감축이라는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사업장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입니다. 금융배출량(Scope 3)은 '부문의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과 '온도 등급 방법론(Temperature Ratings Methodology)'을 활용하여 고탄소 섹터의 저탄소 전환 성과를 자산 배분 전략에 직접 연동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할 방침입니다.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62~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 계획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감축 목표를 실질적인 재무 성과와 환경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KB Net Zero S.T.A.R.'와 지속가능금융의 지원 확대를 위한 'KB Green Wave 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궁극적인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은 '고객 인계이슈먼트를 통한 기후금융 공급 및 전환 지원 실천'과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및 상생 생태계 가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환계획을 실행하며,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환계획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

| 구분 | KB Net Zero S.T.A.R. | KB Green Wave 2030 |
|----------------------------|---|--|
| 단기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 |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친환경 업무용 차량 전환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 기후금융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및 심사 프로세스 고도화 |
| 중기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확산 | 탄소중립 이행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속 확대 · 친환경 자원 사용, 에너지 효율화 확대 · 시스템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 2030년 ESG 금융 목표 달성 및 신규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와의 연계를 통한 기후금융 이행 촉진 · 전환금융 중심의 기후금융 체계 고도화 |
| 장기 시나리오 기반 기후 회복력 지속 이행 | 탄소중립(Net-Zero)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자급률 극대화 · 장기적 PPA 계약을 통한 외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ESG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금융배출량 상시 모니터링 | 기후금융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신기술 투자 및 신사업 진출을 통한 기후 관련 수익원 다변화 및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전략

전환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기후금융 공급 및 전환 지원 실천 |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및 상생 생태계 가동 |
|--|--|
| <p>KB금융그룹은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공정 개선 자금 공급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과 그룹의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고객사의 자발적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성과연계대출(SLL)이나 전환채권 등 기업의 기후 대응 성과와 연동되는 전용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입니다. 배출량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실질적인 전환비용 절감을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의 신용등급 상향시켜 그룹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p> | <p>KB금융그룹은 고탄소 업종 중심에서 저탄소 및 신기술 업종으로의 자산 이동을 위해 내부 자본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자산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 기술 등 미래 저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우선 집행하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대기업과 그 협력을 연계한 '공급망 상생 패키지 금융 모델'을 통해 개별 기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무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자체의 전략적 탄소중립 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사회 전반의 전환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매 영업일 현장에서 실행되는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p> |

| 전환계획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p>KB금융그룹은 전환계획의 일관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전환전략을 진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ESG정보공시시스템과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배출량과 집약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2025년 말 누적 19.7조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자원 순환 등 친환경경영 활동을 통해 절감된 운영비용을 전환계획 실행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p> |

전략 실행에 따른 예상 재무적 영향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실행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및 투자비용을 관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탄소 배출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축소하고 저탄소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완성하여 그룹의 재무적 안정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후 관련 위험

| 유형 | 위험요인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정책 및 법률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규제 의무 강화 환경 관련 소송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무형자산 취득 및 상각비 증가 규제 대응을 위한 충당부채 인식 및 영업외비용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탄소가격 적용 확대 및 배출권 거래제 효율화를 통한 배출권부채 및 관련 비용 부담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대응비용 안정화 및 포트폴리오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본적정성(BIS, CET1) 유지 |
| 시장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고탄소 섹터 투자 감소 및 친환경 금융상품 선호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탄소 차주의 전환비용 증가로 인한 단기적 수익성 악화로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변동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우수기업 금융지원 및 여신 구조조정(차주별 전환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대손비용의 안정적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자산건전성(NPL비율) 선제적 개선으로 기후리스크 기인 이자수익 변동성 최소화 |
| 기술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투자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신기술 투자 실패 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등 전환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신기술 심사 역량 개발 및 상품·서비스 기획을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유형자산 취득 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동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지속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금융 브랜드가치 상승 기반의 고객 유입으로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구조적 성장 |
| 평판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탄소 산업 대상 금융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석탄금융 선언 및 자본 재배분에 따른 고탄소 차주 제한으로 이자수익 성장 단기적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금융 리더십 확보에 따른 차입부채 조달비용(이자비용)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 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의 선제적 자본적정성 관리로 당기순이익 변동성 최소화 및 자산가치 방어 |
| 물리적 위험 | 급성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심한 기후현상(태풍, 산불 등) 빈도 증가 및 강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 재해 발생 시 담보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채권 손상차손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반영한 담보가치 평가 정교화 및 리스크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으로 무형자산 및 상각비 증가, 대손비용 관리 효율화 |
| | 만성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 기후패턴의 장기적 고착화로 기후 취약성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연속성계획(BCP) 고도화 관련 판매관리비 증가 | |

기후위기 대응

전략

- 기후 관련 기회

| 유형 | 기회요인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상품 및 서비스 | ·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확대 · 저탄소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 · 친환경 신상품 라인업 개발 개발 및 기후 혁신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 · 기후금융 상품 공급 확대 및 시장 선점에 따른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증가 |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를 통한 비이자수익 다변화 및 순이자마진(NIM) 개선 |
| 시장 | · 신규 시장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 글로벌 탄소시장 및 ESG 신시장 진출, 초기 인프라 투자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 · 환경 부문 ESG금융상품 및 투자 다각화로 영업수익 다변화 및 녹색 대출채권 규모 확대 | · 투자자산 가치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평가이익 창출, 자본법이익 증가 |
| 자원 효율성 | ·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 ·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에 따른 유형자산 및 자본적지출 증가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자원 사용 성과 가시화에 따른 판매관리비 절감 | · 자원순환 체계 정착에 따른 고정성 운영비용(판매관리비) 절감 및 총자산이익률(ROA) 개선 |
| 에너지 자원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 · 재생에너지 펀드 및 녹색 PF 금융지원 확대에 투자자산 및 대출채권 증가 | · 자산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 리스크 조기 배제로 자산건전성 제고 및 대손비용 감소 | · ESG 신뢰도 제고 기반 예수부채 유입 증대 |
| 복원력 | ·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수익 다각화 |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ESRM) 고도화 및 기후 회복력 정책 수립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 · ESG 우수기업 대상 여신 확대에 부실채권(NPL) 비율 하락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 · 녹색채권 발행 등 ESG 자금유입 가속화에 따른 차입부채 조달비용(이자비용) 절감 및 자본적정성(BIS, CET1) 제고 |

- 투자 및 처분 계획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의 모니터링 및 공시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룹의 환경정보관리시스템 및 ESG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따른 운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확대를 위해 기후금융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인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에 따라 조달된 자금은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따라 친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저탄소 전환 대출 등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활동에 전액 할당됩니다.

| 전략 | 자금조달 원천 | 투자 금액 | |
|------------------------------------|---------------|--------|---------------------------|
| | | 2025 | 향후 계획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 정부지원금 및 자체 예산 | 1.6억 원 | 연도별 신규 설비 설치 시 소요 예산 편성 |
| ESG금융상품 환경 부문 공급 확대 | 녹색채권 등 | 1.6조 원 | 25조 원 (2030년 누적 잔액 기준) |
| ESG 정보공시시스템 및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자체 예산 | 9.9억 원 | 0.9억 원 (2026년 편성 예산) |

기후위기 대응

전략

전략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한 비용을 재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25년 말 누적 기준 19.7조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사회적채권 원칙」 및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실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녹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됩니다. KB금융그룹은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실행하여 2025년에는 ESG 채권을 약 1.9조 원 발행하였으며, 2030년 말까지 ESG 채권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ESG 채권 발행 외에도 정부 정책금융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 순환 활동 등 친환경경영 활동을 통해 절감된 운영비용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실행에 총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KB금융그룹은 2040년과 2050년까지 각각 내부배출량 및 금융배출량의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ESG 금융상품(상품·투자·대출)의 규모를 2030년 50조 원(환경 부문 2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준연도 | 단계별 목표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
| KB Net Zero S.T.A.R. | 내부배출량 ¹⁾ (Scope 1 & 2) | 2020년 : 139,888 tCO ₂ eq 2030년 : 81,135 tCO ₂ eq 2040년 : 0 tCO ₂ eq | 123,545 tCO ₂ eq | 118,523 tCO ₂ eq |
| | 금융배출량 ²⁾ (Scope 3) | 2019년 : 26,761,188 tCO ₂ eq 2030년: 17,851,944 tCO ₂ eq 2040년: 10,436,146 tCO ₂ eq 2050년: 0 tCO ₂ eq | 49,462,484 tCO ₂ eq | 51,566,264 tCO ₂ eq |
| KB Green Wave 2030 | ESG금융상품 | 2021년: 25.1조 원 2030년 : 50조 원 (환경 부문 25조 원) | 33.2조 원(환경 부문 19.2조 원) | 36.9조 원(환경 부문 20.8조 원) |

1) 내부배출량의 연도별 실적은 SBTi 감축 목표 수립 시 사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실적임 (지주 및 산하 계열사(국내 사업장) 기준)

2) 금융배출량의 연도별 실적은 SBTi 감축 목표 수립 이후 산출 대상 범위 확대에 의해 증가함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KB금융그룹은 KB의 사업모형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적응하고 견딜 수 있을지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KB금융그룹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모형을 검토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자체 개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후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NGFS¹⁾ 및 IPCC²⁾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규모 및 영업이익의 미래 성장세를 배제하고, 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전환 위험'과 기후변화(지구 평균온도 상승 등)에 따른 물적 피해 및 담보가치 하락 등의 '물리적 위험'을 반영하여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 KB금융그룹 선정 기후 시나리오

| 대상 | 전환 위험 | 물리적 위험 |
|-------------|--|--|
| 분석 기간범위 | 2026년 말부터 2050년까지 향후 약 25년에 대한 영향 분석 | |
| 분석대상 자산범위 | 신용리스크 RWA(Risk Weighted Assets,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 중 기업금융(대출, 주식, 채권) 및 부동산(상업용,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자산 | |
| 분석대상 사업범위 | 지주 및 산하 계열사(국내외 사업장), 계열사별 종속기업(특수목적기업, 투자펀드/신탁 제외) | |
| 적용 시나리오 | NGFS 시나리오 - 현재 정책 유지 (Current Policies) - 지연전환 (Delayed Transition) - 탄소중립 (Net Zero) | RCP 시나리오 ³⁾ - RCP2.6 - RCP4.5 - RCP6.0 - RCP8.5 |
| 국제 협약 부합 여부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 |
| 시나리오 선정 사유 | NGFS는 국내 금융당국이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감독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업종 수준의 탄소가격 경로 및 배출량 전망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업금융 차주의 탄소비용 부담 증가를 통한 신용리스크 전이 분석에 최적화되어있다고 판단 | IPCC에서 제시한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예측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표준임 |
| 투입변수 | 차주별 재무정보, 탄소배출량, NGFS 탄소배출량 시나리오, KRX 탄소배출권 가격, 산업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등 | 차주별 부동산담보 정보, 재해유형별 피해금액 변화율(시나리오), 일 누적 강수량, 재해 피해현황(과거 10개년), 시도별 총생산 등 |

1)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기후변화,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기준 논의를 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
 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3)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실가스 농도 변화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

| 투입변수 | 주요 가정 | 데이터 원천 |
|-----------------|--|-----------------|
| 기후 관련 정책 | · 국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율 | · 내부 |
| 거시경제 | · GDP 성장률: 2022~2030년 3.0%, 2030~2050년 2.5% 가정 | · NGFS |
|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변수 | · 국내 17개 지역별 자연재해 정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 한국 탄소가격 전망 | · 기상청 · NGFS |
| 에너지 사용 믹스 | ·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 | · NGFS |
| 기술 개발 | · 국내 탄소 포집·저장 기술 보급 경로 | · NGFS |

기후위기 대응

전략

NGFS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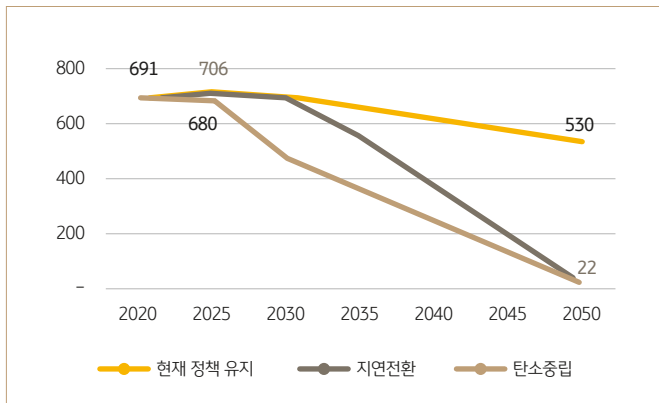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2024년 NGFS에서 공개한 제5차 기후 시나리오의 7가지 전환경로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의미한 재무적 영향이 나타나는 ‘현재 정책 유지(Current Policies)’, ‘지연전환(Delayed Transition)’, ‘탄소중립(Net Zero)’의 3 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NGFS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탄소가격, 온도 변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주요 기후 변수들을 제공합니다.

| 시나리오명 | 주요 내용 | 탄소배출량 | 탄소가격 |
|-----------------------------|---|--|--|
| 현재 정책 유지 (Current Policies) | 기후정책 부재로 대부분 국가가 저탄소 전환 노력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경우로, 전환 위험은 크지 않으나 물리적 위험은 크게 확대 | 기후정책 부재로 현재 수준 유지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일부 대체되어 점차 감소 | 기후정책 부재로 현재 수준 유지 |
| 지연전환 (Delayed Transition) | 기후정책 도입이 지연되다가 2030년 이후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하여, 물리적 위험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나 전환 위험은 확대 | 2030년 706백만 톤에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 22백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 | 203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50년 한국의 탄소가격 전망치가 톤당 \$1,190 수준으로 중간 수준 |
| 탄소중립 (Net Zero) | 2050년까지 강력한 기후정책을 시행하여 탄소중립이 이루어져 이행리스크는 확대되나, 물리적리스크는 제한적 | 2025년 680백만 톤에서 2050년 제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이행 시 한국의 탄소가격 전망치가 톤당 \$1,600 수준으로 가장 높음 |

-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탄소가격에 대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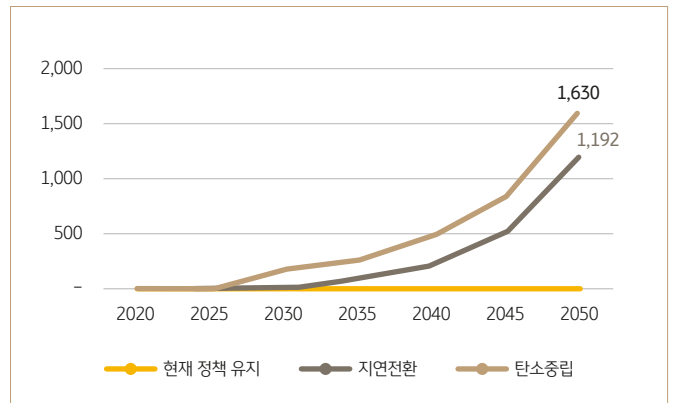
① 탄소배출량 (한국)

(세로축 단위: MtCO₂eq/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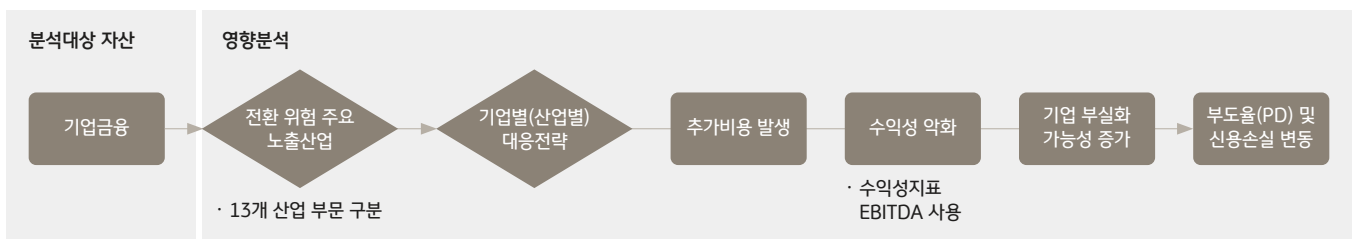
② 탄소가격 (한국)

(세로축 단위: US\$2010/tCO₂)



- 전환 위험 시나리오 분석 절차

KB금융그룹은 NGFS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대출, 채권, 주식 등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전환 위험이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탄소가격 및 탄소배출량을 이용하여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게 될 탄소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수익성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의 부도율 상승을 측정하여 신용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IPCC 시나리오

KB금융그룹은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2014년 발표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이행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를 달리 가정한 경로를 제시하며, 총 27개의 재해유형을 국가별로 분류해 주요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에 필요한 재해유형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홍수(호우, 하천범람), 태풍, 산불을 핵심 재해유형으로 선정하여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재해유형 선정근거

| 재해 유형 | 주요 내용 |
|-------|---|
| 홍수 재해 |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극단적인 강수량 증가가 예측되고,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GDP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시아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 |
| 태풍 재해 | 열대성 저기압 관련 연평균손실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중 6개국에 한국이 포함됨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 |
| 산불 재해 | 기후변화 가속화로 국내 산불 재해의 규모와 강도가 과거 예측치를 상회하여 대형화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불 위험에 따른 자산건전성 영향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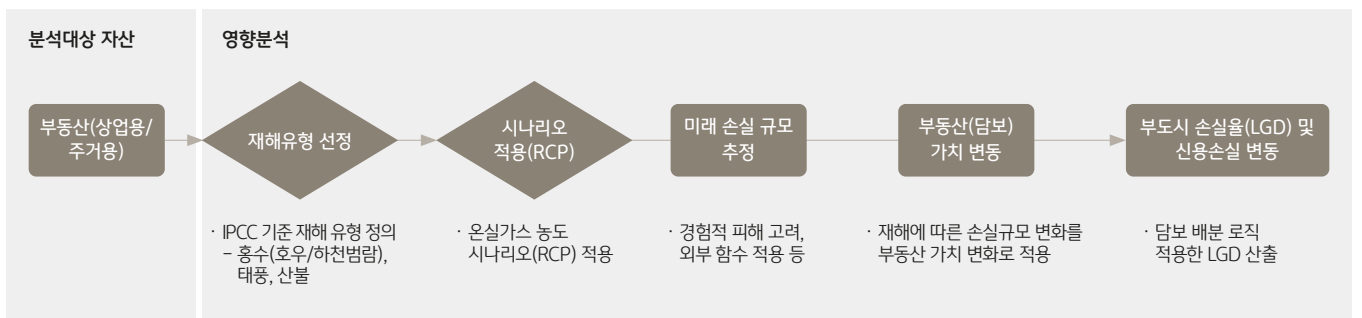
- RCP 시나리오

| 시나리오 구분 | 가정 | 2100년 CO ² 농도 |
|---------|--|--------------------------|
| RCP2.6 |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 수행.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실현불가) | 420ppm |
| RCP4.5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 540ppm |
| RCP6.0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 670ppm |
| RCP8.5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배출량 저감 고려하지 않음) | 940ppm |

* RCP 숫자는 온실가스에 따른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W/m²)를 의미. 예를 들어 RCP8.5는 CO² 농도가 940ppm이 되면 태양에너지가 8.5W/m² 추가 흡수됨

-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분석 절차

KB금융그룹은 RCP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시점의 재해 발생 시 경제적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부동산(상업용 및 주거용)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물리적 위험을 파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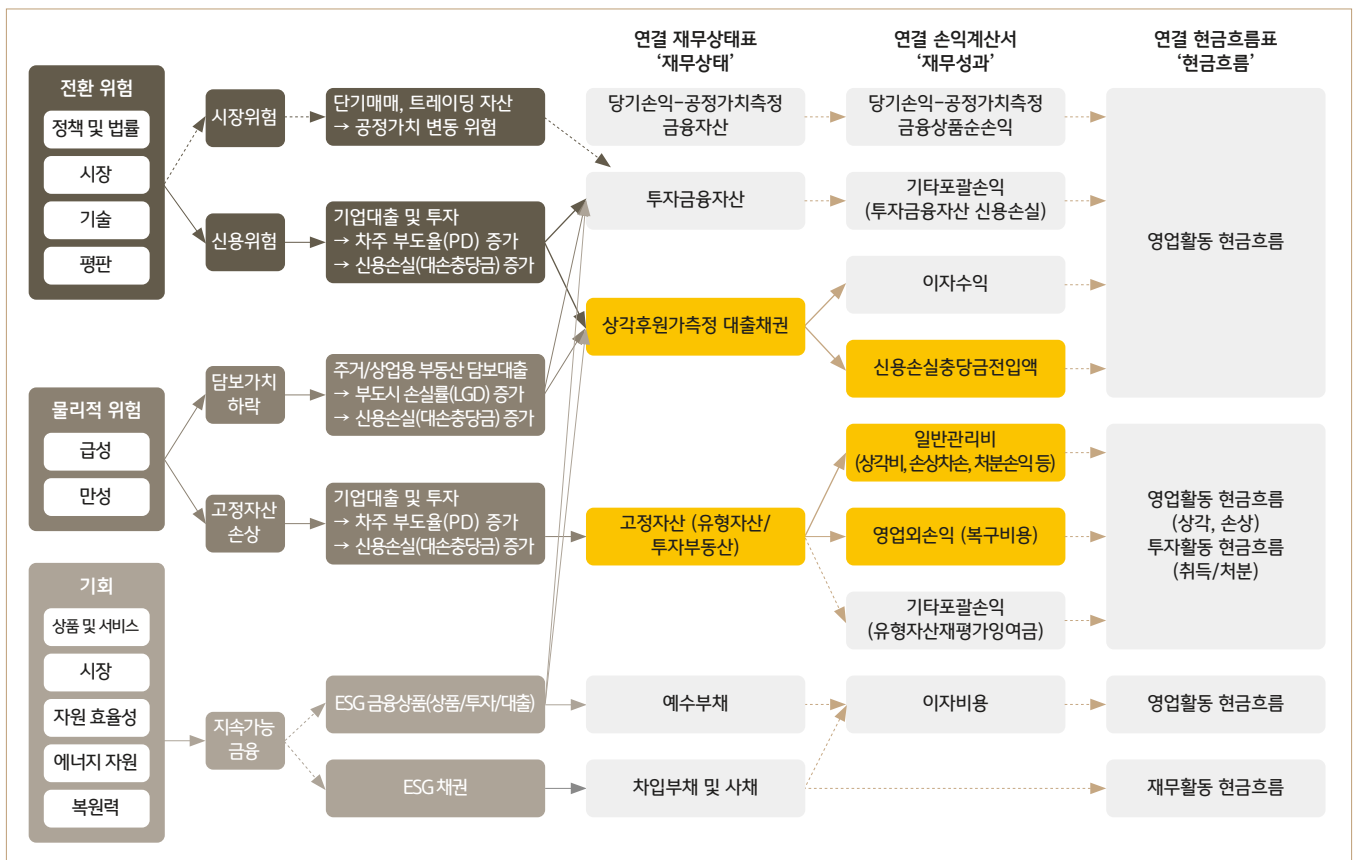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KB금융그룹은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대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제표에 전이되는 재무적 경로를 계정과목 단위로 분석하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경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

KB금융그룹은 1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당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합니다. KB금융그룹은 피투자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의 발생으로 인한 대출채권의 연체 및 부실 긴급자금 지원 등으로 인한 효과와 자연재해로 인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였습니다.

당기 중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피투자기업의 연체 및 부실 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위험 중 급성 위험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및 복구비용을 약 21백만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현재 확인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 다음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후 관련 위험의 예상 재무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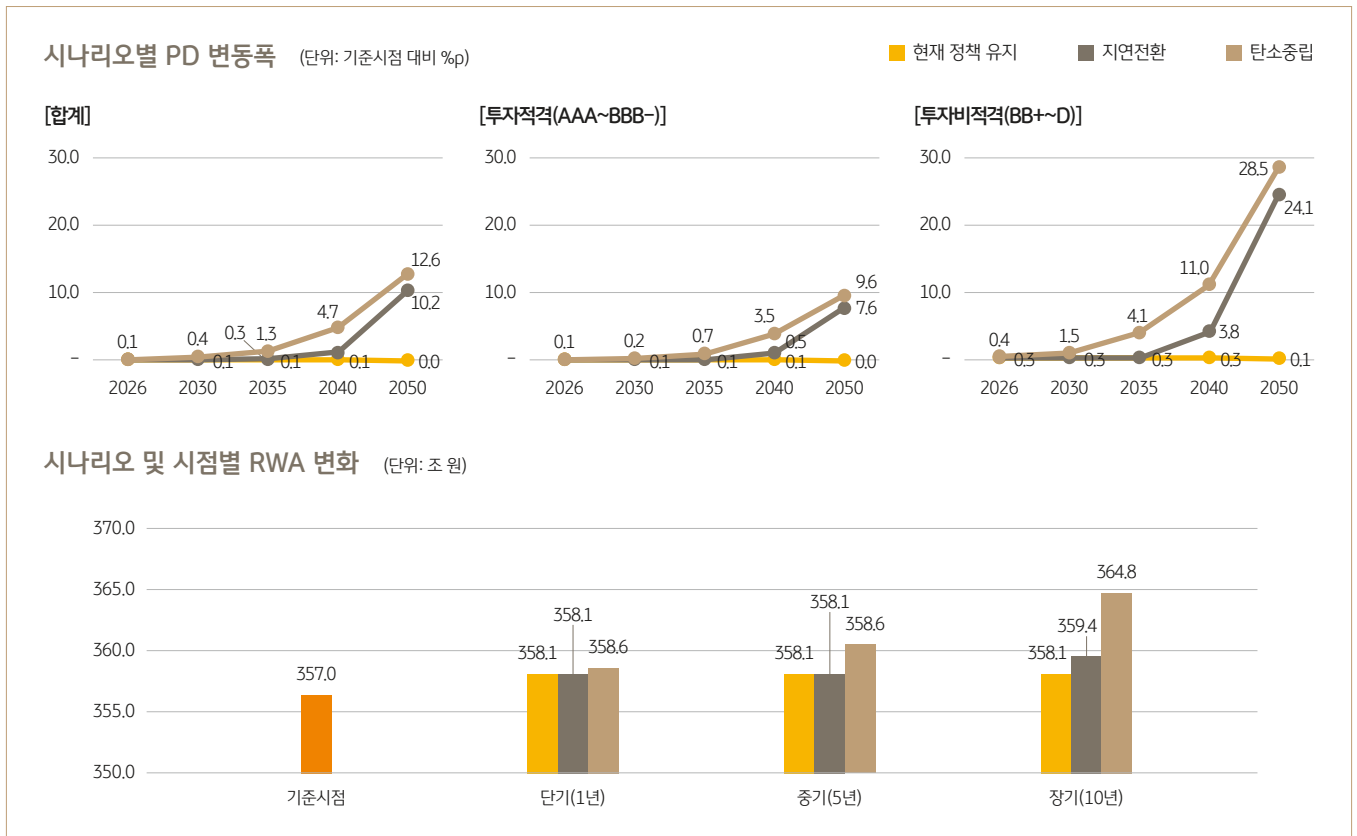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2025년 말 신용리스크 RWA(Risk Weighted Assets,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2050년까지 향후 25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환 위험은 NGFS 탄소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물리적 위험은 IPCC RCP8.5 시나리오 하에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별 단기, 중기, 장기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기후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전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차주의 물리적인 자산가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탄소정책 강화로 고탄소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환 위험

전환 위험의 영향을 받는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NGFS 시나리오에 따른 차주의 부도율(PD) 증가율과 그로 인한 자본비율(BIS, CET1)의 변동을 추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간 경과 및 정책 강화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NGFS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였을 때 부도율 증가의 영향은 '탄소중립 > 지연전환 > 현재 정책 유지' 순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연전환 시나리오는 2030년부터 저탄소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므로 2029년까지는 현재 정책 유지 시나리오와 유사한 부도율을 보이나, 203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50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적격 등급 대비 비적격 등급 자산의 부도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RWA는 NGFS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장기(10년) 시점에 기준시점 대비 7.8조 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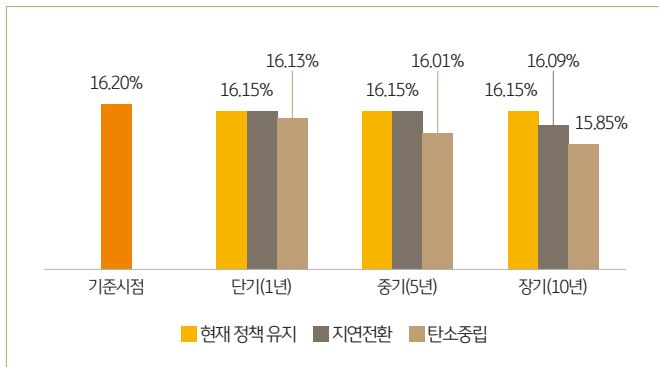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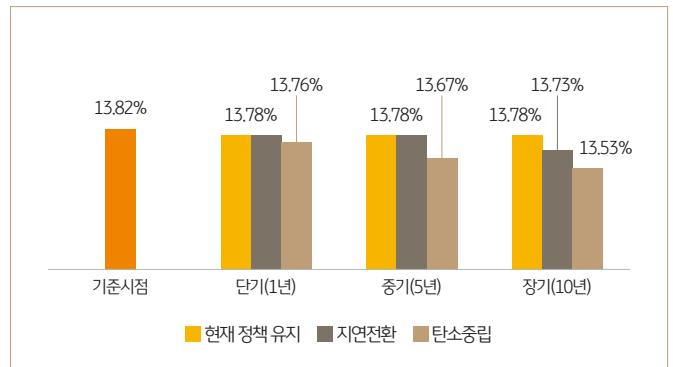
전환 위험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자본비율에 미치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NGFS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25년 말 기준 대비 장기(10년) 시점의 BIS비율 및 CET1비율은 각각 0.35%p, 0.2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시점 대비 BIS비율 및 CET1비율의 하락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5%p 미만으로 그룹의 손실 흡수 능력 범위 내에 있어, 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BIS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시점: 2025년 말 기준 BIS비율 16.20%

② CET1비율(보통주 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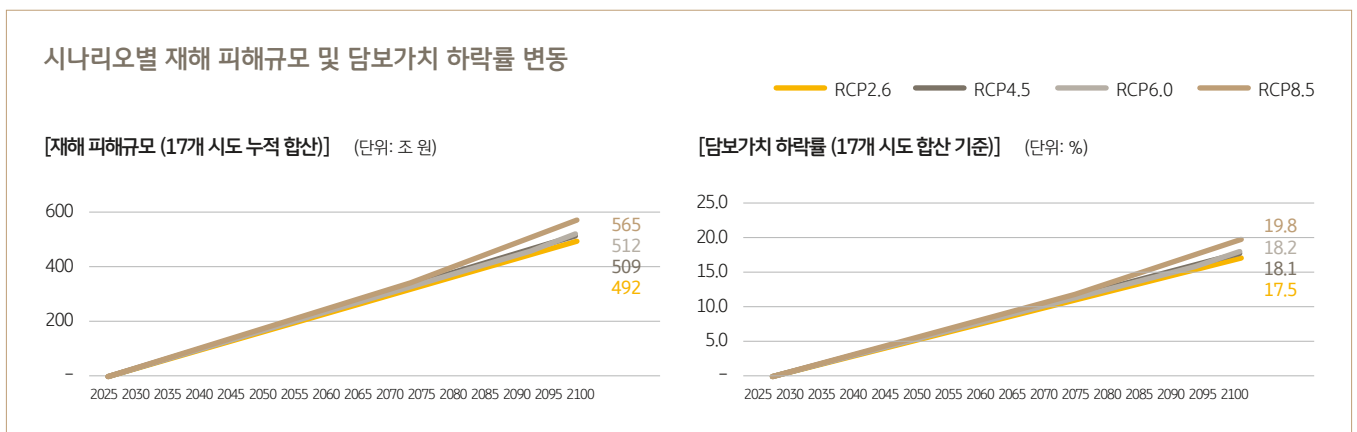
기준시점: 2025년 말 기준 CET1비율 13.82%

-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IPCC의 RCP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LGD 증가율과 그로 인한 자본비율(BIS, CET1)의 변동을 추정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산불·태풍·홍수 피해액 분포와 기상 데이터 등 다양한 재해유형에 따른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의 담보가치 하락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평균 부도시 손실률(LGD)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LGD 변화가 크면 신용손실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규모는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17개 시도 단위의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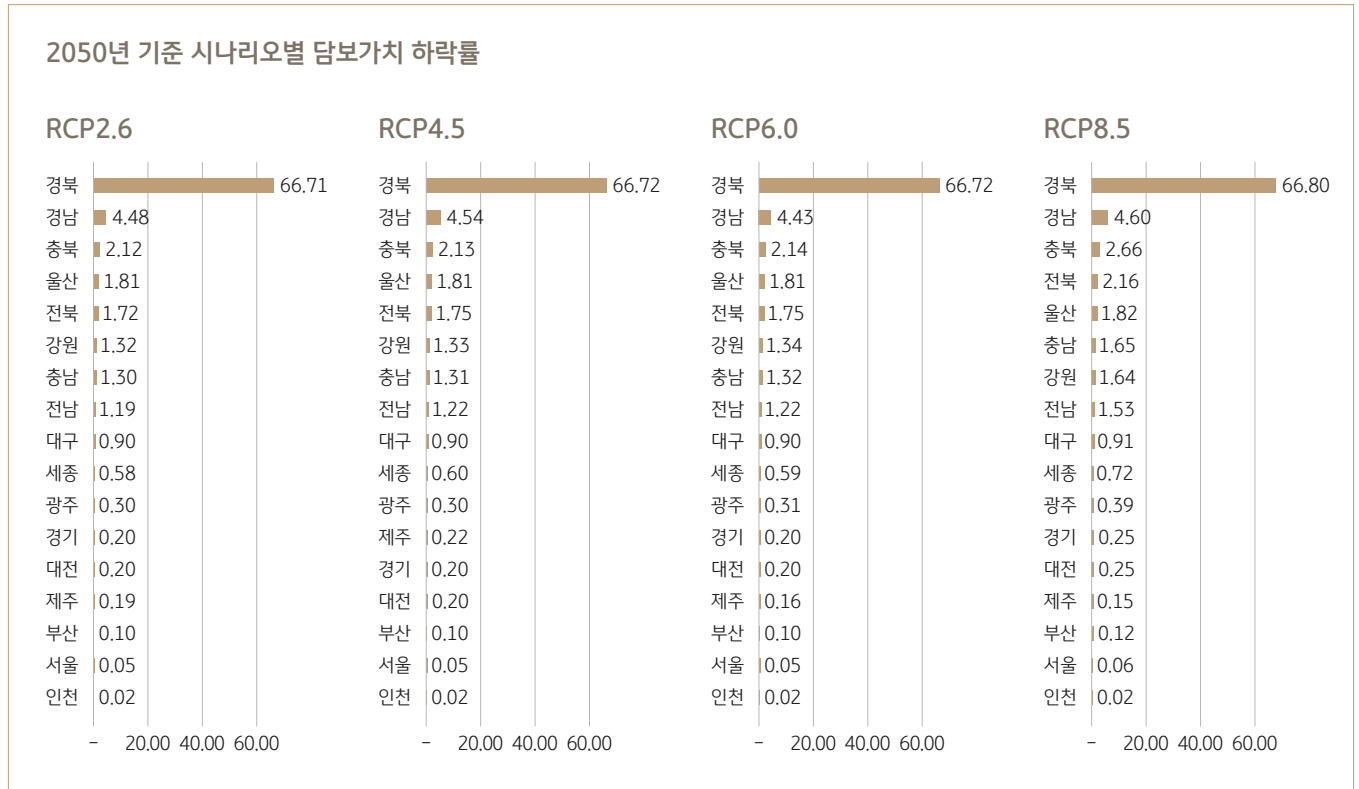
분석 결과, 기간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담보가치 하락률이 19.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RCP2.6 시나리오(17.5%) 대비 2.3%p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에 따라 담보자산의 가치 손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2025년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같이 극단적인 기후재해가 동반될 경우, 단일 재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률 영향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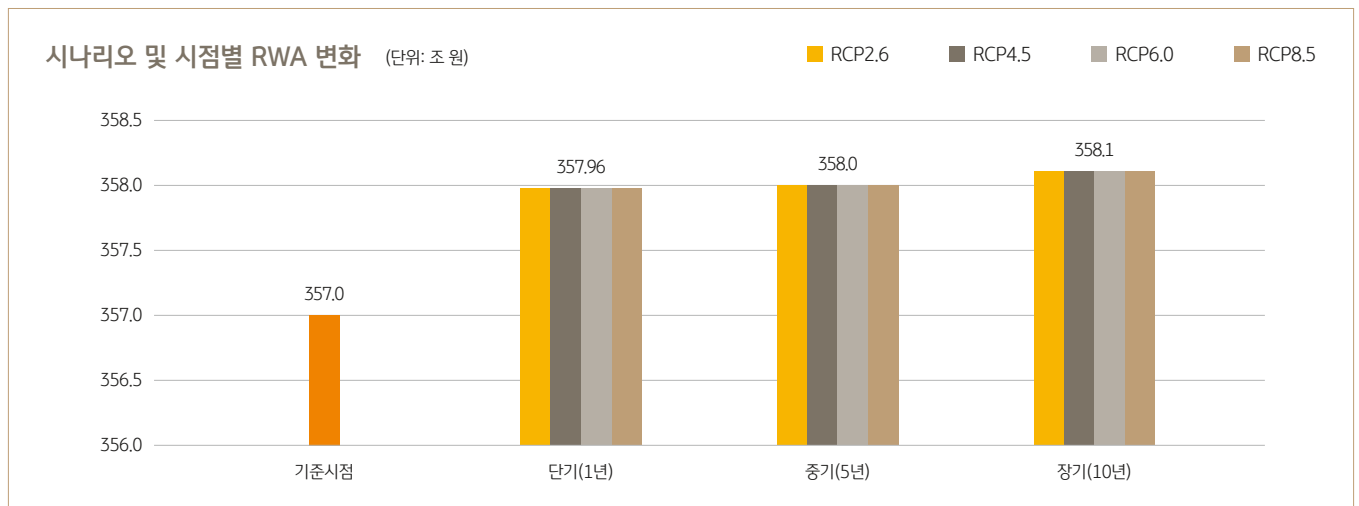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전략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25년 발생한 경상북도 대규모 산불에 의한 물리적 위험의 급격한 고조로 경상북도 지역의 RWA 증가량이 전체 지역 중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큰 서울 및 경기의 RWA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포트폴리오의 외형적 자산 집중도보다 기후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 민감도가 KB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도시 손실률(LGD)의 변화에 따른 RWA(위험가중자산)의 변화는 RCP8.5 시나리오에서 영향이 가장 크며, 2025년 말 기준 대비 장기(10년) 시점의 RWA가 1.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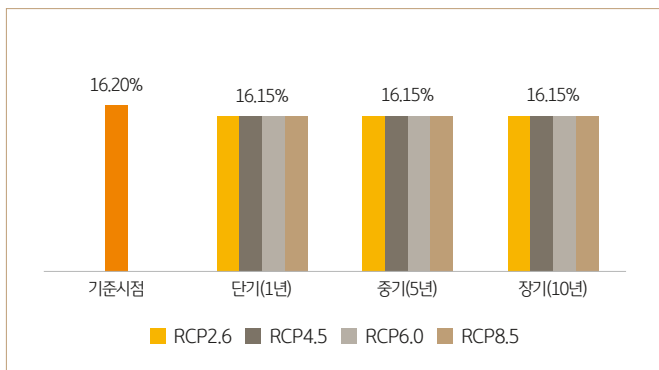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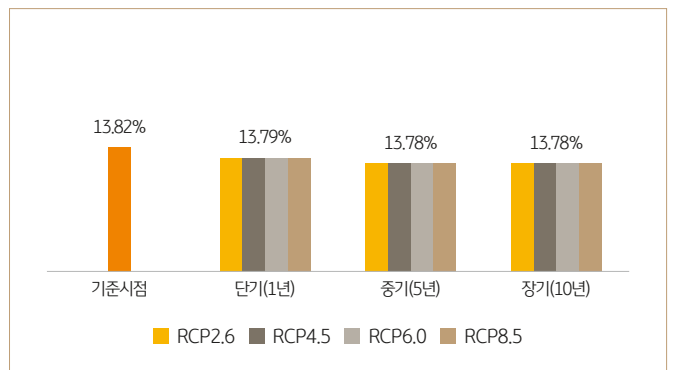
물리적 위험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자본비율에 미치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격차가 큰 RCP8.5 시나리오에서 2025년 말 기준 대비 장기(10년) 시점의 BIS비율 및 CET1비율은 각각 0.05%p, 0.04%p 감소하였으며, 기준시점 대비 BIS비율 및 CET1비율의 하락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1%p 미만으로 유의적인 재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역별 자산 분산과 적극적인 위험회피 전략을 통해 물리적 위험의 노출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① BIS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시점: 2025년 말 기준 BIS비율 16.20%

② CET1비율(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시점: 2025년 말 기준 CET1비율 13.82%

기후 관련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

KB금융그룹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기회요인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친환경 상품 개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적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형 | 기회요인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상품 및 서비스 | ·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확대 · 저탄소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 · 친환경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체계 구축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 · 친환경 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의 증가 | · 저탄소 자산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안정적 이자수익 기반 구축 및 순이자마진(NIM) 개선 |
| 시장 | · 신규 시장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 기후금융 신시장 진출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무형자산 취득 증가 | ·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영업수익 다변화 및 시장 선점을 통한 대출채권 규모 확대 | · 기후 관련 투자자산 가치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금수익 및 평가이익 창출, 자본법이익의 증가 |
| 자원 효율성 | · 운영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 ·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에 따른 자본적지출 증가 | ·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판매관리비 절감 및 총자산이익률(ROA) 개선 | · 자원순환 체계 정착에 따른 고정성 운영비용(판매관리비) 구조적 절감 |
| 에너지 자원 | · 친환경 에너지원 자원 확보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에 따른 유형자산 취득 증가 | ·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따른 에너지 구매비용 절감 및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동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지속 증가 | · 에너지 자립을 통한 운영비용 구조적 절감 및 브랜드가치 제고에 따른 고객 유입 증대로 영업수익 증가 |
| 복원력 | ·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수익 다각화 |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리스크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무형자산 취득 증가 | · 기후위기사 선제적 건전성 관리로 부실채권(NPL) 비율 하락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 · ESG 신뢰도 제고를 통한 차입부채 조달비용(이자비용) 절감 및 자본적정성(BIS, CET1) 강화 |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후 회복력 평가

KB금융그룹은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대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본적정성 관리체계에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룹의 회복력을 평가합니다.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CET1비율(보통주자본비율)은 잠재적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KB금융그룹은 CET1비율 13%를 내부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며, 규제비율 유지를 위한 위기단계별 임계치를 설정하고 임계치 도달시 즉각적인 경보 및 대응조치가 발동되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자본적정성 관리체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로 직접 활용됩니다.

- 기후리스크 위기단계별 임계치

| 자본적정성 | 조기경보체계 | | | 정상화 실행 단계 | | 규제비율 |
|-----------------|---------|---------|---------|-----------|---------|-------|
| | 정상 | 관심 | 주의 | 위기징후 | 위기 | |
| BIS비율(자기자본비율) | ≥ 14.5% | < 14.5% | < 14.0% | < 13.6% | < 13.0% | 12.5% |
| CET1비율(보통주자본비율) | ≥ 11.0% | < 11.0% | < 10.5% | < 10.1% | < 9.5%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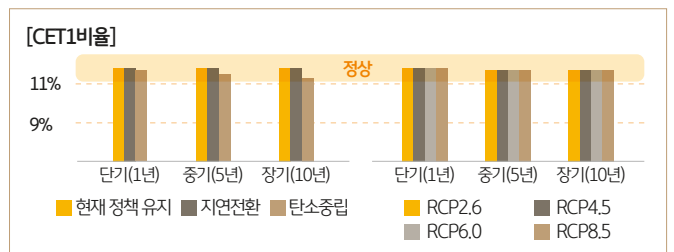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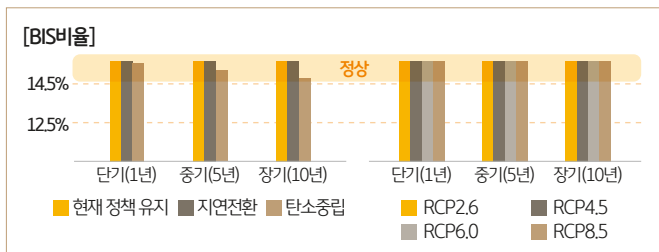
- 위기상황 주요 대응 수단

| 추진 전략 | 자체정상화계획 상의 주요 대응 수단 |
|--------|---|
| 자본확충 | · 자산매각: 시장성/비시장성 자산 매각, 업무용 부동산 매각, 자산 매각(NPL채권/정상채권 매각) · 자본조달: 후순위채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
| 유동성 확보 | · 원화유동성 조달: CD발행, 원화채권발행, 금융기관 예금 조달 등 · 외화 유동성 조달: 외화채권 매각/발행, 외화 차입 조달 등 |

자본적정성 평가 및 기후 회복력 중장기 대응 전략

KB금융그룹은 자산규모 및 영업이익의 미래 성장세를 배제한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가정 하에서도 기후 시나리오별 자본적정성 분석 결과 모두 “정상” 단계 이내로 추정되어 단·중·장기에 걸친 그룹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선제적인 자본 효율성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그룹의 견고한 재무적 펀더멘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본적정성 평가

| 위험 대응 측면 | 기업가치 제고 측면 |
|--|--|
| · 모든 시나리오에서 조기경보체계상 “정상”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극단적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그룹의 재무적 복원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라 임계치 도달하는 경우에도 자체정상화계획상의 대응 수단을 즉시 가동하여 자본적정성을 회복합니다. | · KB금융그룹은 고탄소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 등 적극적인 중장기 대응 전략을 실행하여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CET1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

전략

- 기후 회복력 증강기 대응 전략

| 추진 전략 | 추진과제 |
|-----------------|--|
|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고도화 | ·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수집, 취합, 분석 체계 고도화 · 정기적인 기후 시나리오 분석 적정성 평가 실시 |
| 재무적 회복력 방안 마련 | · 시나리오별 자본적정성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자본 완충, 리스크 대응 수단 마련 · 기후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방안 수립 |
| 내부 역량 강화 | · 기후 관련 위험요인 관리 지표 발굴 및 측정 역량 개발 ·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주기적 실시 등 임직원 교육 강화 |

기후 회복력 평가에서 고려된 유의적인 불확실성의 영역

KB금융그룹은 기후 회복력 평가 과정에서 그룹의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불확실성을 시나리오 분석에 반영하고 주요 가정 및 투입변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전제조건과 모형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방법론의 신뢰성과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최신 국제 동향과 데이터를 반영하여 기후리스크에 대한 진단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확실성 영역 | 주요 내용 | 재무적 경로 |
|-------------------|--|----------------------------|
| 기후 규제 및 정책 이행 속도 | · 탄소중립 정책 강화 속도에 따른 고탄소 업종 전환비용 증가 | PD 상승 → 총당금 증가 → RWA |
| 재생에너지·녹색기술 상용화 속도 | · 기술 보급 속도에 따른 ESG금융상품 공급 및 녹색금융 재원 확보 성패 결정 | 기후금융 목표 달성가능성 변동, 수수료수익 증감 |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 · 고금리 기조 지속 시 저탄소 프로젝트 자금조달 여건 악화 | 기후금융 공급 규모 축소 및 수익성 저하 |
| 물리적 위험 심화 | · 홍수, 태풍, 산불 등 이상 기후현상 빈도·강도 증가 | LGD 상승 → 담보가치 하락 → 대손비용 증가 |
| 시나리오 모델·가정 불확실성 | · GDP 성장률, 탄소가격, 배출계수 등 주요 투입변수 및 가정 변화 시 분석 결과의 변동성 | 재무적 영향의 직접적 변동 |

기후변화에 대해 전략과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역량

KB금융그룹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여, 단기적인 리스크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사업 기회 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후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역량 | 세부 수단 | 주요 내용 | 이행 현황 |
|--------------------------------------|----------------|--|---------------------------------------|
| 기존 재무자원의 가용성 및 유연성 | 자본적정성 관리 | · BIS비율, CET1비율 5단계 조기경보체계 운영(정상·관심·주의·위기징후·위기) · CET1비율 내부 관리목표 설정 (13%) | · 2025년 말 CET1비율 13.82% |
| | 저탄소 재원 조달 | ·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기반 녹색채권 발행 등 안정적인 저탄소 재원 조달 원천 확보 | · 2025년 말 기준 ESG 채권 누적 19.7조 원 발행 |
| | 자체정상화계획 | · 위기 시 자본 확충 및 유동성 확보 | - |
| 기존 자산을 재배치, 용도 변경, 개선 또는 해체할 수 있는 능력 |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 · 기후 시나리오 기반 산업군별 탄소집약도 모니터링 · 고탄소 자산의 단계적 축소 및 녹색자산으로의 자본 재배분 | - |
| | 담보자산 재배분 | · 기후 취약지역 담보가치 하락에 대응한 심사기준 강화, 부동산 담보 리스크 분산 및 축소 | - |
| 현재 및 계획된 투자의 영향 | 내부 운영자산 친환경 전환 | · 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차량 전환, 그린빌딩 등 친환경 건축 전환에 투자 | · 2025년 1.6억 원 투자 |
| | ESG금융 및 컨설팅 지원 | · 전환금융 전용상품 공급 확대, 친환경 신기술 투자, 저탄소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한 고객의 저탄소 전환 지원 | · 2025년 말 잔액 기준 ESG금융상품 환경 부문 20.8조 원 |
| |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 · ESG정보공시시스템과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상시 관리 및 공시정보 신뢰성 확보 | · 2025년 9.9억 원 투자 |
| | 인적·물적자본 최적 배치 | · 업무연속성계획(BCP)에 기후 요소 반영, 기후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 채용 및 교육에 대한 투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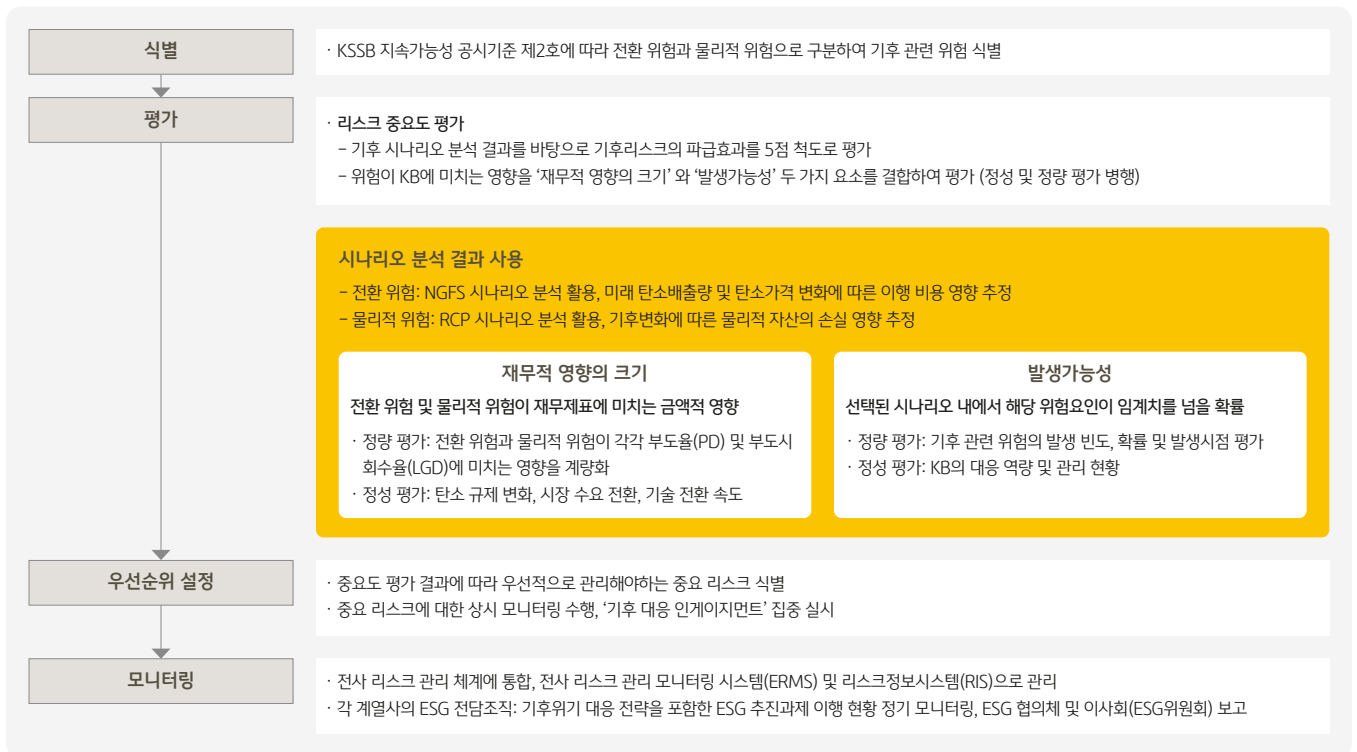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위험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후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중요도 평가의 객관성과 재무적 예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NGFS, IPCC 등 글로벌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투입변수를 활용합니다. KB금융그룹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수집된 실제 활동 데이터와 거시경제 변수를 연계하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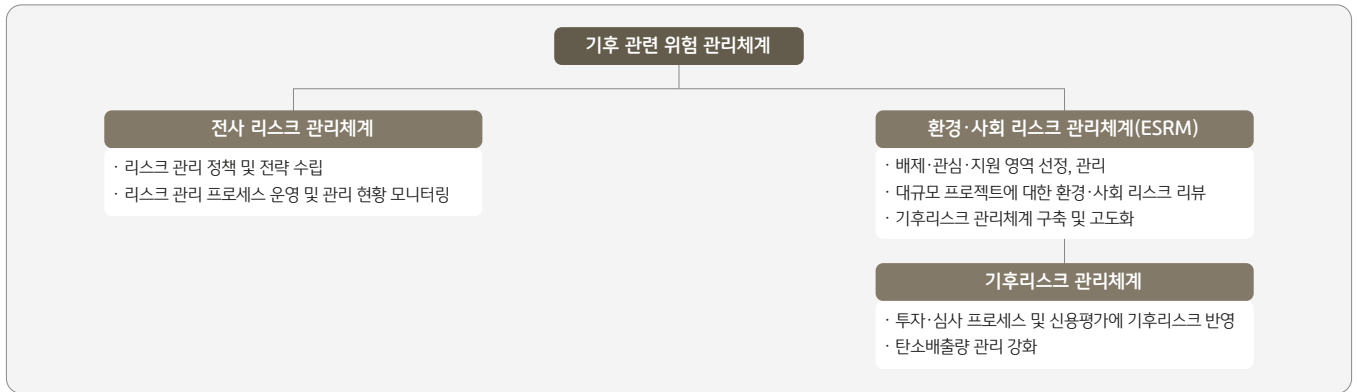
| 주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 데이터 원천 | 적용된 사업범위 |
|---|--------------------|----------------------------------|
| NGFS(현재 정책 유지, 지연전환, 탄소중립), RCP(2.6, 4.5, 6.0, 8.5) | NGFS, IPCC | |
| GDP 성장률 전망, 산업별 부도율(PD), 담보가치 하락률 | NGFS, 한국은행, 내부 가정 |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탄소가격 전망 | 대한민국 정부, IEA, NGFS | 회계상 연결실체 기준의 기업금융 및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
| 강수량, 평균 기온, 극한 기상 현상 빈도 | 기상청 | (단, 신탁, 자산유동화증권, 투자펀드는 제외) |
| 자산 위치 정보(위·경도), 장부가액, 업종별 민감도 | 연결재무제표, S&P | |

기후위기 대응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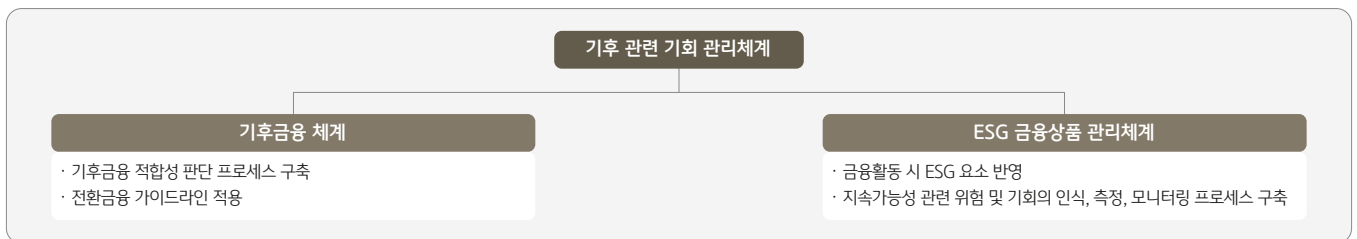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직접적·간접적·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는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량 관리 강화, 여신 심사 프로세스 및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합니다.



기회 관리 프로세스

기후 관련 기회 관리체계

기후변화는 리스크뿐 아니라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수반합니다. KB금융그룹은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 사업에 대한 기후(녹색·전환) 금융 지원 등 친환경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후 관련 기회를 적극 발굴합니다.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리스크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기후 관련 기회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은 위험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함께 수행됩니다.



전사 위험관리 프로세스 통합

K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이 직면한 ‘중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있으며, 기후리스크를 이러한 중요 리스크의 하위 전이 요인으로 식별하여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기후 요인이 재무 및 비재무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리스크 유형별 측정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며, 지주 리스크관리부에서는 이를 통합 검토하여 그룹 차원의 잠재적 위기 상황을 분석합니다. 특히, 기후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 프로세스’에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향(Risk Appetite) 목표 설정과 내부자본 한도 배분, 기후 취약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재무적 복원력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별된 위험과 대응 전략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거쳐,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위원회에 정기 보고되며,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기후대응 전략은 현업 실행조직의 KPI에 연동되어 실무 현장의 리스크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11~16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활동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산업전반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

KB금융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에서 정의한 통제 접근법(Control Approach)을 자산 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재무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계열사 및 사업장을 보고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의 범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범위를 일치시켜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행 간의 적합성을 높이고 그룹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배출계수를 적용하며, 금융배출량(Scope 3) 산정의 경우 PCAF(탄소회계금융협약체)의 가이드라인을 투입변수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데이터 미확보 시 산업별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한 추정치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접근법

| 구분 | 측정접근법 |
|-------------------------|--|
|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2004)의 통제 접근법 · ISO 14064-1 (2018) ·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0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4064-1 (2018) · Corporate Value Chain(Scope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투입변수 및 가정

| Scope | 배출활동 | 투입변수 및 가정 | |
|----------------------|--------------|---|--|
|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고정연소 | · 활동자료: 도시가스(LNG), 경유(난방), 등유(난방), 프로판(LPG) ·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연료별 배출계수 | |
| | 이동연소 | · 활동자료: 휘발유, 경유(차량) ·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연료별 배출계수 | |
|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 외부 전기 | · 활동자료: 건물, 차량의 전기 사용량 ·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
| | 외부 열(스팀) | · 활동자료: 열(스팀) 사용량 · 배출계수: 한국지역난방공사 | |
| Category1 |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 · 활동자료: 종이 소비, 용수 사용, 통장/카드 구매 · 배출계수: 환경성적표지평가계수- 연료별 배출계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Category2 | 자본재 | · 활동자료: PC본체, 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구매 · 배출계수: 보유제품 탄소발자국 평균 | |
| Category3 | 에너지(기타) | · 활동자료: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중 Scope1, 2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 배출계수: 환경성적표지평가계수- 연료별 배출계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Category4 | 운송 및 유통 | · 활동자료: 현금 현수송 · 배출계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도로수송, 기후에너지환경부 | |
| Category5 | 폐기물 | · 활동자료: 매립 및 재활용 폐기물 · 배출계수 - 폐기물 소각: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 폐기물,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적표지평가계수 - 폐기물별 배출계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Category6 | 출장 | · 활동자료: 출장 거리 · 배출계수: 'U.S. EPA, GHG Emission Factors Hub - Emission Factors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 Business Travel'의 운송수단별 배출계수 |
| | Category7 | 임직원 통근 | · 활동자료: 통근 거리 · 배출계수: 'U.S. EPA, GHG Emission Factors Hub - Emission Factors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 Business Travel'의 운송수단별 배출계수 |
| Category11 | 판매된 제품의 사용 | · 활동자료: 인터넷/모바일뱅킹 · 배출계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 |
| Category12 | 판매된 제품의 폐기 | · 활동자료: 통장/카드 해지 · 배출계수 - 카드: 국가 LCI DB 폐기물-소각-PVC 소각 - 통장: 국가 LCI DB 폐기물-소각-종이 소각 | |
| Category13 |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 · 활동자료: 건물 임대, 차량 렌탈/리스 · 배출계수 - 건물 임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연료별 배출계수 - 차량 렌탈/리스: UK, GHG conversion factors full set-Managed Assets-Vehicles |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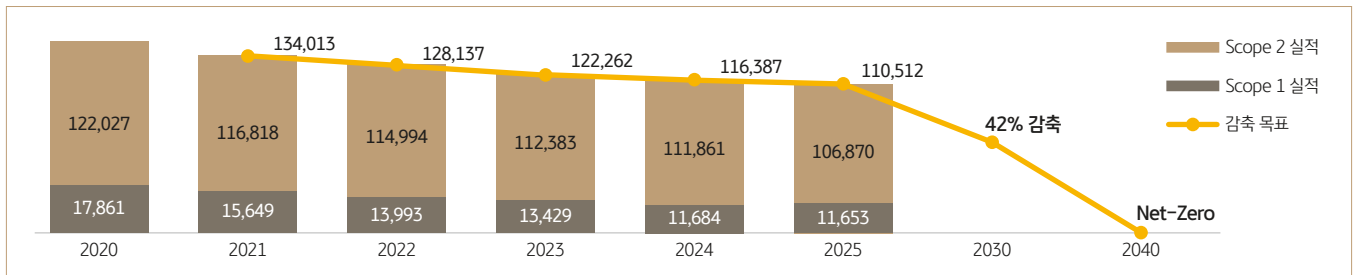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KB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기존 SBTi 감축 목표 수립 당시의 기준과는 별도로,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에 기반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계상 연결실체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특수목적기업과 투자펀드·신탁 등을 제외한 국내의 사업장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SBTi 감축 목표 수립 당시의 기준과 대비하여 조직 경계가 크게 확대되므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2025년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은 148,926 tCO₂eq으로, 전년 대비 약 6,398 tCO₂eq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확대,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 그리고 자원 순환 및 에너지 효율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한편, KB금융지주 및 11개 주요 계열사의 국내 사업장 대상으로 산출(SBTi 감축 목표 수립 기준)한 2025년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118,523 tCO₂eq으로 전년 대비 약 5,022 tCO₂eq 감소하여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15.3%의 감축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목표 이행 현황 (국내 사업장 기준)



(단위: tCO₂eq)

| 구분 | Net-Zero 경로 및 이행 현황 ¹⁾ | | | | | |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30 | 2040 |
| 직접 온실가스(Scope 1) | 17,861 | 15,649 | 13,993 | 13,429 | 11,684 | 11,653 | | |
| 간접 온실가스(Scope 2)-지역기반 | 122,027 | 116,818 | 114,994 | 112,383 | 111,861 | 106,870 | | |
| 합계 | 139,888 | 132,467 | 128,987 | 125,812 | 123,545 | 118,523 | | |
| Scope 1&2 목표 | - | 134,013 | 128,137 | 122,262 | 116,387 | 110,512 | 기준연도 대비 42% 감축 | NET-ZERO |
|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 (기준연도) | 5.3% | 7.8% | 10.1% | 11.7% | 15.3% | (중간 목표) | (최종 목표) |

1) SBTi 탄소 감축 목표(Near-term) (2021년 10월 승인),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목표 수립 및 배출량 산출

[참고] KSSB 제2호 기준¹⁾ (국내외 사업장 및 연결 종속기업 포함)

| 구분 | 단위 | 2023 | 2024 | 2025 | |
|-------------|-------------------------|--------------------------|---------|---------|---------|
| 온실가스 배출량 | 직접 온실가스(Scope 1) | tCO ₂ eq | 23,325 | 22,510 | 22,253 |
| | 간접 온실가스(Scope 2) - 지역기반 | tCO ₂ eq | 132,121 | 132,814 | 126,673 |
| | 합계 | tCO ₂ eq | 155,446 | 155,324 | 148,926 |
|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매출액 ²⁾ | 십억 원 | 77,640 | 85,214 | 81,378 |
| | 매출액 원단위 | tCO ₂ eq/십억 원 | 2.00 | 1.82 | 1.83 |
| | 임직원 1인당 | tCO ₂ eq/명 | 5.77 | 5.86 | 5.77 |

1) 해외사업장 및 연결종속기업을 포함한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추후 수립 예정

2) 그룹 매출액 기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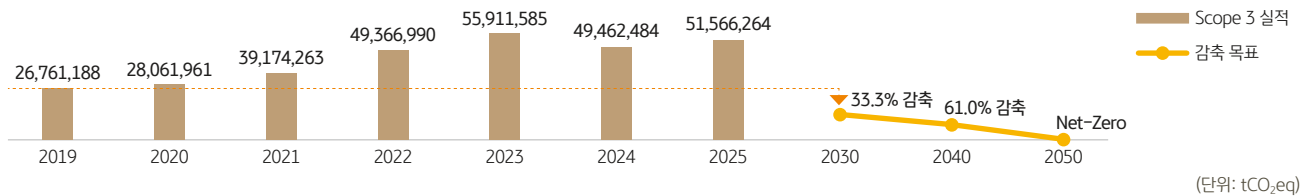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금융배출량 목표 이행 현황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은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에 의해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중장기적인 이행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고자, 금융배출량 총량 관리와 함께 자산 규모 대비 배출량 수준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집약도는 자산 포트폴리오 간의 상대적인 탄소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KB금융그룹의 자산 단위당 탄소집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주식·회사채, 비상장주식·기업대출, 주거용 부동산, 차량대출 등 주요 자산군 전반에 걸쳐 피투자·여신 차주들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KB금융그룹의 배출량 측정 고도화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기반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통해 산출 커버리지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PCAF 데이터 스코어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차주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 활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감으로써, 금융배출량 공시의 정확성과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분 | 2019 ¹⁾ | 2020 ¹⁾ | 2021 ²⁾ | 2022 ³⁾ | 2023 ⁴⁾ | 2024 | 2025 | 2030 | 2040 | 2050 |
|-----------------------------|--------------------|--------------------|--------------------|--------------------|--------------------|------------|------------|-----------------|-----------------|----------|
| 금융배출량 (Scope 3 Category 15) | 26,761,188 | 28,061,961 | 39,174,263 | 49,366,990 | 55,911,585 | 49,462,484 | 51,566,264 | 기준연도대비 33.3% 감축 | 기준연도대비 61.0% 감축 | NET-ZERO |
| | 기준연도 | | | | | | | 중간 목표 | | 최종 목표 |

- 1) 합계 익스포저 30억 원 이상 기업금융 자산 대상
- 2) 합계 익스포저 25억 원 이상 기업금융 자산 대상. 2021년 말 기준시점부터 주거용 부동산 및 차량 대출 신규 측정
- 3) 2022년 말 기준시점부터 모든 기업금융 자산 대상으로 산출. 국제 신규 측정, 합계에 포함된 국제의 금융배출량은 총 배출량 기준
- 4) 2023년 말 기준시점부터 국제에 해외국제 포함하여 측정

- 카테고리별 배출량 실적

(단위: tCO₂eq)

| 카테고리 ¹⁾ | 배출항목 | 2023 | 2024 | 2025 |
|--------------------|--------------------------------------|---------|---------|---------|
| 업스트림 | Category1 ²⁾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 3,399 | 3,419 | 5,376 |
| | Category2 자본재 | 7,284 | 3,502 | 4,529 |
| | Category3 ³⁾ 에너지(기타) | - | 18,400 | 20,639 |
| | Category4 ⁴⁾ 운송 및 유통 | 205 | 141 | 139 |
| | Category5 폐기물 | 6,001 | 4,188 | 3,721 |
| | Category6 출장 | 2,285 | 6,874 | 6,136 |
| | Category7 ⁴⁾ 임직원 통근 | 19,383 | 35,938 | 29,162 |
| 소계 ⁵⁾ | | 38,556 | 72,462 | 69,702 |
| 다운스트림 | Category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 23,539 | 31,213 | 26,895 |
| | Category12 판매된 제품의 폐기 | 98 | 195 | 184 |
| | Category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 617,196 | 590,011 | 248,588 |
| 소계 ⁵⁾ | | 640,832 | 621,419 | 275,667 |
| 합계 | | 679,389 | 693,881 | 345,369 |

* KB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 기준(국내 및 해외 사업장, 계열사별 중속기업 포함), 2024년부터 최신 발표된 배출계수 적용

- 1) Scope 3 15개 카테고리 중 금융회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선정
- 2) 2024년 데이터 재산정
- 3) 2024년부터 데이터 신규 집계
- 4) 2024년부터 통근거리 집계방식 고도화, 2024년 Category 7 데이터 재산정
- 5) 반올림에 의한 합산 차이 발생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PCAF 자산군별 금융배출량(Scope 3)

① 2024년

| 자산유형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 | 집약도 (tCO ₂ e/억원) | SBTi 커버리지 | 데이터 스코어 ²⁾ | |
|------------------------|-------------------------|---------------------|-------------------------------|--------------------------------|-----------|-------------------------------|-----|
| | 금액(조 원) | 산출 비율 ¹⁾ | | | | | |
| 기업금융 | 상장주식 및 회사채 | 54.3 | 76.4% | 9,743,458 | 18.0 | 상장주식: 상장 83.7%, 회사채: 상장 78.1% | 3.6 |
| | 비상장주식 및 기업대출 | 95.9 | 78.1% | 26,972,842 | 28.1 | 기업대출: 78.5% | 3.8 |
| 기업금융 외 | 발전PF | 1.8 | 100.0% | 2,252,448 | 126.8 | 100.0% | 1.2 |
| | 상업용 부동산 | 7.8 | 100.0% | 80,839 | 1.0 | 100.0% | 2.9 |
| | 주거용 부동산 | 27.6 | 100.0% | 125,083 | 0.5 | 개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 목적 대출 전체 | 4.0 |
| | 차량 대출 | 4.9 | 98.3% | 292,196 | 6.0 | 차량 대출(리스, 렌탈 제외) 전체 | 4.0 |
| | 국채(순 배출량) ³⁾ | 45.7 | 100.0% | 9,389,421 | 20.5 | 100% | 1.0 |
| | 국채(총 배출량) ³⁾ | | | 9,995,618 | 21.9 | | |
| 합계⁴⁾ | 237.9 | 84.5% | 49,462,484 | 20.8 | | 3.2 | |

② 2025년

| 자산유형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 | 집약도 (tCO ₂ e/억원) | SBTi 커버리지 | 데이터 스코어 ²⁾ | |
|------------------------|-------------------------|---------------------|-------------------------------|--------------------------------|-----------|-------------------------------|-----|
| | 금액(조 원) | 산출 비율 ¹⁾ | | | | | |
| 기업금융 | 상장주식 및 회사채 | 55.0 | 77.6% | 9,630,565 | 17.5 | 상장주식: 상장 99.1%, 회사채: 상장 79.3% | 3.6 |
| | 비상장주식 및 기업대출 | 101.5 | 77.2% | 27,924,087 | 27.5 | 기업대출: 77.3% | 3.8 |
| 기업금융 외 | 발전PF | 1.9 | 100.0% | 2,776,424 | 146.4 | 100.0% | 1.1 |
| | 상업용 부동산 | 9.1 | 99.7% | 124,353 | 1.4 | 100.0% | 2.9 |
| | 주거용 부동산 | 34.1 | 100.0% | 138,720 | 0.4 | 개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 목적 대출 전체 | 4.0 |
| | 차량 대출 | 5.1 | 99.8% | 283,895 | 5.6 | 차량 대출(리스, 렌탈 제외) 전체 | 4.0 |
| | 국채(순 배출량) ³⁾ | 49.6 | 100.0% | 10,122,751 | 20.4 | 100% | 1.0 |
| | 국채(총 배출량) ³⁾ | | | 10,688,220 | 21.6 | | |
| 합계⁴⁾ | 256.2 | 84.8% | 51,566,264 | 20.1 | | 3.2 | |

1) 기후 관련 총 익스포저 대비 금융배출량 산출대상 익스포저 비율임

2) PCAF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신뢰도가 높음

3) PCAF 기준에 따라 순 배출량 및 총 배출량 산출 (일부 해외 국가의 순 배출량 미공시로 합계에 포함된 국채의 금융배출량은 총 배출량 기준)

4) 익스포저 및 배출량 합계의 경우 반올림에 의한 차이 발생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자산군별 금융배출량(Scope 3)

① 2024년

| 금융 활동 | 자산 유형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 금액(억 원) | 산출 비율 ¹⁾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상업은행 | 대출 | 1,211,024 | 85.0% | 7,597,355 | 2,327,051 | 16,021,417 | 25,945,822 | |
| | 지분투자 | 9,251 | 72.1% | 5,405 | 4,496 | 17,012 | 26,913 | |
| | 채권 | 576,795 | 82.1% | 7,852,306 | 377,727 | 1,610,625 | 9,840,659 | |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9,573 | 100.0% | 1,263,494 | 29,396 | 0 | 1,292,890 | |
| | 미인출 대출약정 | 미인출금액 | 211,290 | 87.5% | 6,133,895 | 919,620 | 6,908,656 | 13,962,171 |
| | | 인출금액 | 157,195 | 85.7% | 1,115,031 | 195,261 | 1,301,217 | 2,611,508 |
| | | 전체 약정금액 | 368,485 | 88.8% | 5,020,486 | 724,486 | 5,609,464 | 11,354,435 |
| | 보험 | 대출 | 31,628 | 72.6% | 158,485 | 8,563 | 54,916 | 221,964 |
| 지분투자 | | 8,206 | 96.8% | 9,647 | 1,697 | 3,597 | 14,942 | |
| 채권 | | 359,033 | 90.1% | 7,324,648 | 150,989 | 808,968 | 8,284,604 |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 7,992 | 100.0% | 930,018 | 942 | 0 | 930,960 | |
| 미인출 대출약정 | | 미인출금액 | 2,341 | 60.6% | 453,318 | 11,395 | 71,537 | 536,250 |
| | | 인출금액 | 25,393 | 63.9% | 442,748 | 10,285 | 64,726 | 517,758 |
| | | 전체 약정금액 | 28,066 | 38.4% | 9,946 | 847 | 5,370 | 16,163 |
| 자산관리 | | 고유자산 | 487 | 100.0% | 105 | 87 | 866 | 1,058 |
| | AUM | 80,202 | 76.5% | 1,602,325 | 40,603 | 145,587 | 1,788,515 | |
| | 그외 | 165,180 | 79.3% | 1,686,122 | 172,935 | 1,043,614 | 2,902,671 | |
| 합계²⁾ | | 2,592,799 | 84.7% | 31,858,017 | 3,799,216 | 25,175,849 | 60,833,081 | |

1) 자산유형별 총 익스포저 대비 금융배출량 산출대상 익스포저 비율임.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본정보(재무 정보 및 환경 정보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2) 합계에 포함된 익스포저 및 금융배출량은 미인출 대출약정의 경우 미인출 금액 기준이며, 자산관리의 경우 AUM(고객자산)은 제외하고 고유자산만 포함

합계에서 미인출 대출약정의 미인출금액 기준 익스포저 금액 및 금융배출량을 각각 차감하면 PCAF 자산군별 산출대상 익스포저 및 금융배출량 합계와 일치함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자산군별 금융배출량(Scope 3)

② 2025년

| 금융 활동 | 자산 유형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 | | | | |
|------------------------|-------------|------------------|---------------------|----------------------------|------------------|-------------------|-------------------|------------|
| | | 금액(억 원) | 산출 비율 ¹⁾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상업은행 | 대출 | 1,334,833 | 85.3% | 6,946,522 | 2,661,419 | 17,152,948 | 26,760,889 | |
| | 지분투자 | 9,396 | 74.8% | 5,264 | 6,117 | 19,942 | 31,323 | |
| | 채권 | 596,832 | 84.2% | 8,255,693 | 354,509 | 1,374,962 | 9,985,164 | |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10,558 | 100.0% | 1,458,414 | 123,342 | 0 | 1,581,756 | |
| | 미인출 대출약정 | 미인출금액 | 205,368 | 86.1% | 4,092,651 | 664,387 | 4,662,740 | 9,419,778 |
| | | 인출금액 | 144,472 | 79.6% | 2,061,476 | 318,935 | 1,470,738 | 3,851,150 |
| | | 전체 약정금액 | 349,840 | 83.3% | 6,153,502 | 983,112 | 6,130,308 | 13,266,922 |
| 보험 | 대출 | 51,918 | 71.0% | 408,001 | 8,634 | 81,909 | 498,544 | |
| | 지분투자 | 778 | 76.2% | 483 | 16 | 361 | 860 | |
| | 채권 | 370,167 | 90.5% | 7,727,211 | 148,030 | 803,742 | 8,678,983 | |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8,409 | 100.0% | 1,191,092 | 3,576 | 0 | 1,194,668 | |
| | 미인출 대출약정 | 미인출금액 | 2,663 | 23.3% | 9,666 | 868 | 5,318 | 15,852 |
| | | 인출금액 | 33,896 | 59.6% | 658,768 | 10,631 | 94,984 | 764,384 |
| | | 전체 약정금액 | 36,680 | 53.5% | 668,904 | 11,647 | 101,176 | 781,727 |
| 자산관리 | 고유자산 | 623 | 100.0% | 31 | 58 | 1,125 | 1,214 | |
| | AUM | 94,265 | 76.0% | 1,783,471 | 107,579 | 308,852 | 2,199,902 | |
| | 그외 | 178,703 | 77.2% | 1,594,712 | 158,311 | 1,079,840 | 2,832,863 | |
| 합계²⁾ | | 2,770,250 | 84.7% | 31,689,740 | 4,129,267 | 25,182,887 | 61,001,894 | |

1) 자산유형별 총 익스포저 대비 금융배출량 산출대상 익스포저 비율임.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본정보(재무 정보 및 환경 정보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2) 합계에 포함된 익스포저 및 금융배출량은 미인출 대출약정의 경우 미인출 금액 기준이며, 자산관리의 경우 AUM(고객자산)은 제외하고 고유자산만 포함

합계에서 미인출 대출약정의 미인출금액 기준 익스포저 금액 및 금융배출량을 각각 차감하면 PCAF 자산군별 산출대상 익스포저 및 금융배출량 합계와 일치함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상업은행

① 2024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대출 | 에너지 | 19,120 | 2.2% | 563,645 | 127,823 | 1,140,354 | 1,831,822 |
| | 소재 | 148,021 | 17.1% | 2,231,296 | 979,738 | 4,462,358 | 7,673,392 |
| | 일반 | 176,453 | 20.4% | 2,301,945 | 269,612 | 3,185,947 | 5,757,504 |
| | 임의 소비자재 | 167,545 | 19.4% | 384,622 | 398,335 | 3,117,957 | 3,900,914 |
| | 필수 소비자재 | 61,837 | 7.2% | 222,770 | 126,377 | 1,697,133 | 2,046,281 |
| | 헬스케어 | 29,768 | 3.4% | 78,375 | 73,413 | 568,761 | 720,549 |
| | 금융 | 95,290 | 11.0% | 252,900 | 76,809 | 407,415 | 737,124 |
| | 정보 기술 | 63,124 | 7.3% | 182,762 | 203,956 | 895,453 | 1,282,171 |
| | 통신 서비스 | 15,656 | 1.8% | 13,742 | 16,422 | 110,830 | 140,994 |
| | 유틸리티 | 5,031 | 0.6% | 1,094,966 | 2,357 | 121,870 | 1,219,193 |
| | 부동산 | 82,193 | 9.5% | 33,970 | 36,864 | 156,052 | 226,886 |
| 지분투자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9 | 0.1% | 78 | 116 | 528 | 722 |
| | 일반 | 549 | 5.9% | 3,275 | 683 | 5,104 | 9,062 |
| | 임의 소비자재 | 2,705 | 29.2% | 1,783 | 3,475 | 9,073 | 14,331 |
| | 필수 소비자재 | 2 | 0.0% | 9 | 0 | 24 | 33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5,767 | 62.3% | 8 | 66 | 460 | 534 |
| | 정보 기술 | 174 | 1.9% | 127 | 120 | 1,468 | 1,714 |
| | 통신 서비스 | 41 | 0.4% | 124 | 36 | 354 | 513 |
| | 유틸리티 | 0 | 0.0% | 0 | 0 | 0 | 0 |
| | 부동산 | 5 | 0.1% | 1 | 1 | 3 | 4 |
| 채권 | 에너지 | 6,718 | 1.7% | 237,291 | 46,051 | 472,734 | 756,075 |
| | 소재 | 12,196 | 3.2% | 516,150 | 99,763 | 343,662 | 959,575 |
| | 일반 | 109,262 | 28.4% | 2,016,919 | 90,011 | 338,674 | 2,445,604 |
| | 임의 소비자재 | 7,781 | 2.0% | 4,276 | 13,718 | 120,671 | 138,665 |
| | 필수 소비자재 | 5,972 | 1.6% | 32,285 | 40,161 | 157,361 | 229,807 |
| | 헬스케어 | 393 | 0.1% | 36 | 59 | 204 | 298 |
| | 금융 | 225,775 | 58.6% | 129,297 | 21,339 | 84,947 | 235,583 |
| | 정보 기술 | 3,923 | 1.0% | 28,564 | 14,875 | 33,864 | 77,303 |
| | 통신 서비스 | 6,171 | 1.6% | 834 | 40,994 | 16,711 | 58,539 |
| | 유틸리티 | 4,362 | 1.1% | 618,361 | 266 | 33,667 | 652,293 |
| | 부동산 | 2,517 | 0.7% | 1,448 | 10,491 | 8,131 | 20,071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상업은행

① 2024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PF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0 | 0.0% | 0 | 0 | 0 | 0 |
| | 일반 | 0 | 0.0% | 0 | 0 | 0 | 0 |
| | 임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0 | 0.0% | 0 | 0 | 0 | 0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9,573 | 100.0% | 1,263,494 | 29,396 | 0 | 1,292,890 |
| | 부동산 | 0 | 0.0% | 0 | 0 | 0 | 0 |

| 자산 유형 | 산업분류 (GICS) | 익스포저 | | | | | | 금융배출량 (미인출금액 기준) (tCO ₂ eq) | | | |
|-------------|-------------|----------|-------|---------|-------|------------|-------|--|---------|-----------|-----------|
| | | 미인출금액 기준 | | 인출금액 기준 | | 전체 약정금액 기준 |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 | | |
| 미인출 대출약정 | 에너지 | 19,377 | 9.4% | 4,483 | 7.3% | 23,860 | 8.9% | 833,797 | 145,162 | 1,809,749 | 2,788,709 |
| | 소재 | 25,149 | 12.2% | 10,189 | 16.7% | 35,338 | 13.2% | 516,120 | 234,004 | 751,127 | 1,501,252 |
| | 일반 | 34,106 | 16.6% | 13,183 | 21.6% | 47,289 | 17.7% | 281,593 | 65,958 | 951,471 | 1,299,022 |
| | 임의 소비재 | 24,567 | 11.9% | 10,793 | 17.7% | 35,360 | 13.3% | 54,276 | 56,221 | 589,775 | 700,271 |
| | 필수 소비재 | 14,679 | 7.1% | 4,837 | 7.9% | 19,516 | 7.3% | 69,374 | 56,926 | 503,436 | 629,736 |
| | 헬스케어 | 5,862 | 2.9% | 2,087 | 3.4% | 7,949 | 3.0% | 29,921 | 45,951 | 329,309 | 405,182 |
| | 금융 | 52,854 | 25.7% | 5,547 | 9.1% | 58,402 | 21.9% | 70,720 | 42,901 | 136,126 | 249,747 |
| | 정보 기술 | 9,178 | 4.5% | 3,263 | 5.3% | 12,441 | 4.7% | 47,476 | 16,929 | 145,183 | 209,588 |
| | 통신 서비스 | 10,683 | 5.2% | 414 | 0.7% | 11,097 | 4.2% | 7,275 | 48,580 | 55,992 | 111,848 |
| | 유틸리티 | 6,127 | 3.0% | 5,224 | 8.6% | 11,351 | 4.3% | 3,094,979 | 2,441 | 269,715 | 3,367,135 |
| | 부동산 | 3,089 | 1.5% | 1,045 | 1.7% | 4,134 | 1.5% | 3,575 | 6,771 | 32,838 | 43,184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상업은행

② 2025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대출 | 에너지 | 16,452 | 1.8% | 441,591 | 83,567 | 611,419 | 1,136,577 |
| | 소재 | 161,451 | 17.6% | 2,768,570 | 1,246,743 | 5,213,864 | 9,229,177 |
| | 일반 | 171,669 | 18.7% | 887,662 | 249,105 | 3,279,578 | 4,416,346 |
| | 임의 소비자재 | 172,099 | 18.8% | 496,969 | 423,537 | 3,133,038 | 4,053,544 |
| | 필수 소비자재 | 77,142 | 8.4% | 258,525 | 153,778 | 2,029,709 | 2,442,012 |
| | 헬스케어 | 34,870 | 3.8% | 90,930 | 102,569 | 794,901 | 988,400 |
| | 금융 | 103,567 | 11.3% | 265,048 | 88,665 | 468,556 | 822,269 |
| | 정보 기술 | 66,510 | 7.3% | 151,513 | 235,298 | 967,311 | 1,354,122 |
| | 통신 서비스 | 19,075 | 2.1% | 22,673 | 21,498 | 146,358 | 190,529 |
| | 유틸리티 | 5,542 | 0.6% | 1,231,607 | 2,606 | 144,849 | 1,379,062 |
| | 부동산 | 88,672 | 9.7% | 37,342 | 37,589 | 168,521 | 243,451 |
| 지분투자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11 | 0.1% | 94 | 139 | 609 | 843 |
| | 일반 | 232 | 2.5% | 2,482 | 203 | 3,390 | 6,075 |
| | 임의 소비자재 | 2,742 | 29.2% | 2,388 | 5,074 | 11,304 | 18,765 |
| | 필수 소비자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6,004 | 63.9% | 10 | 269 | 1,265 | 1,545 |
| | 정보 기술 | 383 | 4.1% | 250 | 416 | 3,239 | 3,905 |
| | 통신 서비스 | 24 | 0.3% | 41 | 15 | 135 | 191 |
| | 유틸리티 | 0 | 0.0% | 0 | 0 | 0 | 0 |
| | 부동산 | 0 | 0.0% | 0 | 0 | 0 | 0 |
| 채권 | 에너지 | 4,115 | 1.1% | 149,942 | 31,907 | 287,536 | 469,386 |
| | 소재 | 9,134 | 2.4% | 342,354 | 67,512 | 236,954 | 646,819 |
| | 일반 | 117,454 | 31.1% | 2,398,878 | 122,826 | 408,711 | 2,930,416 |
| | 임의 소비자재 | 6,698 | 1.8% | 4,419 | 17,226 | 143,022 | 164,666 |
| | 필수 소비자재 | 4,532 | 1.2% | 31,203 | 34,420 | 148,648 | 214,271 |
| | 헬스케어 | 894 | 0.2% | 76 | 180 | 394 | 651 |
| | 금융 | 223,100 | 59.0% | 120,026 | 22,296 | 96,809 | 239,131 |
| | 정보 기술 | 2,003 | 0.5% | 7,784 | 3,978 | 18,012 | 29,774 |
| | 통신 서비스 | 5,866 | 1.6% | 525 | 42,395 | 16,829 | 59,749 |
| | 유틸리티 | 2,027 | 0.5% | 341,542 | 43 | 12,226 | 353,811 |
| | 부동산 | 2,000 | 0.5% | 1,347 | 11,724 | 5,819 | 18,889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상업은행

② 2025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PF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0 | 0.0% | 0 | 0 | 0 | 0 |
| | 일반 | 0 | 0.0% | 0 | 0 | 0 | 0 |
| | 임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0 | 0.0% | 0 | 0 | 0 | 0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10,558 | 100.0% | 1,458,414 | 123,342 | 0 | 1,581,756 |
| | 부동산 | 0 | 0.0% | 0 | 0 | 0 | 0 |

| 자산 유형 | 산업분류 (GICS) | 익스포저 | | | | | | 금융배출량 (미인출금액 기준) (tCO ₂ eq) | | | |
|-------------|-------------|----------|-------|---------|-------|------------|-------|--|---------|-----------|-----------|
| | | 미인출금액 기준 | | 인출금액 기준 | | 전체 약정금액 기준 |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 | | |
| 미인출 대출약정 | 에너지 | 13,124 | 6.5% | 7,032 | 11.5% | 20,156 | 7.6% | 509,464 | 98,401 | 1,125,118 | 1,732,982 |
| | 소재 | 19,670 | 9.7% | 10,699 | 17.5% | 30,369 | 11.5% | 436,568 | 189,557 | 647,575 | 1,273,700 |
| | 일반 | 30,941 | 15.3% | 12,421 | 20.3% | 43,362 | 16.4% | 238,288 | 63,720 | 916,501 | 1,218,510 |
| | 임의 소비재 | 22,063 | 10.9% | 7,758 | 12.7% | 29,821 | 11.3% | 48,416 | 60,492 | 528,705 | 637,613 |
| | 필수 소비재 | 11,400 | 5.6% | 4,636 | 7.6% | 16,037 | 6.1% | 51,182 | 47,555 | 468,499 | 567,237 |
| | 헬스케어 | 5,293 | 2.6% | 2,727 | 4.5% | 8,020 | 3.0% | 20,689 | 29,320 | 209,783 | 259,792 |
| | 금융 | 52,130 | 25.7% | 4,988 | 8.2% | 57,118 | 21.6% | 72,866 | 30,420 | 164,427 | 267,714 |
| | 정보 기술 | 27,621 | 13.6% | 2,390 | 3.9% | 30,012 | 11.4% | 65,454 | 82,187 | 262,244 | 409,885 |
| | 통신 서비스 | 12,074 | 6.0% | 415 | 0.7% | 12,488 | 4.7% | 6,743 | 50,731 | 57,338 | 114,813 |
| | 유틸리티 | 5,656 | 2.8% | 7,079 | 11.6% | 12,735 | 4.8% | 2,632,867 | 938 | 233,571 | 2,867,377 |
| | 부동산 | 2,755 | 1.4% | 995 | 1.6% | 3,750 | 1.4% | 3,380 | 9,121 | 23,557 | 36,058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보험

① 2024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대출 | 에너지 | 194 | 1.1% | 40 | 0 | 110 | 150 |
| | 소재 | 935 | 5.5% | 1,623 | 2,010 | 5,719 | 9,352 |
| | 일반 | 7,776 | 45.4% | 3,929 | 1,835 | 19,179 | 24,943 |
| | 임의 소비자재 | 1,110 | 6.5% | 142 | 75 | 849 | 1,065 |
| | 필수 소비자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645 | 3.8% | 147 | 89 | 705 | 941 |
| | 금융 | 1,340 | 7.8% | 1,716 | 187 | 1,452 | 3,355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84 | 0.5% | 20 | 43 | 247 | 311 |
| | 유틸리티 | 388 | 2.3% | 131,107 | 33 | 5,174 | 136,314 |
| | 부동산 | 4,663 | 27.2% | 5,967 | 4,292 | 21,481 | 31,740 |
| 지분투자 | 에너지 | 6 | 0.5% | 45 | 8 | 49 | 102 |
| | 소재 | 47 | 4.2% | 117 | 210 | 305 | 631 |
| | 일반 | 127 | 11.3% | 621 | 63 | 450 | 1,134 |
| | 임의 소비자재 | 39 | 3.5% | 15 | 48 | 813 | 876 |
| | 필수 소비자재 | 32 | 2.9% | 32 | 26 | 218 | 276 |
| | 헬스케어 | 36 | 3.2% | 5 | 11 | 17 | 32 |
| | 금융 | 565 | 50.1% | 6,285 | 961 | 1,279 | 8,524 |
| | 정보 기술 | 106 | 9.4% | 109 | 308 | 369 | 786 |
| | 통신 서비스 | 34 | 3.0% | 5 | 56 | 47 | 107 |
| | 유틸리티 | 0 | 0.0% | 0 | 0 | 0 | 0 |
| | 부동산 | 136 | 12.0% | 17 | 6 | 53 | 76 |
| 채권 | 에너지 | 4,865 | 5.1% | 207,844 | 28,899 | 301,286 | 538,030 |
| | 소재 | 6,288 | 6.6% | 114,323 | 51,330 | 124,213 | 289,865 |
| | 일반 | 34,776 | 36.8% | 183,690 | 22,988 | 169,267 | 375,945 |
| | 임의 소비자재 | 3,211 | 3.4% | 2,647 | 4,619 | 71,570 | 78,835 |
| | 필수 소비자재 | 1,692 | 1.8% | 9,249 | 9,677 | 41,025 | 59,950 |
| | 헬스케어 | 304 | 0.3% | 227 | 535 | 786 | 1,548 |
| | 금융 | 30,530 | 32.3% | 11,508 | 9,119 | 36,316 | 56,942 |
| | 정보 기술 | 802 | 0.8% | 5,534 | 2,377 | 6,010 | 13,921 |
| | 통신 서비스 | 3,154 | 3.3% | 411 | 18,876 | 8,547 | 27,834 |
| | 유틸리티 | 7,107 | 7.5% | 1,075,308 | 72 | 47,328 | 1,122,708 |
| | 부동산 | 1,830 | 1.9% | 376 | 2,498 | 2,621 | 5,495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보험

① 2024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PF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0 | 0.0% | 0 | 0 | 0 | 0 |
| | 일반 | 0 | 0.0% | 0 | 0 | 0 | 0 |
| | 임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0 | 0.0% | 0 | 0 | 0 | 0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7,992 | 100.0% | 930,018 | 942 | 0 | 930,960 |
| | 부동산 | 0 | 0.0% | 0 | 0 | 0 | 0 |

| 자산 유형 | 산업분류 (GICS) | 익스포저 | | | | | | 금융배출량 (미인출금액 기준) (tCO ₂ eq) | | | |
|-------------|-------------|----------|-------|---------|-------|------------|-------|--|---------|---------|-------|
| | | 미인출금액 기준 | | 인출금액 기준 | | 전체 약정금액 기준 |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 | | |
| 미인출 대출약정 | 에너지 | 56 | 2.4% | 194 | 0.9% | 250 | 1.0% | 12 | 0 | 32 | 43 |
| | 소재 | 0 | 0.0% | 995 | 4.6% | 995 | 4.1% | 0 | 0 | 0 | 0 |
| | 일반 | 1,541 | 66.4% | 10,933 | 50.8% | 12,493 | 51.7% | 502 | 789 | 4,644 | 5,935 |
| | 임의 소비재 | 15 | 0.6% | 1,269 | 5.9% | 1,284 | 5.3% | 3 | 2 | 9 | 14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0%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355 | 15.3% | 645 | 3.0% | 1,000 | 4.1% | 81 | 49 | 388 | 518 |
| | 금융 | 341 | 14.7% | 1,359 | 6.3% | 1,700 | 7.0% | 3 | 5 | 63 | 71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0%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125 | 0.6% | 125 | 0.5%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11 | 0.5% | 435 | 2.0% | 460 | 1.9% | 8,369 | 2 | 232 | 8,604 |
| | 부동산 | 2 | 0.1% | 5,555 | 25.8% | 5,856 | 24.2% | 1 | 1 | 3 | 5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보험

② 2025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상업은행 | 에너지 | 194 | 0.7% | 41 | 0 | 113 | 154 |
| | 소재 | 1,273 | 4.9% | 2,644 | 3,065 | 13,224 | 18,934 |
| | 일반 | 8,647 | 33.4% | 5,027 | 2,063 | 23,477 | 30,567 |
| | 임의 소비재 | 716 | 2.8% | 151 | 76 | 683 | 91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758 | 2.9% | 103 | 76 | 494 | 673 |
| | 금융 | 5,577 | 21.5% | 278 | 251 | 2,728 | 3,256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486 | 1.9% | 26 | 55 | 277 | 358 |
| | 유틸리티 | 1,443 | 5.6% | 378,942 | 32 | 25,771 | 404,745 |
| | 부동산 | 6,808 | 26.3% | 4,194 | 3,016 | 15,142 | 22,352 |
| 지분투자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0 | 0.0% | 0 | 0 | 0 | 0 |
| | 일반 | 61 | 11.5% | 34 | 4 | 133 | 171 |
| | 임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353 | 67.2% | 2 | 7 | 175 | 184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0 | 0.0% | 0 | 0 | 0 | 0 |
| | 부동산 | 112 | 21.2% | 18 | 5 | 52 | 75 |
| 채권 | 에너지 | 4,373 | 4.6% | 168,965 | 28,225 | 254,560 | 451,750 |
| | 소재 | 6,116 | 6.5% | 102,794 | 48,007 | 125,399 | 276,200 |
| | 일반 | 32,668 | 34.6% | 97,757 | 22,153 | 156,753 | 276,662 |
| | 임의 소비재 | 3,342 | 3.5% | 2,712 | 6,762 | 75,825 | 85,300 |
| | 필수 소비재 | 1,793 | 1.9% | 8,300 | 10,479 | 51,854 | 70,632 |
| | 헬스케어 | 201 | 0.2% | 165 | 401 | 727 | 1,293 |
| | 금융 | 34,273 | 36.3% | 54,896 | 11,916 | 65,097 | 131,909 |
| | 정보 기술 | 701 | 0.7% | 2,797 | 1,563 | 6,116 | 10,476 |
| | 통신 서비스 | 2,625 | 2.8% | 316 | 15,992 | 6,723 | 23,030 |
| | 유틸리티 | 6,756 | 7.1% | 1,477,164 | 141 | 58,516 | 1,535,820 |
| | 부동산 | 1,639 | 1.7% | 325 | 2,392 | 2,172 | 4,889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 활동 및 산업분류(GICS)별 금융배출량(Scope 3) - 보험

② 2025년

| 자산 유형 | 산업분류(GICS) | 익스포저 | | 금융배출량 (tCO ₂ eq) | | | |
|-------|------------|---------|--------|-----------------------------|---------|---------|-----------|
| | | 금액(억 원) | 비중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PF | 에너지 | 0 | 0.0% | 0 | 0 | 0 | 0 |
| | 소재 | 0 | 0.0% | 0 | 0 | 0 | 0 |
| | 일반 | 0 | 0.0% | 0 | 0 | 0 | 0 |
| | 임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0 | 0.0% | 0 | 0 | 0 | 0 |
| | 금융 | 0 | 0.0% | 0 | 0 | 0 | 0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0 | 0.0% | 0 | 0 | 0 | 0 |
| | 유틸리티 | 8,409 | 100.0% | 1,191,092 | 3,576 | 0 | 1,194,668 |
| | 부동산 | 0 | 0.0% | 0 | 0 | 0 | 0 |

| 자산 유형 | 산업분류 (GICS) | 익스포저 | | | | | | 금융배출량 (미인출금액 기준) (tCO ₂ eq) | | | |
|-------------|-------------|----------|-------|---------|-------|------------|-------|--|---------|---------|-------|
| | | 미인출금액 기준 | | 인출금액 기준 | | 전체 약정금액 기준 | | Scope 1 | Scope 2 | Scope 3 | 합계 |
| |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금액(억 원) | 비중 | | | | |
| 미인출 대출약정 | 에너지 | 56 | 2.1% | 194 | 0.6% | 250 | 0.7% | 12 | 0 | 32 | 44 |
| | 소재 | 0 | 0.0% | 1,295 | 4.2% | 1,295 | 3.8% | 0 | 0 | 0 | 0 |
| | 일반 | 1,352 | 50.9% | 12,247 | 39.4% | 13,614 | 40.2% | 448 | 708 | 4,201 | 5,358 |
| | 임의 소비재 | 0 | 0.0% | 894 | 2.9% | 894 | 2.6% | 0 | 0 | 0 | 0 |
| | 필수 소비재 | 0 | 0.0% | 0 | 0.0% | 0 | 0.0% | 0 | 0 | 0 | 0 |
| | 헬스케어 | 242 | 9.1% | 758 | 2.4% | 1,000 | 3.0% | 33 | 24 | 158 | 215 |
| | 금융 | 121 | 4.5% | 5,699 | 18.3% | 5,820 | 17.2% | 2 | 2 | 27 | 31 |
| | 정보 기술 | 0 | 0.0% | 0 | 0.0% | 0 | 0.0% | 0 | 0 | 0 | 0 |
| | 통신 서비스 | 435 | 16.4% | 528 | 1.7% | 963 | 2.8% | 3 | 2 | 19 | 23 |
| | 유틸리티 | 11 | 0.4% | 1,535 | 4.9% | 1,560 | 4.6% | 8,574 | 2 | 238 | 8,814 |
| | 부동산 | 438 | 16.5% | 7,952 | 25.6% | 8,481 | 25.0% | 180 | 130 | 642 | 952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국가별 국채 금융배출량(Scope 3)¹⁾

| 국가 | 2024 | | | | 2025 | | | |
|-----------|-------------|---------------|------------------------------|----------------------------------|-------------|---------------|------------------------------|----------------------------------|
| | 익스포저 | | 배출량 (tCO ₂ eq) | 집약도 (tCO ₂ eq/억 원) | 익스포저 | | 배출량 (tCO ₂ eq) | 집약도 (tCO ₂ eq/억 원) |
| | 금액(조 원) | 비중 | | | 금액(조 원) | 비중 | | |
| 대한민국 | 39.4 | 85.7% | 8,501,199 | 21.6 | 43.3 | 86.9% | 9,107,783 | 21.0 |
| 미국 | 3.8 | 8.2% | 733,961 | 19.5 | 2.5 | 5.0% | 484,667 | 19.5 |
| 중국 | 0.9 | 2.0% | 366,312 | 39.2 | 1.0 | 1.9% | 372,663 | 39.2 |
| 인도네시아 | 0.7 | 1.5% | 187,919 | 27.4 | 1.9 | 3.8% | 520,594 | 27.4 |
| 인도 | 0.3 | 0.7% | 87,470 | 26.0 | 0.2 | 0.3% | 45,143 | 26.0 |
| 호주 | 0.3 | 0.6% | 86,306 | 30.6 | 0.3 | 0.6% | 93,626 | 30.6 |
| 그 외 국가 | 0.6 | 1.3% | 100,836 | 17.5 | 0.7 | 1.4% | 114,333 | 15.9 |
| 합계 | 46.0 | 100.0% | 10,064,002 | | 49.8 | 100.0% | 10,738,809 | |

1) AUM 자산 포함 및 총 배출량 기준으로 집계

계열사별 금융배출량(Scope 3)¹⁾

| 계열사 | 2024 | | | | 2025 | | | | |
|-----------|--------------|---------------|------------------------------|----------------------------------|--------------|---------------|------------------------------|----------------------------------|------|
| | 익스포저 | | 배출량 (tCO ₂ eq) | 집약도 (tCO ₂ eq/억 원) | 익스포저 | | 배출량 (tCO ₂ eq) | 집약도 (tCO ₂ eq/억 원) | |
| | 금액(조 원) | 비중 | | | 금액(조 원) | 비중 | | | |
| KB국민은행 | 180.5 | 73.4% | 37,082,752 | 20.5 | 195 | 73.4% | 38,337,379 | 19.7 | |
| KB증권 | 7.9 | 3.2% | 1,894,842 | 24.0 | 9.1 | 3.4% | 1,803,849 | 19.8 | |
| KB손해보험 | 20.6 | 8.4% | 4,904,416 | 23.8 | 22.6 | 8.5% | 5,895,246 | 26.1 | |
| KB국민카드 | 2.9 | 1.2% | 140,078 | 4.9 | 3.4 | 1.3% | 135,899 | 4.0 | |
| KB라이프생명 | 20.1 | 8.2% | 4,548,054 | 22.7 | 20.5 | 7.7% | 4,477,808 | 21.8 | |
| KB자산운용 | 고유자산 | 0.05 | 0.02% | 1,058 | 2.2 | 0.1 | 0.02% | 1,214 | 2.0 |
| | AUM | 8.0 | 3.3% | 1,788,515 | 22.3 | 9.4 | 3.6% | 2,197,082 | 23.3 |
| KB캐피탈 | 5.5 | 2.2% | 849,639 | 15.4 | 5.1 | 1.9% | 875,819 | 17.1 | |
| KB부동산신탁 | 0.03 | 0.01% | 184 | 0.6 | 0.03 | 0.01% | 175 | 0.7 | |
| KB저축은행 | 0.2 | 0.1% | 23,532 | 11.8 | 0.2 | 0.07% | 21,754 | 11.8 | |
| KB인베스트먼트 | 0.2 | 0.1% | 17,928 | 9.1 | 0.2 | 0.08% | 17,119 | 7.9 | |
| 합계 | 246.0 | 100.0% | 51,250,998 | | 265.6 | 100.0% | 53,763,344 | | |

1) KB데이터시스템은 금융배출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출대상에서 제외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닌 자산가치의 '재평가 요소'로 정의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회복력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자본 재배치를 실행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전환 위험

KB금융그룹은 탄소가격 상승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전환 위험이 기업금융 대출채권의 건전성과 관련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탄소집약도가 높은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 업종을 전환 위험이 집중된 산업 부문으로 식별되었으며, 신규 PF 및 채권 인수시 해당 업종의 대한 노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금융 포트폴리오의 부도율(PD)은 NGFS 탄소중립 시나리오 적용시 장기(10년) 시점에서 기준시점 대비 12.5%p 증가하여 이자수익 및 대손충당금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리적 위험

태풍, 산출,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에 직접 노출된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과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고정자산의 재무적 취약성을 RCP 시나리오에 기반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과 부도시 손실률(LGD)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지역이 모든 재해유형에서 담보가치 하락률과 LGD 변화율이 가장 높은 취약 지역으로 식별되었으며, 충북과 강원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의 담보가치 하락률은 RCP8.5 시나리오 적용시 장기(10년) 시점에서 19.8% 수준으로 나타나 대손충당금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KB금융그룹은 저탄소 전환 환경 속에서 친환경 금융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여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녹색대출, 친환경 차량 대출, 재생에너지 인프라 펀드 및 ESG 특화 보험과 카드 상품 등 기후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중장기 ESG 금융상품 목표인 'KB Green Wave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ESG 금융상품 규모 50조 원 달성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기준 누적 실적은 36.9조 원으로 중장기적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안정적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한 자본배치

KB금융그룹은 SBTi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금융 확대를 위해 재무자원을 전략적으로 할당 및 조달하고 있습니다.

| | |
|--------|---|
| 자본적 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관리시스템' 및 'ESG정보공시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공시 신뢰성 확보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및 IT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안정화와 재무 안정성 확보에 기여 |
|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탄소 섹터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확대 ·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및 친환경 업종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 피투자기업의 신용위험 선제적 관리, 장기적인 자산가치 복원력 극대화 |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ESG 채권 발행 체계 구축 ·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등 ESG 채권 발행규모 확대: 친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으로 할당 - 2025년 말 기준 누적 19.7조 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내부 탄소가격

KB금융그룹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부 탄소가격을 적용합니다. NGFS 5차 시나리오의 GCAM 6.0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별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경로를 준용하여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량에 가상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그림자 가격을 채택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2010년 기준 실질 달러 가격에서 2025년까지의 물가상승분과 2025년 연간 평균 환율을 반영하여 명목 원화 기준의 내부 탄소가격 범위를 수립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당사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명목 내부 탄소가격의 범위는 최소 28,501원/tCO₂에서 시작하여 최대 3,057,076원/tCO₂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그룹은 내부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배출량에 재무적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에 추가로 발생할 탄소비용을 추정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활용합니다. 내부 탄소가격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및 대출 우선순위와 탄소배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KB금융그룹은 내부 탄소가격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 탄소가격 개요

| | |
|------------------------------|---|
| 내부 탄소가격 도입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수행 · 저탄소 관련 기회 파악 및 활용 · 의사결정 과정 내 기후 관련 이슈 고려 · 리스크 평가에서 기후 관련 이슈 고려 |
| 내부 탄소가격 유형 | · 그림자 가격 |
| 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8,501원(20.04 US\$2025/tCO₂) · 최대: 3,057,076원(2,149.51 US\$2025/tCO₂) * 2010년 실질 달러 가격(최소 14.94 US\$2010/tCO₂ 최대 1,602.56 US\$2010/tCO₂)에서 물가상승분(1.3413배) 반영한 2025년 기준 명목 달러 가격 산출, 환율은 2025년 기간 평균 USD 매매기준율(1,422.22원) 적용 |
| 탄소가격 결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잠재적 비용에 대한 선제적 관리 · NGFS 시나리오상 국가별 탄소가격 |
| 배출량 집계 범위 | · Scope 1, 2, 3 |
| 내부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Operations) · 기회 및 리스크 관리(Risk & Opportunity)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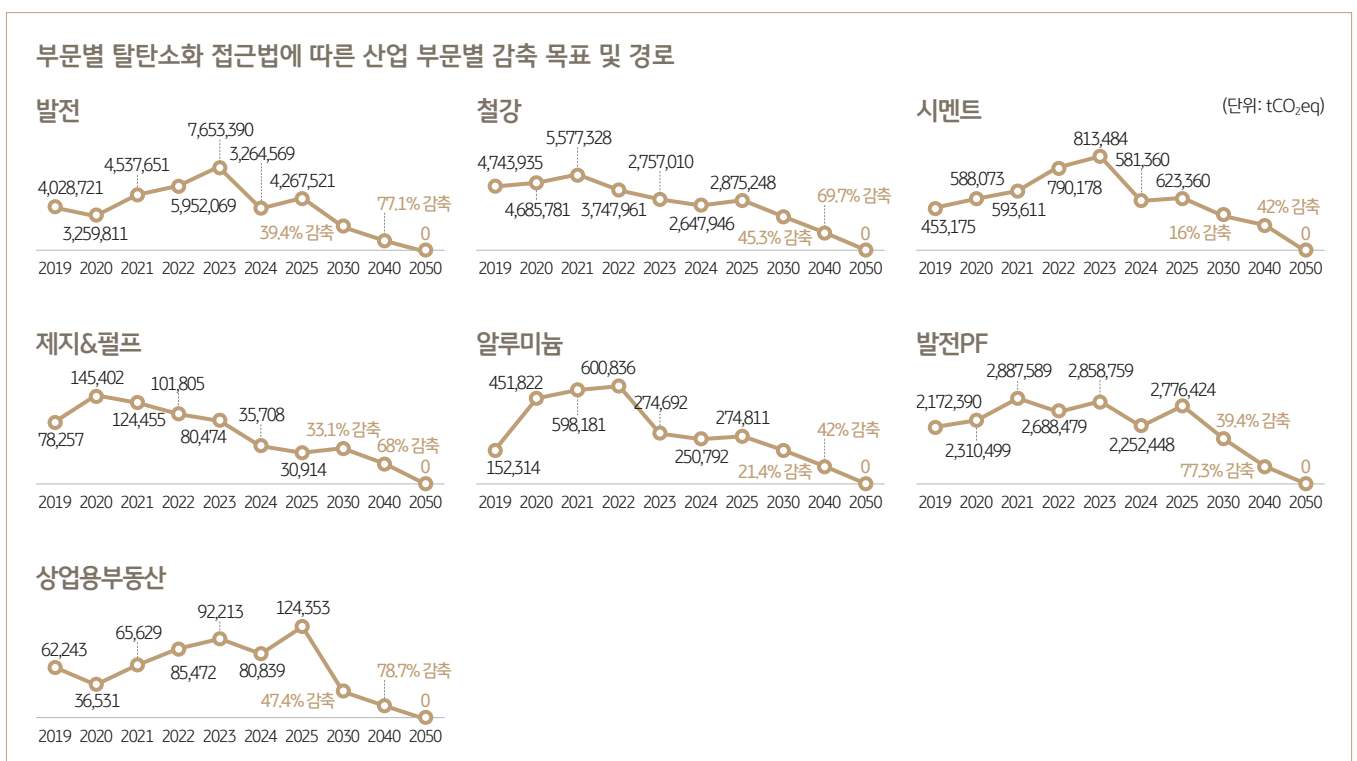
기후 관련 목표 설정

KB금융그룹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탄소중립 전략인 'KB Net Zero S.T.A.R.' 전략을 바탕으로 SBTi 방법론에 기반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의 1.5°C 경로를 준수하며, 절대량 감축 방식을 적용하여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과 금융배출량(Scope 3)을 구분하여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구분 |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 금융배출량(Scope 3) |
|----------------|---|--|
| 기준연도 및 기준점 | 2020년: 139,888 tCO ₂ eq | 2019년: 26,761,188 tCO ₂ eq |
| 목표기간 | 2040년 (중간 목표기간: 2030년) | 2050년 (중간 목표기간: 2030년, 2040년) |
| 목표범위 | 지주 및 전 계열사 사업장 | 지주 및 전 계열사 발전, 철강 등 산업 부문별 대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
| 목표유형 | 절대량 감축 목표 / 총 배출량 기준 | 절대량 감축 및 산업 부문(섹터)별 감축 목표 / 총 배출량 기준 |
| 감축 목표 | 2030년까지 42% 감축, 204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 2030년까지 33.3%, 2040년까지 61%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
| 목표 설정 접근법 | 절대량 감축 접근법(ACA,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 1.5°C 시나리오 적용 |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 온도 등급 방법론(Temperature Ratings Methodology) ¹⁾ |
| 온실가스 유형, 측정 단위 | CO ₂ , CH ₄ , N ₂ O / 이산화탄소환산톤 tCO ₂ eq | |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은 각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이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탄소집약도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SBTi 방법론 중 유일하게 산업 부문(섹터)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어 금융 부문에 가장 적합합니다. KB금융그룹은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펄프, 발전PF, 상업용 부동산 등 산업 부문별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집약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대비 2030년 33.3% 감축, 2040년 61%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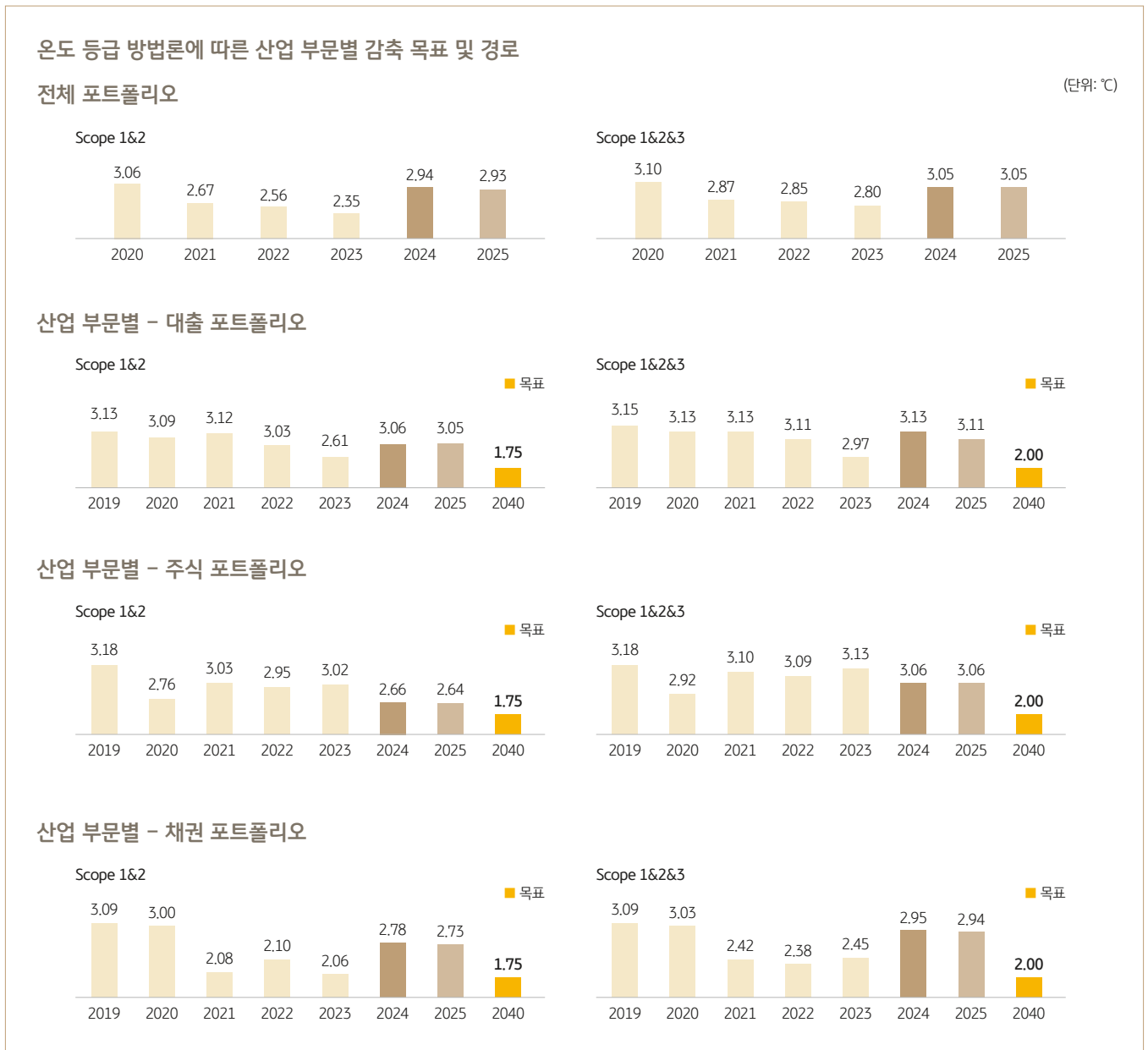
지표 및 목표

온도 등급 방법론

KB금융그룹은 기업금융 내 섹터를 대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로 분류하고, 각 포트폴리오별 온도 등급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각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2040년까지 Scope 1&2는 1.75°C, Scope 1&2&3는 2.0°C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도 등급 방법론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를 장기적인 온도 목표와 연결하여 보다 직관적인 지표인 온도 등급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방법론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한 기업이 많을수록, 그리고 감축 목표를 수립한 기업이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온도 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 활동을 강화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그룹은 각 포트폴리오의 온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더욱 많은 거래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관여(Engagement)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목표 설정 및 검토에 대한 접근법

목표 및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제3자 검증

KB금융그룹은 2021년 10월 SBT에서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탄소 감축 목표(Near-term)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감축 목표는 5년 단위로 갱신되며, KB금융그룹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글로벌 기후공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6년 중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승인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독립된 제3의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이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검하여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목표 검토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그룹의 환경정보관리시스템 및 ESG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계열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 배출량은 계열사별 감축 실적을 측정하여 관리하며, 금융배출량의 경우 산업 부문별 익스포저 및 탄소집약도를 측정하여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축 경로를 관리하여 기후 관련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목표 달성 진척도 모니터링 지표

KB금융그룹은 SBTi 목표 달성의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업전반 지표인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2004)'에 따른 Scope 1, 2,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활용하며, 산업기반 지표인 상업은행, 보험, 자산운용 활동별 금융배출량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기후 관련 목표 대비 성과

KB금융그룹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2004)'에 따라 매년 기후 성과를 측정하여 공시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기준연도 대비 약 15.3%를 감축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의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46~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크레딧의 계획된 사용

KB금융그룹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며, 2040년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 금융배출량 탄소중립(Net-Zero) 달성 시점의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자발적 탄소시장의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Investor headlines

본 보고서에서는 KSSB 제1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요인이 KB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식별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단·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전략 실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더 이상 규제 준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금융회사의 신뢰 자본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비대면 채널이 확산되면서 불안전판매와 금융사기의 양상도 정교해지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규율 또한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B금융그룹이 직면한 주요 위험은 규제 강화로 인한 자문수수료 및 기회비용 증가, 그리고 불안전판매·금융사기 발생에 따른 소송비용 및 충당부채 증가로 식별되며, 이와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은 제재비용을 줄이고, SI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이러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여 민원 및 피해보상 비용을 선제적으로 통제해 영업외비용을 안정화하는 한편, 고객 신뢰를 토대로 수수료수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SI 이상거래탐지 및 불안전판매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 운영비용은 다소 증가하나 피해보상 비용을 선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완전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소송 및 제재비용을 감소시키고 고객 신뢰 기반의 수수료수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과 고객 이탈 방지를 통해 운영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수수료수익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고객정보와 거래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위험은 단순한 IT 사고를 넘어 평판과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흔드는 주요 위험으로 확대되었으며, 클라우드 전환과 외부 위탁 확대는 보안 관리의 범위와 난이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복구비용과 손해배상 부담이 커지고, 클라우드 및 외부 위탁은 보안 투자비용을 끌어올리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보안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면 침해대응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정보보호 역량을 내재화하면 외주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KB금융그룹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유출과 사이버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제로트러스트(Zero-Trust)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비용과 운영비용을 함께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선진화와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동화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운영비용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에는 제로트러스트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과 S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보안 체계 구축으로 침해대응 및 손해배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역량의 내재화·효율화와 보안 SI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 운영비용과 외주비를 구조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는 점차 기술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디지털과 SI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슈퍼앱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깊이는 금융회사의 성장성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I·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면 고객 이탈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IT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과정에서 단기 투자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SI를 통한 업무 자동화는 중장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슈퍼앱·금융플랫폼의 확대는 고객 접점을 넓혀 수수료수익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은 슈퍼앱을 주축으로 수수료수익을 확대하고 SI 기반의 업무 자동화로 운영비용을 줄여, 디지털 전환을 성장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금융플랫폼 고도화와 SI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형자산과 광고선전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에는 SI 기반의 초개인화된 맞춤형 고객 응대와 마이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연계를 확대해 수수료수익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365 Always-on 금융서비스와 SI 거버넌스 기반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신규 수수료수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위험에 따른 법률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KB금융그룹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기반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소비자보호 위원회의 주요 역할, 결의사항, 보고체계 등을 「소비자보호위원회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되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방향과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 반기 1회 이상 개최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방향,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준수 실태 등을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협의회 | · 반기 1회 이상 개최 · 내부통제 준수여부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 법령·규정 준수여부를 대표이사에 보고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지주 이사회에는 ‘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이사진이 참여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거버넌스 세미나 등에 참석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성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고객응대 직원(영업점, 콜센터 등)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됩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협의체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기 | 항목 | 주요 내용 | 대상 |
|--------|----------------------------|---|---|
| '25.1Q | ‘금융소비자보호업무협의체’ 신설 | · 그룹사 공동 추진 소비자보호 업무 논의 및 정보공유 채널 마련 (분기별 1회 대면 운영, 2026년부터 부서장급 실무협의체 신설) | 은행·증권·손보·라이프·저축은행·캐피탈·자산운용·부동산신탁 (8개사) |
| '25.2Q | ‘금융소비자보호업무규정’ 제정 | · KB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정의 및 체계화 | 지주회사 및 전 계열사 |
| '25.4Q | 전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경영계획 수립 | · 전담조직 수준이 아닌 순 조직 참여 형태의 사전예방적 체계 마련 (3대 핵심가치·7개 중점 추진과제·100개 세부 추진과제) | 은행·증권·손보·카드·라이프·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부동산신탁 (9개사) |
| |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1그룹 2부서 → 1그룹 3부서, 금융사기예방Unit 신설) | KB국민은행 |
| '26.1Q |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 관리지표 신설 | · 측정가능한 전사적 소비자보호 관리지표 운영 (Gathering-Analysis-System 체계 기반 ‘소비자보호 관리지표 집중화, 구축) | 은행·증권·손보·카드·라이프·캐피탈·저축은행 (7개사) |
| | 이사회 內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선제적 이행 및 소비자보호를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 | 은행·증권·카드·라이프 (4개사) |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관리·감독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KB금융그룹은 신상품 및 신규 사업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을 사전 점검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해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만족도를 관리하여 위험관리와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
| <p>신상품 및 신규 사업 개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협의체 및 소비자보호 부서 사전 협의를 통한 상품의 적합성 및 리스크 점검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지주 리스크관리부 협의 후 그룹 차원 검토 수행 · 계열사별 상품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전 심의 진행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활용) ·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체계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 주기적 수행 |
| <p>고객 경험 관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S(순고객추천지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고객만족도와 충성도 정기 측정·분석 · 고객 설문 결과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반영 |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그룹은 불안전판매 건수, 고객만족도, 계약 서류 완전성, 판매 절차 적정성 등 금융소비자보호 지표를 KPI에 반영한 실효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운영합니다. 각 계열사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

경영진에 위임된 역할과 감독 방식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운영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역할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 경영방향 수립, 제도 개선, 모니터링, 민원예방 업무, 민원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진이 감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 및 절차

KB금융그룹은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규정」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보고와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및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구성하며,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와 연계하여 금융상품이 개발 및 마케팅 정책이 수립되도록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위험 및 기회

KB금융그룹은 민원 건수, 피해보상 처리 건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요인을 식별합니다. 이를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한 후,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간 범위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대응 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합니다.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사업모형은 기업이 투입을 산출 및 성과로 전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운영 체계를 의미하며, 가치사슬은 이러한 사업모형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부터 생산, 판매, 소비 및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의존하는 자원, 활동, 상호작용 및 규제 등 외부환경을 의미합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 위험 및 기회요인 | 중요도 | 단기 | 중기 | 장기 |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 예상 재무적 영향 |
|--|-----|----|----|----|---|--|
| 부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사고 발생 | 상 | ● | | | · 부실판매로 인한 과태료, 벌금 등 손실 발생 · 부실 금융상품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 | · 제재(과징금, 과태료) 부과로 영업외비용 증가 · 부실판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증가 |
| 위험 요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와 책임 강화 | 중 | ● | | | ·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조치 · 피해 구제 기금 확대 요구 또는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요구 | · 규제 준수 관련 법률 및 내부통제 자문비용 증가 · 규제 강화에 따른 내부 프로세스 강화로 기회비용 증가 |
|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 상 | | ● | | ·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및 보상에 따른 비용 증가 · 불공정 광고, 설명의무 미이행, 부당 권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업 평판 악화 및 대내외 신뢰도 저하 | · 민원·분쟁 발생 및 보상에 따른 영업외비용 및 소송 관련 충당부채 증가 · 신규 고객 유치 및 거래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및 금융사기 리스크 증가 | 상 | | ● | | · 투자자문 알고리즘 신뢰성 저하 ·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및 회사 신뢰도 저하 | · IT 보안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 · 피해 보상 및 민원 처리에 따른 영업외비용 증가 · 첨단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IT 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 인력 확충 등 일반관리비 증가 |
| 기회 요인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고객경험 개선 | 상 | | | ● | · 맞춤형 정보 및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로 고객 신뢰도 및 시장 점유율 확대 | · 고객 만족도 제고로 브랜드 가치 및 수익 기반 확대 · 고객 충성도 향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 · 긍정적 고객 경험 추천 및 재이용 증가로 신규 고객 유입 확대 |
| 내부 프로세스 및 통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중 | ● | ● | | ·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벌금·과징금 등 재무 리스크 감소 ·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 고객 경험 개선 및 평판 향상 | · 벌금, 소비자 불만 및 피해보상 비용 감소 · 고객 경험의 향상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및 수익 증대 |
| 디지털 혁신 및 기술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중 | | | ● | · 신기술 기반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고객 접근성 개선 및 거래량 증가로 매출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이행합니다.

전략 및 추진과제

| 구분 | 전략 | 추진과제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단기 | 소비자보호 중심 상품 소 주기 (개발·판매·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 | · 개발단계 사전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정기 교육 시행 · 순고객추천지수(NPS) 설문 프로세스 및 시스템 도입 · 고객의 소리(VOC), 고객자문단 등 소비자 참여 확대 · 고객 투자성향 반영한 평가기준 강화 | · 단기 운영비용 및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 | · 선제 대응을 통한 소비자 피해보상 비용 감소 | · 운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 및 안정적 매출 증대 |
| 중기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완전판매 프로세스 고도화 | · 불완전판매 예방 점검내역 관리체계 디지털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NPS 인사이트 경영 연계 시스템 정착 및 고도화 · 소비자보호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 · IT 투자 및 전환 비용 발생 | ·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 비용 감소 | ·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신뢰도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
| 장기 | AI 기반 금융소비자보호 자동화 시스템 내재화 | · AI 기반 상품 설계 사전 검토 및 대응조치 자동화 · 민원처리 및 VOC 자동화 시스템 내재화 · AI·빅데이터 기반 NPS 분석 및 처리 자동화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증가 | ·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 · 운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 및 고객 니즈 반영 상품 기반 수익 창출 |

회복력

KB금융그룹은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리스크 유형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그룹 차원의 위험성향과 리스크 한도 등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품 개발 및 신규사업 추진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및 고객 손실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고객경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취약요인과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관련 위험과 연관된 불확실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위험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고, 관련 조치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위험 식별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고객경험조사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의 정기적 식별 및 평가 <p>[신규 상품·서비스 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개발 단계부터 사전 심의를 통해 잠재적 위험 분석·진단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예방조치를 전사 의사결정에 반영 |
| 우선순위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체계적 관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하에 주요 리스크 식별 및 우선순위화 계열사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리스크와 기회 간 상호 영향 파악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규제 대응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 |
| 모니터링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내부 프로세스 총괄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영방향,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임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등 점검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이슈 사전 심의 및 민원 대응 개선 논의 |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회의와 보고체계를 통해 법규 준수, 민원 발생현황 및 재무적 리스크 점검, 내부통제 준수여부 모니터링 |

기회관리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시장 변수 분석과 고객 중심 접근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회를 식별·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 시장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트렌드 및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관점에서 기회를 발굴합니다. 또한 VOC, 고객 자문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 니즈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주요 불만 사항 및 개선 요구를 기회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회의 잠재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사 위험관리 프로세스 통합

KB금융그룹은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평가하며, 각 계열사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11~16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및 목표

모니터링 지표

KB금융그룹의 각 계열사는 다음의 지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목표의 진척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법률·규제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의 각 계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하기 위해 SASB 기준에 명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이행 수준과 진척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모니터링 지표 | 목표 | 목표 대비 성과 | 계열사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분쟁의 조정) | FN-CF-270a.4 (1)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소비자불만 건 수 (2)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비율 | 구제비율 100% | (1) FINES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제출된 소비자 불만 건수 : 1,745건 (자율조정 성립민원 제외) (2) 요구사항 수용 또는 민원취하 : 총 1,155건 - 금전적 구제 : 256건 (14.7%) - 비금전적 구제 : 899건 (51.5%) | KB국민카드 |
| | FN-CF-270a.5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0건 유지 | (1) FINES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제출된 소비자 불만 건수: 177건 (2)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비율: 100% 비금전적 구제 | KB캐피탈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 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 행위의 금지) | FN-AC-270a.1 투자 관련 조사,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개인 민사 소송 또는 기타 규제 절차의 기록이 있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1) 수 및 (2) 비율 |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관련 소송 또는 제재 기록이 있는 금융투자전문인력 0명 유지 | 위험관리 보수를 받는 투자 거래 담당 임직원 중 투자 관련 조사, 고객 민원, 민사 소송 및 기타 법적 규제를 받은 임직원은 없음 |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
| | FN-AC-270a.2 신규 및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 정보로 인한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불공정계약 관련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0건 유지 | 신규 및 재가입 고객 대상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 없음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 의무)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46조(청약의 철회) | FN-IN-270a.1 보험상품 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마케팅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보험상품 정보 전달 및 마케팅 관련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0건 유지 | 보험상품 계약 체결 전 고객에게 중요 정보 전달(3대 기본 지키기) 미비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 없음 |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 | FN-IN-270a.2 보유계약 대비 민원율 | 민원 유발 요인 원천적 해소를 통한 민원발생률의 지속적 감축 | 보고기간 동안 공시기준으로 접수된 보유계약 십만 건 대비 민원 환산 건수 29.91건 | KB손해보험 |
| | FN-IN-270a.3 계약 유지율 | 불완전판매 근절 및 고객만족도 기반의 계약유지율 안정적 유지 | 보고기간 동안 공시기준으로 접수된 보유계약 십만 건 대비 민원 환산 건수 24.01건 | KB라이프생명 |
| | | | 88.46% | KB손해보험 |
| | | | 86.5% | KB라이프생명 |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및 목표

전략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은 법규 준수를 넘어,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자 KB만의 차별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추진과제와 연계되어 전략적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과 성과의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 전략 | 모니터링 지표 | 목표 | 활동 실적 및 목표 이행 현황 | 계열사 |
|--|-------------------------|---|--|------------|
| 소비자보호 중심 상품 수 주기 (개발·판매·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정기보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적정성 및 준수실태 점검결과 개선과제 도출 및 조치 | · 총 24건 개선과제 도출 · TFT 구성을 통한 구체적 개선계획 마련 및 유관부서 KPI 반영 | KB국민은행 |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자율진단」 | 종합등급 '양호' | · 종합등급 '보통' | KB국민카드 |
| |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이수 | · 광고규정 준수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민원예방 및 대고객 응대 교육, 증권 분쟁 예방 교육, 금융상품 직무수행교육 실시 | KB증권 |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완전판매 프로세스 고도화 | 불완전판매율 | 불완전판매율 (불완전판매 건수/전체 판매 건수) 감소 | · 불완전판매율 전년 대비 0.04%p 감소 (0.10% → 0.06%) | KB라이프생명 |
| | 민원 건수 | 민원 건수 감소 | · 전년 대비 민원 건수 6.7% 감소 | KB금융그룹(공통) |
| | 금융사기 예방 처리 건수 및 금액 |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 및 금액 증가 | · 카드로 피싱 예방을 전년 대비 2.4%p 증가 (88.7% → 91.1%) · 카드로 피싱 예방금액 전년 대비 114억 원 증가 (118억 원 → 232억 원) | KB국민카드 |
| AI 기반 소비자보호 자동화 시스템 내재화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1위 | · 시중은행 부문 11년 연속 1위 | KB국민은행 |
| |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1위 | · 신용카드 부문 5년 연속 1위, 체크카드 부문 2년 연속 1위 | KB국민카드 |
| |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 1위 | · 체크카드 부문 11년 연속 1위 | KB국민카드 |
| | | KS-CQI(클러스터품질지수) 조사 1위 | ·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부문 1위 | KB손해보험 |

정보보호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과 책임

KB금융그룹은 전사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 계열사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정책과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KB금융지주는 정보보호를 그룹의 핵심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 산하에 정보보호부와 그룹사이버보안센터를 배치하여 그룹 차원의 통합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그룹사이버보안센터는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레드팀(사이버보안팀)’과 24X365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 침해위험을 탐지·차단하는 방어전문 조직 ‘블루팀(그룹 통합보안관제)’을 동시 운영하여 선제적 방어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지주 정보보호위원회 및 그룹 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그룹 정보보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위험 평가 및 대응 조치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각 계열사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실무를 이행합니다.

정보보호 의사결정 조직체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최상위 사규인 「정보보호업무규정」과 「정보보호위원회지침」에 의거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책무구조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무적 실효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

KB금융지주는 지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보보호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며, 지주 및 계열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그룹 정보보호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그룹 내 정보보호 현황 및 핵심 리스크 대응방안을 협의합니다.

| | |
|------------|---|
| 지주 정보보호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수시 개최 · 지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위원장으로, 지주 준법추진부장, IT기획부장, 정보보호부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단계적 보고 <p>[주요 심의·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에 관한 목표·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 등 제3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
| 그룹 정보보호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개최 · 지주 정보보호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11개 계열사 정보보호업무 담당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 <p>[주요 심의·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정보보호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그룹 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외규 변경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지주 이사회에는 디지털 및 IT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이사진이 참여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이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자격요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의 정보보호 교육 및 직급·직무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내 해킹대회('KB HackCon') 및 정보보호 기술랩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자발적인 역량 개발을 장려합니다.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관리·감독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KB금융그룹은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 외부 위탁 및 제3자 리스크 등 주요 정보보호 위험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보호 위험 현황 점검 및 대응 결과는 지주 정보보호위원회 및 그룹 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되어 경영진이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 위험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의 중장기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그룹은 중장기 정보보호 전략을 기반으로 주요 목표를 수립하고, 지주 정보보호위원회 및 그룹 정보보호협의회에서 목표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보보호 리스크 점검, 모의훈련, 내부통제 활동 등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 현황과 주요 지표의 달성 여부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단계적으로 보고되어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보호 활동의 성과는 KPI와 연계하여 준법감시인 및 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의 정보보호본부는 조직 단위 성과평가를 통해 정보보호 대응 역량과 규제 대응 수준, 운영 효율성 등을 관리합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임직원 KPI에 반영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

경영진에 위임된 역할과 감독 방식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객정보관리인을 겸임해 전문성과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의 역할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감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 및 절차

KB금융그룹은 경영진의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업무규정», 「전산정보보안업무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전 계열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략

위험 및 기회

KB금융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 정보보안 사고 발생 현황 및 내부 통제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요인을 식별합니다. 이를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한 후,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간 범위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대응 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합니다.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정보 보호, 외부 위탁업체 및 IT 협력사에 대한 보안 관리 등 가치사슬 전반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 및 외부 플랫폼 이용에 따른 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정보보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 위험 및 기회요인 | 중요도 | 단기 | 중기 | 장기 |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 예상 재무적 영향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패러다임 변화 | 상 | ● | ● | | · 자율보안체계 전환에 따른 내부통제 및 관리체계 고도화 요구 · 그룹 전반의 정보보호 운영 수준 상향 및 통제 기준 강화 필요 | · 자율보안체계 전환 및 내부통제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투자 증가로 무형자산 및 전산개발비 증가 · 지속적인 관리체계 운영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판매관리비 증가 |
| 정보보호 규제 환경 변화 | 상 | ● | ● |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규제 준수 미흡 시 제재 및 평판 리스크 확대 | · 규제 강화에 따른 제재 발생가능성 증가로 영업외비용 증가 · 컴플라이언스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활동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증가로 판매관리비 증가 |
| 위험 요인 | | | | | | |
| 사이버 공격 및 정보유출 리스크 증가 | 중 | ● | ● | ● | · 고객 신뢰 저하 및 서비스 안정성 저해 · 금융서비스 이용 감소 및 브랜드 가치 훼손 | · 사이버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 보상 및 사후 대응 비용 발생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 사고 관련 법적 대응 및 손실 반영에 따른 중당부채 증가 · 고객 신뢰 저하에 따른 서비스 이용 감소로 수수료수익 감소 |
| 외부 위탁 및 제3자 보안 리스크 | 상 | ● | ● | ● | · 클라우드 및 외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 통제 필요성 증가 · 제3자 리스크 관리 미흡 시 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 · 외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 점검 및 관리 비용 증가로 판매관리비 증가 · 외부 위탁 관련 사고 발생 시 손실 반영에 따른 손실충당금 증가 |
| 정보보호 전문역량 내재화 | 중 | ● | ● | ● | · 외부 의존도 감소 및 그룹 보안 경쟁력 강화 · 내부 통제 및 대응 역량의 일관성 확보 | · 외부 보안 용역 축소에 따른 외주용역비 감소로 판매관리비 절감 · 초기 인력 및 조직 구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이후 장기적 운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 |
| 기회 요인 | | | | | | |
| 보안 프로세스 효율화 | 중 | ● | ● | | · 내부 업무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 향상 · 보안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직 생산성 개선 | · 보안 절차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운영 효율화로 판매관리비 절감 · 시스템 효율화에 따른 IT 유지보수 비용 감소 |
|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상 | | ● | ● | · 보안 수준 향상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고객 유지를 및 서비스 이용 증가 기반 확보 | · 보안 수준 향상에 따른 고객 신뢰 및 신규 고객 유입 증가에 따른 수익 기반 확대 · 고객 유지를 개선 및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

정보보호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이행합니다.

전략 및 추진과제

| 구분 | 전략 | 추진과제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단기 | 관리체계 선진화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 자율공시 시행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체계 고도화 IT 보안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동화 범위 확대 고객정보 송·수신 검증체계 적용 확대 및 운영 안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대응 강화로 판매관리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시스템 구축 투자 증가로 무형자산 및 전산개발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및 제재 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자본비용 절감 |
| 중기 |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보안 통제체계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생성형 AI 등) 기반 위협관리 보안 통제체계 고도화 디지털·신기술 환경 변화 대응 보안체계 지속 개선 중요정보 유출 방지 체계 고도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제로트러스트(Zero-Trust) 전환 및 차세대 보안기술(양자보안 등) 대응 역량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및 판매관리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대응 및 고객보상으로 판매관리비 및 충당부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보안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안정화 고객 신뢰 및 디지털 경쟁력 기반 수익 확대 |
| 장기 | 정보보호 역량 내재화 및 운영 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보안 프레임워크(KB RMF) 확립 및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역량 내재화 보안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 및 업무 효율화 체계 고도화 임직원 보안업무 편의성 개선 및 운영 효율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교육 운영 및 투자비용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내재화에 따른 외주용역비 감소로 판매관리비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효율화 및 고객 신뢰 기반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

회복력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중단,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장애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및 IT 재해복구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대응 조직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사고 대응 및 복구 절차에 따라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점검을 통해 사고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보보호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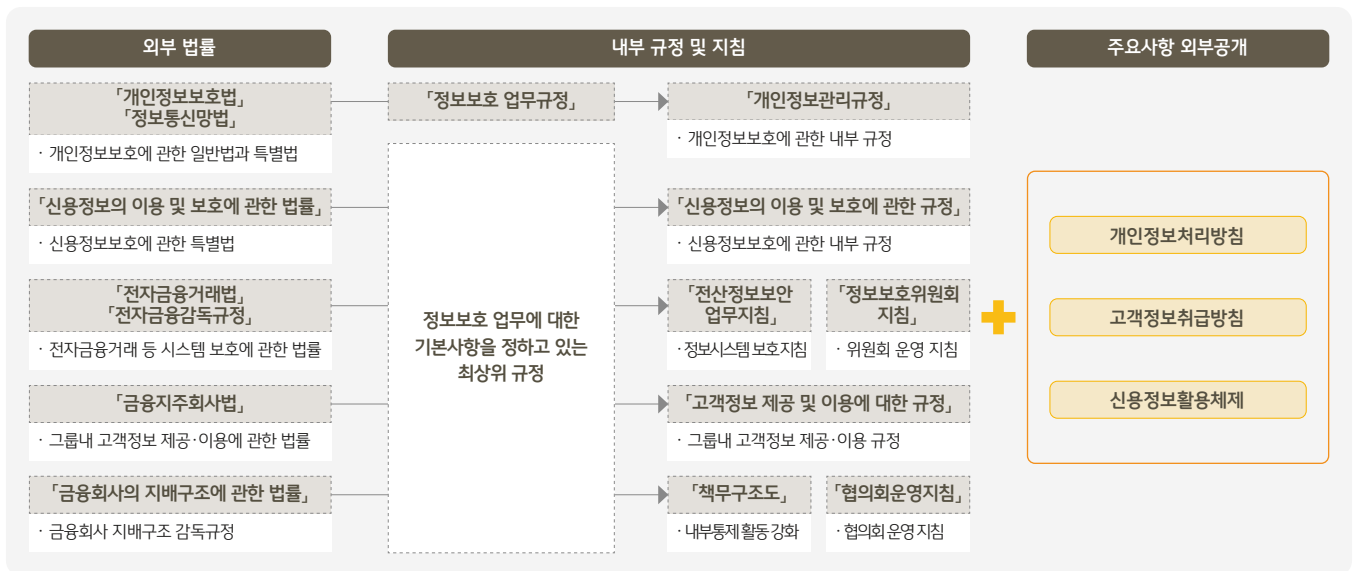
위험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KB금융그룹은 최상위 정보보호 규정인 「정보보호업무규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신용정보, 고객정보, 정보보안에 대한 세부 규정/지침을 수립하여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제3자까지 포함한 전 사업 영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정보취급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 등을 통해 그 주요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정보보호 정책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정기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중요도 및 영향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위험 식별 | · 전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 식별 · 홈페이지, 앱 및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점검활동을 통한 잠재적 보안 위험 사전 식별 |
| 위험 식별 및 평가 | · 「정보보호업무지침」에 따른 연 1회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성 분석·평가 · 정보자산 식별·분류 및 중요도에 따른 점검 대상 선정·평가 - 평가 결과 기반 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수립 - 위험관리 활동 효과성 평가 수행: 보호대책 이행 여부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유출 사고 발생 여부 점검 - 위험관리 활동 효과성 평가 결과의 CISO 및 최고경영진 보고 |
| 우선순위 설정 | · 정보보호위원회 및 그룹 정보보호협의회 중심의 정보보호 이슈 공유, 중요도 및 영향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 등 핵심 영역 중심 선정 · 정보자산 중요도·외부 위험 수준 등 종합 고려, 사고 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른 우선 대응 영역 선정 |
| 정보보호 관련 투자 및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 · 규제 준수 필요성, 사고 예방 효과, 고객 정보보호 수준 제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기준 적용 · 사고 발생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정기 재조정 |
| 정보보호 실태점검 | ·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점검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및 고객정보 제공·이용 점검 기준 기반의 전 계열사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 주요 정보보호 점검 결과의 분기별 이사회 보고 · 정보보호 대책 및 이행계획 추진 결과의 CISO 및 최고경영진 보고 |
| 모니터링 | ·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제3자 검증 수행 ·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공개 입찰을 통한 적정한 외부 전문가 선정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성 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점검, 보안성 심의 대상 사후 준수 점검 등 주요 기반시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 대응 훈련 | · 사이버위험 대응 훈련(K사이버실드), 재해복구(DR) 및 랜섬웨어 대응 훈련 정기 실시 · 금융보안원과의 합동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임직원 대상 모의훈련 병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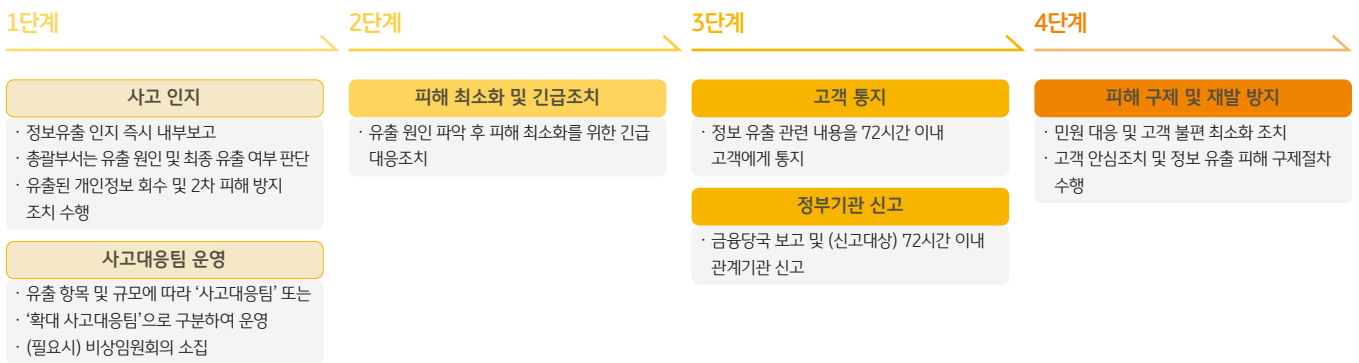
정보보호

위험관리

정보보호 사고 대응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출 사고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비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실시하여 사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 사고, 취약점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할 경우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즉시 정보보호 담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대응 프로세스



KB국민은행 정보보호 외부 검증

| 검증기관 | 검증 내용 | 검증 주기 |
|-------|--|-------|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성 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 연 1회 |
| 금융감독원 |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성 점검 | 연 2회 |
| 금융감독원 | 자체 보안성심사결과 보고 | 수시 |
| 금융결제원 | 오픈뱅킹 서비스 보안 취약성 점검 | 2년 주기 |
| 금융보안원 | 마케팅데이터 서비스 보안 취약성 점검 | 연 1회 |

기회관리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관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안 수준 향상, 고객 신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의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정보보호 자율공시 및 마스터플랜 등 정보보호 전략 및 투자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위험관리 프로세스 통합

KB금융그룹은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평가하며, 각 계열사별 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11~16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지표 및 목표

모니터링 지표

KB금융그룹의 각 계열사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지표로 정보보호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법률·규제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의 각 계열사는 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하기 위해 SASB 기준에 명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이행 수준과 진척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모니터링 지표 | 목표 | 목표 대비 성과 | 계열사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FN-CB-230a.1 | (1) 데이터 침해 건수 (2)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관련 데이터 침해 비율 (3) 영향받은 계좌 보유자 수 | 데이터 유출 발생 없음 | KB국민은행 | |
| | | | 데이터 유출 발생 없음 | KB저축은행 | |
| | FN-CF-230a.1 | | 데이터 유출 발생 없음 | KB국민카드 | |
| | | | 데이터 유출 발생 없음 | KB캐피탈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3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FN-CF-220a.1 | 선택적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고객 수 * 금융거래 관계 등을 위한 상품별 필수·선택적 동의 이외에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마케팅 동의서를 징구한 고객 수 | 2025년 12월 기준 15,230,682명 | KB국민카드 | |
| | | | 2025년 12월 기준 335,077명 | KB캐피탈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FN-CF-220a.2 |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인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의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없음 | KB국민카드 | |
| | | |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의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없음 | KB캐피탈 | |
| 역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FN-CF-230a.2 | (1) 무카드(Card Not Present) 거래 사기 및 (2) 카드 대면거래 사기 및 기타 사기로 인한 카드 관련 사기 손실 금액 | 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손실 규모 지속 감소 | (1)무카드(CNP) 거래 사기로 인한 총 손실 금액: 187백만 원 (2)카드 대면거래 사기 및 기타 사기로 인한 총 손실 금액: 565백만 원 | KB국민카드 |

정보보호

지표 및 목표

전략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은 법규 준수를 넘어, 정보보호 전략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자 KB만의 차별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정보보호 전략의 추진과제와 연계되어 전략적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과 성과의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 전략 | 모니터링 지표 | 목표 | 활동 실적 및 목표 이행 현황 ¹⁾ | 계열사 |
|----------------------------------|------------------------------|---|---|---|
| 관리체계 선진화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등급 |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평가 최고등급 유지 | 최고등급(S등급) 획득 및 유지 | KB국민은행 |
| | 정보보호 인증 | 대외 정보보호 인증(ISMS, ISMS-P 등) 보유 계열사 확대 | ISMS 또는 ISMS-P 인증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
| | 컴플라이언스 점검 수행률 | 점검 대상 100% 수행 유지 | 관련 법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대내외 보고 100% 수행 | KB금융그룹(공통) |
|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보안 통제체계 고도화 | 보안사고 발생 건수 | 중대 사고 0건 유지 및 지속 감소 | 중대 정보보안 사고 미발생 | KB데이터시스템 |
| | 제로트러스트 전환율 | 제로트러스트 단계적 전환 | 보안 아키텍처 도입 및 단계적 전환 | KB금융그룹(공통) |
| 정보보호 역량 내재화 및 운영 효율화 | 정보보호 역량의 그룹 내재화 | 대외인증 심사, 취약성 점검, 보안컨설팅, 보안관제 등 역량 내재화 - 정보보호 사업 매출 연간 30% 확대 (~2028년까지) - KB통합관제센터 내부인력 비율 45% 이상 (~2028년까지) |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충 및 그룹 자체 수행률 확대 | KB금융그룹(공통) |
| | 임직원 교육 이수율 | 100% 유지 |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이수율 100% 달성 | |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업무 AI 자동화 | 지주 및 주요 계열사 AI Agent 1건 이상 운영 (2026년) | AI 기반 보안위협 통합관리 체계 추진 | KB증권 KB라이프생명 |

1) 2025년 기준

디지털 혁신 및 기술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과 책임

KB금융그룹은 디지털 전 영역의 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전략과 긴밀히 연계된 디지털·AI 전략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부문'을 신설하여 그룹 전체의 디지털·AX(AI Transformation)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T추진부, 금융 AI2센터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룹 미래전략부문장 주관 하 계열사 유관 담당임원들이 참석하는 그룹 플랫폼/AI·Data/디지털자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별 디지털/AI/디지털자산 영역 내 주요 추진현황 공유 및 현안을 논의하며,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 내 AI 기술 활용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KB금융그룹은 「AI위험관리규정」을 수립하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AI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도입 및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윤리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결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및 기술 관련 위험과 기회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방식 및 빈도

KB금융그룹은 미래전략부문을 중심으로 그룹 내 디지털 및 AI 관련 협의회를 통해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각 계열사의 디지털·AI 담당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미래전략부문장에게 전략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주요 현안은 그룹 플랫폼/AI·Data/디지털자산 협의회를 통해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전략 방향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주요 이슈 및 추진 현황 역시 동일한 보고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고위험 AI 서비스 및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보고됩니다.

관리·감독 역량 및 개발

KB금융그룹은 디지털 및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및 실무자의 디지털·AI 역량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식 공유 및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AI 활용 사례와 기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관리·감독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KB금융그룹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내에서 디지털 및 AI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개발-검증-운영 전 단계에 걸친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의회 운영을 통해 계열사 간 전략을 통합적으로 실행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대한 감독 및 진척도 모니터링

KB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AU(월간 활성 사용자수), 모바일 플랫폼 가입자 수, 고객만족도 등 주요 KPI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계열사별 디지털 및 AI 관련 추진과제, 플랫폼 운영 성과, 기술 도입 및 활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룹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

경영진에 위임된 역할과 감독 방식

KB금융그룹은 디지털 및 AI 관련 전략과 운영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경영진 수준의 조직 및 협의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부문장 및 주요 계열사 디지털/AI부문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그룹 플랫폼 협의회, AI·Data 협의회는 계열사의 경영계획과 핵심 과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식별·관리하고, 디지털 및 AI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실행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AI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임원급으로 구성된 'AI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AI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정책의 제·개정, 고위험 AI 서비스의 사전 승인, 위험등급 이견 조정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심의·결의합니다.

경영진이 감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 및 절차

KB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는 AI윤리위원회를 통해 「AI위험관리정책」을 제·개정하고, AI 오류로 인한 위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검인증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개발부서에서 1차 검증한 결과를 AI거버넌스팀에서 2차 검증하는 내부통제 구조로 내부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AI 관련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전략

위험 및 기회

KB금융그룹은 디지털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한 뒤, 각각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각 요인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대응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기간 범위

KB금융그룹은 디지털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동일하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합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 위험 및 기회요인 | 중요도 | 단기 | 중기 | 장기 |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 예상 재무적 영향 |
|--|-----|----|----|----|---|--|
| 위험 요인 AI의 자율성 증가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리스크 확대 | 상 | | ● | ● | · AI의 자율적 판단 확대에 차별·편향적 서비스 노출 위험 ·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객 만족도 저하 | · 알고리즘 편향 수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 · 윤리 리스크 발생 시 브랜드 가치 하락 및 매출 감소 |
| 디지털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 | 상 | | ● | ● | · 금융업 대상 사이버 공격에 따른 데이터 유출 위험 증가 · 최신 보안 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증대 · 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증가 | · 보안 인프라 강화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무형자산 증가 · 보안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소송 및 제재 비용 증가 |
| 첨단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객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상 | ● | ● | | · 금융플랫폼 사용 고객 경험 향상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AI 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디지털화로 운영 효율성 향상 · 고객 선호도 및 행동 패턴 분석 등 AI·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객 경험 향상 | ·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및 매출 증가 · 서비스 운영비용 절감 · 데이터 분석 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
| 기회 요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ESG 데이터 관리 자동화 | 상 | | ● | ● | · AI 기반 업무 도구 활용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 · AI 기반 내부통제 및 점검 활동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 · ESG 데이터 수집·공시 자동화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 AI 기술 도입 관련 연구개발비 증가 · 법적 리스크 감소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 · ESG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
| 금융당국의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에 따른 시장 활성화 | 중 | ● | ● | | ·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따른 관련 시장 지속 확장 · 공공기관 및 비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기회 창출 | ·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한 비용 효율성 증대 및 순이익 증가 ·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 정책 지원 확보로 인한 현금 유입 |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KB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이행합니다.

전략 및 추진과제

| 구분 | 전략 | 추진과제 | 예상 재무적 영향 |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단기 | 금융 플랫폼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앱 전략 지속 추진 및 플랫폼 수익화 강화 영업·본부·고객 지원용 AI 에이전트 도입 및 활용 기반 구축 AI 위험관리체계 구축 (SI기법법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및 AI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광고선전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반 운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 플랫폼 개선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
| 중기 | 디지털·AI 기반 서비스 확장 및 운영체계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 AI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및 초개인화된 대고객 접점 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플랫폼 고도화 및 자동화 마케팅 확대 AI 품질관리 및 통제체계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내재화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운영 리스크 감소에 따른 대손상각비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기반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
| 장기 | 초개인화 AI 금융 생태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멀티모달 기반 인터페이스 및 Always-on 금융 구현 자율 리밸런싱 기반 24/365 금융 서비스 구축 통합 AI 거버넌스 기반 금융 생태계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규제 대응 효율화에 따른 법률비용 감소 |

회복력

KB금융그룹은 AI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이행 이후의 잔여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대응 전략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AI 관련 위험 및 연관된 불확실성에 대해 해당 전략이 얼마나 대처하고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위험관리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AI 기술에 기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AI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AI위험관리규정」을 통해 시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그룹 차원의 AI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윤리기준

| 단계 | 주요내용 |
|------------|---|
| 위험 식별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플랫폼 협의체', '그룹 AI·Data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위험·기회 식별 후 그룹 차원의 AI·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 · 'AI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데이터·모델·시스템·서비스 영역별 위험 평가 수행 · 고위험 AI 서비스는 윤리위원회 사전 승인 <p>[AI위험평가 프레임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인식, 위험 경감, 잔여 위험 평가, 위험등급 확정 단계로 구성 |
| 우선순위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설정시 전략 및 목표와의 연계성, 잠재적 리스크, 자원 투입 규모, 고객 요구 등 고려 · 설정된 우선순위는 외부 환경 변화 및 내부 전략 조정에 따른 정기적 재검토 - 프로젝트별: 사업 위험도 및 규제 준수 여부 중심의 리스크 평가 - AI 서비스: 위험등급에 따라 AI 서비스 추진 여부 및 관리수준 결정 후 전략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우선순위 부여 |
|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전략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현황 상시 점검 <p>[협의체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플랫폼 협의체: 디지털 전략 이행 및 계열사 지표 점검 - AI·Data 협의체: AI 추진 현황 점검 및 공동 대응, 계열사 간 노하우 공유 <p>[서비스유형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서비스: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진행하여 성능 및 위험 요인 점검 - 고위험 AI 서비스: 윤리위원회를 통한 운영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AI 위험관리 프로세스

| 단계 | 주요내용 |
|-------|---|
|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인식 및 식별 · 위험 경감방안 마련 및 잔여위험 기준 위험 평가 · (고위험 서비스) 윤리위원회 사전 승인 후 개발 착수 |
|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개발계획 확정 · 모델 및 서비스 개발 |
| 평가·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목표기준 적합 여부 검증 · 산출물 확인 및 관리계획 수립 · (고위험 서비스) 시거버넌스팀 2차 검증 |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서비스 운영 승인 요청 · AI 서비스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

전사 위험관리 프로세스 통합

KB금융그룹은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한 AI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별·평가된 계열사별 위험은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11~16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지표 및 목표

모니터링 지표

KB금융그룹은 다음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디지털 혁신 및 기술에 관한 전략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전략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KB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전략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자 KB만의 차별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디지털 혁신 및 기술 전략의 추진과제와 연계되어 전략적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과 성과의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 전략 | 앱·서비스명 | 모니터링 지표 | 목표 | 활동 실적 및 목표 이행 현황 ¹⁾ | 계열사 |
|-----------------------------------|----------------------------------|--------------------------------|--|--|----------------|
| 금융 플랫폼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KB스타뱅킹 (개인 종합 금융플랫폼) | 이용자 수 | · MAU 1,418만 명 (2025년) · MAU 1,522만 명 (2026년) | · MAU 1,416만 명 | |
| | KB리브모바일 (금융·통신 종합 플랫폼) | 이용자 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 이용고객 50만 명 ·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사 고객만족도 1위 | · 이용고객 44만 명 ·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사 고객만족도 4년(8회) 연속 1위 선정(2021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 KB국민은행 |
| | M-able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 이용자 수 | · MAU 200만 명 (2025년) | · MAU 221만 명 *외부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기준 | KB증권 |
| | KB손해보험 앱 (개인 종합 금융플랫폼) | 이용자 수 누적 업무처리 건수 | · MAU 140만 명 · 누적 업무처리건수 7,000만 | · MAU 130만 명 · 누적 업무처리건수 6,486만 건 | KB손해보험 |
| | KB Pay (디지털 결제 플랫폼) | 이용자 수 | · MAU 1,000만 명 | · MAU 1,006만 명 *외부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기준 | KB국민카드 |
| | KB차차차 (중고차 거래 플랫폼) | 이용자 수 | · MAU 110만 명 (2025년) | · MAU 113만 명 | KB캐피탈 |
| 디지털·AI 기반 서비스 확장 및 운영체계 고도화 | KB국민인증서 (간편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 가입자 수 | · 가입고객 1,884만 명 | · 가입고객 1,753만 명 | KB국민은행 |
| | 국민지갑 (생활 연계 서비스 제공 디지털 지갑) | 가입자 수 | · 가입고객 966만 명 | · 가입고객 984만 명 | |
| 초개인화 AI 금융 생태계 구축 | KB금융지주 경영관리 에이전트 등 |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 ·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KB금융지주 경영관리 에이전트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KB금융그룹 (공통) |

1) 2025년 기준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Index

| 핵심요소 | 세부영역 | 문단번호 | 공시 요구사항 | 페이지 |
|-------------|---|---|---|-------|
| 지배구조 | - | 6(1)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 18 |
| | | 6(1)(가)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에 적용되는 기업의 운영규정, 위임권한, 직무기술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 18 |
| | | 6(1)(나) |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 18 |
| | | 6(1)(다) |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정보를 어떻게 안내 받는지와, 얼마나 자주 안내 받는지 설명 | 18 |
| | | 6(1)(라) |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 | 18 |
| | | 6(1)(마) |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와 그러한 목표를 향한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설명 | 18 |
| | | 6(2)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 | 19 |
| | | 6(2)(가) | 특정 경영진 수준의 직책 또는 경영진 수준의 위원회에 역할이 위임되는지와 그러한 직책 또는 위원회가 감독되는 방식 | 19 |
| | | 6(2)(나) |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통제 및 절차를 사용하는지와, 이 경우에 이러한 통제 및 절차가 다른 내부 기능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 19 |
| | | 전략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10(1) |
| 10(2) |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해당 위험을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또는 기후 관련 전환 위험 중 무엇으로 간주하였는지 설명 | | | 20 |
| 10(3) |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단기/중기/장기) 명시 | | | 20 |
| 10(4) |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 | | 20 |
| 10B | 문단 10(4)와 문단 10A에도 불구하고, 정의된 기간범위를 사용하는 경우, 문단 10(4)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대신 이 기준에서 정의한 기간범위를 사용하였음을 공시 | | | 20 |
|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 13(1)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에 대한 기술 | 22~25 |
| | 13(2) | |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기술 | 26 |
| 전략 및 의사결정 | 14(1) | |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고 대응할 계획인지에 관한 정보 | 27~31 |
| | 14(1)(가) | | 기업의 사업모형에 대한 현재 변화 및 예상 변화 | 27 |
| | 14(1)(나) | | 직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현재의 노력과 예상되는 노력 | 27 |
| | 14(1)(다) | 간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현재의 노력과 예상되는 노력 | 28 | |
| | 14(1)(라) | 기후 관련 전환 계획 | 28 | |
| | 14(1)(마) | 기후 관련 목표 | 28~29 | |
| | 14(2) | 기업이 문단 14(1)에 따라 공시된 활동들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고,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 | 31 | |
| 14(3) | 문단 14(1)에 따라 과거 보고기간에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 | 31 | |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Index

| 핵심요소 | 세부영역 | 문단번호 | 공시 요구사항 | 페이지 | | |
|------|-------------------|----------|--|--|---|----|
| 전략 |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 15(1)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현재 재무적 영향) | 35 | | |
| | | 15(2)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 (예상 재무적 영향) | 36~39 | | |
| | | 16(1)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 35 | | |
| | | 16(2) | 문단 16(1)에서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 | 35 | | |
| | | 16(3)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 | 29~30 | | |
| | | 16(3)(가) | 투자 및 처분 계획 | 30 | | |
| | | 16(3)(나) |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자금조달 원천 | 30 | | |
| | | 16(4)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 | 29~30 | | |
| | | 기후 회복력 | 22(1) | 보고일 현재 기업의 기후 회복력 평가 | 40~41 | |
| | | | 22(1)(가)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에 대한 기업 평가의 시사점(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식별한 영향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포함) | 40 | |
| | 22(1)(나) | | 기후 회복력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서 고려된 유의적인 불확실성의 영역 | 41 | | |
| | 22(1)(다) | | 기후변화에 대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전략과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역량 | 41 | | |
| | 22(2) |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 및 시점 | 32~34 | | |
| | 22(2)(가) | | 기업이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 | 32 | | |
| | 22(2)(나) | |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주요 가정 | 32 | | |
| | 22(2)(다) |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이 수행된 보고기간 | 32 | | |
| | 위험관리 | | - | 25(1)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 42 |
| | | | - | 25(1)(가) |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 42 |
| | | | - | 25(1)(나)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을 위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지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 42 |
| | | | - | 25(1)(다) | 기업이 그러한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설명 | 42 |
| | | - | 25(1)(라) | 기업이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우선시하는지와 어떻게 우선시하는지 설명 | 42 | |
| | | - | 25(1)(마)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설명 | 42 | |
| - | | 25(1)(바) | 기업이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직전 보고기간과 비교하여 변경되었는지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25(2) | 기업이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43 | | |
| - | | 25(3)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 | 43 | |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Index

| 핵심요소 | 세부영역 | 문단번호 | 공시 요구사항 | 페이지 | | |
|----------|--|-----------|--|--|-----------------|----|
| 기후 관련 지표 | | 29(1)(가)① | 스코프 1(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 46 | | |
| | | 29(1)(가)② | 스코프 2(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 46 | | |
| | | 29(1)(가)③ |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 47 | | |
| | | 29(1)(다)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 44 | | |
| | | 29(1)(다)①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 | 44~45 | | |
| | | 29(1)(다)② |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을 선택한 이유 | 44 | | |
| | | 29(1)(다)③ | 보고기간 동안 기업이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에서 변경한 모든 사항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 해당 사항 없음 | | |
| | | 29(1)(사)① |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 | 47 | | |
| | | 29(1)(사)② | 기업의 활동에 자산운용, 상업은행 또는 보험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 경우, 기업의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인 기업의 금융배출량에 대한 추가 정보 | 49~50 | | |
| | | 29(2) | 기후 관련 전환 위험 -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60 | | |
| | | 29(3)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60 | | |
| | | 29(4) | 기후 관련 기회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60 | | |
| | | 29(5) | 자본 배치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 60 | | |
| | | 29(6)(가) | 기업이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 61 | | |
| | | 29(6)(나) |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 61 | | |
| | | 29(7)(가) |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에 고려되는지와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기술 | 18~19 | | |
| | | 29(7)(나) | 당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상에서 기후 관련 고려사항과 연계된 보상의 백분율 | 19 | | |
| | | 지표 및 목표 | | 33(1) | 목표 설정에 사용된 지표 | 62 |
| | | | | 33(2) | 목표의 목적 | 62 |
| | | | | 33(3) | 목표가 적용되는 기업의 부분 | 62 |
| 33(4) |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 | | 62 | | |
| 33(5) | 진척도 측정의 기준기간 | | | 62 | | |
| 33(6) | 주요 단계(milestones) 및 중간 목표 | | | 62 | | |
| 33(7) | 양적 목표인 경우, 절대량 목표인지 혹은 집약도 목표인지 설명 | | | 62 | | |
| 33(8)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과 그 협약에 따른 관할권의 약속이 목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 | | | 62 | | |
| 34(1) | 목표 및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제3자의 검증 여부 | | | 64 | | |
| 기후 관련 목표 | 34(2) | | |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 | 64 | |
| | 34(3) | | |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 64 | |
| | 34(4) | | | 목표의 수정과 그러한 수정에 대한 설명 | 해당 사항 없음 | |
| | 35 | | | 각 기후 관련 목표 대비 기업의 성과 및 기업 성과의 추세 또는 변화 분석에 대한 정보 | 64 | |
| 36(1)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 | | 62 | | |
| 36(2)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포함되는 스코프 1, 스코프 2, 또는 스코프 3 | | | 62 | | |
| 36(3)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인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인지 여부(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공시하는 경우, 연관된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 별도 공시) | | | 62 | | |
| 36(4)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을 사용해서 도출되었는지 설명 | | | 62 | | |
| 36(5) |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의 계획된 사용 | | | 64 | | |

SASB Index

상업은행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데이터 보안 | (1) 데이터 침해 건수 (2)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관련 데이터 침해 비율 (3) 영향받은 계좌 보유자 수 | FN-CB-230a.1 |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보고년도에 데이터 유출 발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시 통지를 실시합니다. |
| | 데이터 보안 위험 식별 및 해결 방법 | FN-CB-230a.2 | KB금융그룹은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발생 빈도와 영향 등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보자산 보호대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관리대상 위험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7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 포용 및 역량 구축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된 적격 대출 (1) 건수 및 (2) 금액 | FN-CB-240a.1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출 상품의 건수와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말 잔액 기준) [KB국민은행] 119,510 건 / 3조 1,462억 원 |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된 적격 연체 및 부실 대출 (1) 건수 및 (2) 금액 | FN-CB-240a.2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출 상품 중 연체 건수와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말 잔액 기준) [KB국민은행] - 연체: 3,237건 / 486억 원 - 부실: 4,363건 / 706억 원 |
| 금융 포용 및 역량 구축 | 금융 취약계층 전용 요구불예금 상품 계좌 수 | FN-CB-240a.3 | KB국민은행은 KB행복지킴이통장,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KB국민연금安心통장 등 금융 취약계층 전용 요구불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금융 취약계층 고객에게 제공된 수수료가 면제되는 요구불예금 계좌 수는 162,751개입니다. |
|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수혜자 수 | FN-CB-240a.4 |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고령층, 자립준비청년, 글로벌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해 시니어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793명의 수혜자에게 100회의 시니어 디지털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국 798개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2025년 72,858명의 수혜자에게 2,781회의 금융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교육에 관한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2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 분석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포함 | 신용 분석에 ESG 요소를 포함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CB-410a.2 | KB금융그룹은 2021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모범규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가 높은 사업과 기업의 금융활동을 제한하고 사회 공익에 반하거나 탈법행위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제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리스크 관리 영역을 '배제', '기후변화 관심', '녹색산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은 내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그룹의 ESRM을 내재화하여, 대출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사업 심사 진행과정에 환경·사회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환경,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에 의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으로, 평가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기업 중 신용평가전결 본부심사협의체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신용평가 시 담당 심사역이 진행합니다. 기업운영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양호, 보통, 주의, 미흡 네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심사역의 추가 및 심층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평가 항목은 외부 공시, 내부 통제 환경, 중대재해 예방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국내 부동산 PF 또는 SOC 여신으로서 신청여신금액 300억 원 이상 및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총 20개 항목(환경 14개, 사회적책임 부문 6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 절차를 적용하여 금융 지원한 프로젝트는 20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ASB Index

상업은행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금융배출량 | 각 범위별 절대 총 금융배출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 FN-CB-410b.1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9~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각 산업의 자산군별 총 익스포저 | FN-CB-410b.2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51~5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에 포함된 총 익스포저 비율 | FN-CB-410b.3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51~5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 | FN-CB-410b.4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4~4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업윤리 |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금융업 관련 법령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CB-510a.1 | KB국민은행은 2026년 2월 20일,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69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중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제한한 반독점 및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며, KB국민은행은 이와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행정소송 여부 등) 및 과징금 납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말 해당 과징금 예상액에 대하여 기타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손실 규모는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 및 판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 FN-CB-510a.2 | 내부자 신고 제도 관련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6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위험 관리 | 금융감독원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D-SIB 및 D-SIFI 선정 부문별 점수 | FN-CB-550a.1 |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각각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매년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D-SIB)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하고 해당 항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위한 업무보고서는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AA351),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세부내역(AA352),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AA353),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세부내역(AA354), 증권발행규모 및 총익스포저(AA355), 대체가능성(AA356), 복잡성(AA357), 국내특수요인(AA358)'이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내 감독당국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G-SIB, D-SIB을 평가 및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D-SIB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앞서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D-SIB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KB금융그룹은 매년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D-SIB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최저자본규제비율에 1%p의 추가 부담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본규제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 의무적 및 자발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자본적정성 계획, 장기 기업전략, 기타 사업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CB-550a.2 | KB국민은행은 규제 준수를 위한 의무적 스트레스 테스트로 ▲통합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금융감독원 주관 상황식 스트레스 테스트(연 1회), ▲자체 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연 1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환경(예: 코로나19와 같은 복합 위기상황) 또는 특정 리스크 속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별도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규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관리,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차년도 위험성향 및 내부자본한도 설정) 및 자본계획(배당성향 결정) 등 전반적인 경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 활동지표 | 다음 부문별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1) 계좌 수 및 (2) 예치 금액 (a) 개인고객 (b) 개인사업자 (c) 중소기업 | FN-CB-000.A | 2025년 말 잔액 기준으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별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계좌 수 및 예치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a) 개인고객: 48,513,946좌 / 89조 8,322억 원 (b) 개인사업자: 2,437,909좌 / 9조 8,680억 원 (c) 중소기업: 1,199,502좌 / 30조 7,125억 원 [KB저축은행] (a) 개인고객: 386,642좌 / 3,867억 원 (b) 개인사업자: 6,399좌 / 0.7억 원 (c) 중소기업: 1,889좌 / 105억 원 |
| | 다음 부문별 (1) 대출 건수 및 (2) 금액 (a) 개인고객 (b) 개인사업자 (c) 중소기업 (d) 대기업 | FN-CB-000.B | 2025년 말 잔액 기준으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SOHO, 중소기업, 대기업별 대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a) 개인고객: 1,496,115건 / 29조 5,019억 원 (신용대출 기준) (b) SOHO: 583,696건 / 94조 3,656억 원 (기업원화대출 기준) (c) 중소기업: 679,553건 / 149조 7,329억 원 (기업원화대출 기준) (d) 대기업: 4,197건 / 38조 7,138억 원 (기업원화대출 기준) [KB저축은행] (a) 개인고객: 226,994건 / 1조 4,929억 원 (b) 개인사업자: 634건 / 1,242억 원 (c) 중소기업: 169건 / 2,791억 원 (d) 대기업: 24건 / 574억 원 (e) 기타: 23건 / 196억 원(대부업체 등) |

SASB Index

주택금융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대출관행 | 다음 유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1) 건수 및 (2) 금액 (a) 혼합금리(고정+변동금리) 모기지론(ARM) (b)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이 있는 모기지론 (c) 전체 모기지론 | FN-MF-270a.1 | 2025년 말 기준으로 혼합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a)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376,802건 / 39조 6,637억 원 (b)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877,303건 / 110조 953억 원 (c) 전체 주택담보대출: 901,578건 / 112조 8,248억 원(단, 전세대출 제외) |
| | 다음에 대한 (1) 건수 및 (2) 금액 (a) 주택담보대출 조건변경 (b) 담보권행사 (c) 담보권행사 물건의 저가처분 또는 담보포기 | FN-MF-270a.2 | 2025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a) 주택담보대출 조건변경: 신규대출로 취급되므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b) 담보권행사 물건: 166건 / 담보권행사 금액: 154.7억 원(채권회수금액) (c) 담보포기 물건: 0건 |
| | 고객과의 소통이나 대출 발행기관의 보수(Remuneration of loan originators)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MF-270a.3 | 보고년도에 고객과의 소통이나 대출 발행기관의 보수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대출기관의 보수 구조에 대한 설명 | FN-MF-270a.4 | KB국민은행은 대출 담당직원에 대하여 개인의 신규 대출취급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차별적 대출 | 다음 항목별 주택담보대출의 (1) 건수, (2) 금액 및 (3)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a) 취약계층 (b) 이외 모든 차주 | FN-MF-270b.1 |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차별적 금융상품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금액 및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총 건수: 901,578건 (2) 주택담보대출 금액: 112조 8,248억 원 (3)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48.1% |
| | 차별적 주택담보대출(Discriminatory Mortgage Lending)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MF-270b.2 | 보고년도에 차별적 주택담보대출(Discriminatory Mortgage Lending)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비차별적 주택담보대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FN-MF-270b.3 |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비교가능하고 비차별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상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보(주택종류, 상환방식, 이자 계산방식, 이자율 구간,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등)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담보물에 대한 환경 위험 | 홍수다발지역(100-year flood zones)에 위치한 주택담보대출의 (1) 건수 및 (2) 금액 | FN-MF-450a.1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37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날씨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채무 불이행의 지역별 (1) 총 손실 예상액 및 (2) 부도시 손실률(LGD) | FN-MF-450a.2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37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후변화와 기타 환경 위험이 모기지 발행 및 심사 과정(Underwriting)에 통합되는 방법 | FN-MF-450a.3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18, 27~31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FN-MF-000.A, FN-MF-000.B는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SASB Index

소비자금융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개인정보보호 | 선택적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고객 수 | FN-CF-220a.1 | <p>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건수는 없습니다. 금융거래 관계 등을 위한 상품별 필수·선택적 등의 이외에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 등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마케팅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한 고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KB국민카드] 2025년 12월말 기준 개인신용카드 유효회원 중 마케팅 동의 회원 수 15,230,682명</p> <p>[KB캐피탈] 2025년 12월말 누적 기준 335,077명</p> <p>KB국민카드는 선택적 동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받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내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p> <p>KB캐피탈은 선택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고객의 선택적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규정 제5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제11조(개인신용정보 제공 관련 준수사항)에서 개인신용정보 제3차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3차 제공사항을 공시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p> |
| |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의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CF-220a.2 | <p>보고년도에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의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p> |
| | (1) 데이터 침해 건수 (2)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관련 데이터 침해 비율 (3) 영향받은 계좌 보유자 수 | FN-CF-230a.1 | <p>[KB국민카드, KB캐피탈] 보고년도에 데이터 유출 발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시 통지를 실시합니다.</p> |
| 데이터 보안 | (1) 무카드(Card Not Present) 거래 사기 및 (2) 카드 대면거래 사기 및 기타 사기로 인한 카드 관련 사기 손실 금액 | FN-CF-230a.2 | <p>[KB국민카드] (1) 무카드(CNP) 거래 사기로 인한 총 손실 금액은 187백만 원입니다. (2) 카드 대면거래 사기 및 기타 사기로 인한 총 손실 금액은 565백만 원입니다.</p> |
| | 데이터 보안 위험 식별 및 해결 방법 | FN-CF-230a.3 | <p>KB금융그룹은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발생 빈도와 영향 등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보자산 보호대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관리대상 위험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7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판매관행 | 영업직무 직원의 총 보수 중 제품과 서비스 판매량에 연계한 보수액의 비중(%) | FN-CF-270a.1 | <p>KB국민카드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과보수 체계가 없으며, 직무의 구분 없이 조직성과 및 개인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성과급(변동성과급, 인센티브 등)과 회사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PS(이익배분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
| | 다음 상품별 신청자의 평균 수수료율: (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2) 카드론 (3) 결제성 리볼빙 | FN-CF-270a.2 | <p>[KB국민카드] 2025년 12월 기준으로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12월 중 신규 취급된 대출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수수료율 (1) 현금서비스: 18.26% (2) 카드론: 13.07% (3) 결제성 리볼빙: 17.39% (2025년 12월말 기준 결제대금 이월잔액에 대한 가중평균 수수료율) 신용·선불카드 신청고객의 심사 승인 비율은 공개 시 미치는 대외적인 영향도 등을 감안하여 경영상의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p> <p>[KB캐피탈] 2025년 12월 기준으로 신용대출상품의 평균이자율은 11.38%입니다. * 2025년 12월 중 신규 취급된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평균금리</p> |

SASB Index

소비자금융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판매관행 | 카드신청자의 (1) 신용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Add-on products)의 평균 수수료 (2) 신용상품의 평균 연이율(APR) (3) 평균 계좌 유지기간 (4) 평균 거래선 수 (5) 선불카드의 연평균 수수료 | FN-CF-270a.3 | <p>[KB국민카드]</p> <p>(1) 신용평점에 따라 부가서비스 수수료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사유로 신용카드 유료 부가서비스의 평균 수수료는 비공개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가격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경쟁 환경 고려 시 공개 불가)</p> <p>(2) 2025년 중 신규 취급된 신용카드상품의 상품별 평균 APR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서비스 18.36% - 카드론 13,90% - 결제성 리빙빙 17.45% <p>* 2025년 연간 신규 취급된 신용카드상품의 가중평균 수수료율</p> <p>(3) 경영상의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자산별 고객 현황 및 분포에 대한 사항으로 경쟁 환경 고려 시 공개 불가)</p> <p>(4) 경영상의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자산별 고객 현황 및 분포에 대한 사항으로 경쟁 환경 고려 시 공개 불가)</p> <p>(5) 가맹점 규모에 따라 0.15% ~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평점에 따른 차등 없이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p> |
| | (1)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소비자불만 건 수 (2)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비율 | FN-CF-270a.4 | <p>[KB국민카드]</p> <p>(1) FINES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제출된 소비자 불만 건수: 1,745건 (자율조정 성립민원 제외)</p> <p>(2) 요구사항 수용 또는 민원취하 : 총 1,155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구제: 256건 (14.7%) - 비금전적 구제: 899건 (51.5%) <p>* 금융감독원 민원에 한하며, 자율조정성립 또는 민원취하를 구제조치로 봄</p> <p>[KB캐피탈]</p> <p>(1) FINES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제출된 소비자 불만 건수: 177건</p> <p>(2)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비율: 100% 비금전적 구제</p> |
| |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CF-270a.5 | <p>보고년도에 상품 판매 및 서비스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p> |
| 활동지표 | 유효 고객의 수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선불카드 | FN-CF-000.A | <p>2025년 12월 기준으로 유효 고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KB국민카드]</p> <p>(1) 신용카드: 총 13,570,000명 (개인: 12,881,000명 / 기업: 689,000개)</p> <p>(2) 체크카드: 총 13,667,097명 (개인: 13,270,470명 / 기업: 396,627개)</p> <p>(3) 선불카드: 총 38,699명 (기명식 선불카드 한정)</p> <p>[KB캐피탈]</p> <p>(1) 자동차 대출: 총 308,072명 (신차: 99,565명, 중고차: 193,817명, 상용차: 14,690명)</p> <p>(2) 신용 대출: 119,671명</p> |
| | 카드 계좌의 수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선불카드 | FN-CF-000.B | <p>2025년 12월 기준으로 유효한 카드 계좌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KB국민카드]</p> <p>(1) 신용카드: 총 19,285,860좌 (개인: 17,535,496좌 / 기업: 1,750,364좌)</p> <p>(2) 체크카드: 총 17,669,364좌 (개인: 16,898,903좌 / 기업: 770,461좌)</p> <p>(3) 선불카드: 총 97,067좌 (기명식 선불카드 한정)</p> |

SASB Index

투자은행 및 증개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임직원 포용성 및 다양성 | (1) 경영진, (2) 관리직, (3) 전문직, (4) 기타 모든 종업원의 성별 및 다양성 구성비 | FN-IB-330a.1 | 임직원 다양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40, 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ESG 요소의 통합을 포함하는 (1) 인수 (2) 자문 (3) 증권화(채권) 거래의 산업별 수익 | FN-IB-410a.1 | KB증권은 2025년 ESG 채권 대표 주관 및 인수를 48건(2조 8,557억 원), 인수금융 1건(3,820억 원)을 수행하였으며, 수익금액은 경영상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대상범위: 익스포저가 가장 큰 10대 산업 기준 - (익스포저 높은 순) 금융업, 건설업, 전기가스환경, 전자부품통신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장치, 석유화학제조, 방송정보통신, 컴퓨터사무전자기기, 전문서비스 |
| | ESG 요소의 통합을 포함하는 투자 및 대출의 산업별 (1) 건수 및 (2) 총 금액 | FN-IB-410a.2 |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와 대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말 잔액 기준) [KB증권] (1) ESG 투자: 171건 / ESG 대출: 9건 (2) ESG 투자: 6,079.7억 원 / ESG 대출: 2,692.7억 원 [KB인베스트먼트] (1) ESG 투자 70건 (2) ESG 투자 3,424억 원 |
| 투자은행 및 증개 산업 활동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포함 | 투자은행 및 증개 산업 활동에 ESG 요소를 포함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IB-410a.3 | KB증권은 투자은행 및 증개 산업 활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사전검토 우선 영업부서는 ESRM(Environment&Social Risk Management)에 따라 투자 대상의 관리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사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투자 안건이 기후변화 유의영역, 관심영역 또는 녹색산업 지원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예비검토분석서 등에 반영합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투자금액이 한화 기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PI(Principal Investment)의 경우, 외부기관의 ESG 등급 평가 보고서나 공시자료가 존재하면 이를 'ESG 리스크심사 강화방안'에 따라 심사에 활용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기업이 작성한 ESG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내부 배점표를 작성해 심사 요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투자금액이 한화 기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PF(Project Finance)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예비 환경·사회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고, 필요 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도 확보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2단계: 평가등급 분류 심사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환경·사회 리스크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업금융 부문은 대상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영역을 재확인한 후, A~E 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근거와 모니터링 필요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합니다. 대체투자 부문은 먼저 대상 프로젝트가 '대규모 프로젝트 환경·사회 리스크 검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할 경우 A~C 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근거, 관련 이슈 및 모니터링 계획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 3단계: 모니터링 'ESG 리스크심사 강화방안'에 따라 ESG경영실천계획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 여부와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2025년 중 ESG 평가모델에 따라 평가된 신규 투자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 기업금융: 6건(녹색산업 지원영역 1건 포함) - 대체투자: 11건(녹색산업 지원영역 2건 포함) [KB인베스트먼트] - PE 투자: 1건 - 벤처투자: 2건 |
| 기업 윤리 |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금융업 관련 법령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IB-510a.1 | 보고년도에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등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따른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 FN-IB-510a.2 | 내부자 신고 제도 관련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6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ASB Index

투자은행 및 증개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직무 윤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투자 관련 조사,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개인 민사소송 또는 기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임직원의 (1) 수 및 (2) 비율 | FN-IB-510b.1 | [KB증권] 위험관리 보수를 받는 투자 거래 담당 임직원 중 투자 관련 조사, 고객 민원, 민사 소송 및 기타 법적 규제를 받은 임직원은 총 3명(0.58%)입니다. |
| | 선관주의의무 등 직무윤리와 관련된 조정과 중재 건수 | FN-IB-510b.2 | [KB증권] KB증권은 라임펀드 및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부당이익 수취로 총 4건의 소송에 대해 150억 원의 판결원리금 및 조정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 | 선관주의의무 등 직무윤리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금액 | FN-IB-510b.3 | [KB인베스트먼트] 보고년도에 선관주의의무 등 직무윤리와 관련된 조정과 중재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선관주의의무 등 직무윤리 확보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IB-510b.4 | KB증권 홈페이지에 KB금융그룹 윤리헌장, 윤리강령, SI윤리기준, 협력회사 윤리행동기준, 임직원행동지침, 영업행위 윤리준칙, 내부통제기준, 실천프로그램 등 직무윤리와 준법정신을 강화하고 공시투명성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는 윤리경영 관련 위험관리 정책·제도 및 '사고예방업무지침'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 연 1회 윤리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올바른 제보 제도' 및 '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내·외부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의 '내부자신고제도'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절차는 준법감시인 전용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분기별 명령휴가를 실시하여 고위험 업무 담당자의 장기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벤처투자조합(또는 PEF)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KB인베스트먼트 한국스튜어디스 코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규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지침', '투자업무규정', '투자재원결정기준' 등 내규에 책임투자 원칙 및 수탁자 책임활동지침을 규정하였으며, 스튜어디스 이행방침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 시스템 위험 관리 | 금융감독원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D-SIB 및 D-SIFI 선정 부문별 점수 | FN-IB-550a.1 | KB증권과 KB인베스트먼트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의무적 및 자발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자본적정성 계획, 장기 기업전략, 기타 사업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IB-550a.2 | KB금융그룹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연 2회의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할 경우 추가적인 위기상황분석도 실시하며, KB금융그룹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손익, 자본적정성, 리스크 유형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분석 프로세스는 ▲잠재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도출, ▲리스크 유형별 주요 리스크 요인 추정,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경영지표(손익, 자본 등) 영향 평가, ▲시나리오별 자본적정성 평가 및 대응방안 수립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차년도 리스크 관리 방향 설정, 경영계획 및 중장기 자본계획 수립 시 핵심 자료로 반영됩니다. |

SASB Index

투자은행 및 증권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임직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분류되는 임직원의 총 성과보수 비율 및 이연성과급이 적용된 비율 | FN-IB-550b.1 | KB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계된 성과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보상액의 40~60%를 3년간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일시적 성과에 기반한 과도한 보상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 발생, 위법행위 적발 또는 리스크 확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성과보상액을 조정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성과를 이연지급 받고 있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전체 임직원의 17.5%입니다. |
| | 보수 축소 및 환수 조항이 적용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분류된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 | FN-IB-550b.2 | 보수 축소 및 환수 조항이 적용된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은 FN-IB-550b.1 지표에 공시된 비율(40~60%)과 동일합니다. |
| | 수준 3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트레이더의 가격 결정을 감독, 관리, 검증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 | FN-IB-550b.3 | KB증권은 「파생상품가치평가지침」에 따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수준 분류, 특히 수준 3(Level 3)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수준 3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 방식, 평가모형 통제, 모형리스크, 거래 및 감독 부서의 권한과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리스크부는 파생상품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평가모형 및 변수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산출된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금융공학부(평가담당부서)는 수준 3 분류의 적정성을 수준 분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이를 회계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회계담당부서는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준 3 분류 결과를 점검·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수준을 확정합니다. 한편, 거래담당부서(해당 상품 거래 실행부서)는 거래 시, 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입력 가능 여부, 가격결정 모형의 존재여부, 시장 및 추정변수의 산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시장리스크부는 「트레이딩정책지침」과 「자산운용관리지침」을 근거로, 트레이더의 가격 산정에 대한 관리·감독·검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활동지표 | 다음 항목별 (1) 건수 및 (2) 금액 (a) 인수 (b) 자문 (c) 증권화 거래 * 신디케이트 거래의 경우 당사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 | FN-IB-000.A | 각 거래의 건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 회사채 주관 및 인수 582건 / 23조 2,290억 원 (더벨 기준) - IPO 주관 및 인수 13건 / 8,451억 원 - 유상증자 주관 및 인수 10건 / 1조 667억 원 - 인수금융 주선 13건 / 3조 3,278억 원 - M&A자문 7건 / 1조 2,729억 원 |
| | 부문별 자기자본 투자 및 대출의 (1) 건수 및 (2) 금액 | FN-IB-000.B |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 | 다음 상품별 시장조성 거래의 (1) 건수 및 (2) 금액 (a) 채권 (b) 주식 (c) 통화 (d) 파생상품 (e) 원자재 | FN-IB-000.C | 각 거래의 건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 파생상품: 1,515,572건 / 20조 6,902억 원 (단, 거래 시 동시에 헤지용으로 거래된 주식 거래는 제외) - ETF: 13,220,198건 / 35조 4,263억 원 - ETN: 539,847건 / 2조 8,474억 원 - ELW: 2,123건 / 5억 원 - 배출권 거래 : 2,458건 / 1,221.8억 원 |

SASB Index

자산관리 및 수탁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 투자 관련 조사,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개인 민사 소송 또는 기타 규제 절차의 기록이 있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1) 수 및 (2) 비율 | FN-AC-270a.1 | 위험관리 보수를 받는 투자 거래 담당 임직원 중 투자 관련 조사, 고객 민원, 민사 소송 및 기타 법적 규제를 받은 임직원은 없습니다. |
| | 신규 및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 정보로 인한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AC-270a.2 | 보고년도에 신규 및 재가입 고객 대상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고객 대상 투명한 정보 및 공정한 자문 제공 | 자산운용 관련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방식 | FN-AC-270a.3 | <p>[KB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 시, 투자자 정보와 성향을 분석하여 5단계로 투자 성향을 분류하며, 판매인은 이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성향 등급과 상품 위험 등급이 부합하는 상품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전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판매인은 투자 권유 시, 상품의 구조와 특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p> <p>또한, KB자산운용은 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등록·공시한 후 판매사에 전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든 펀드의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은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p> <p>펀드 가입 고객에게는 분기별(매 3개월마다) 펀드의 운용성과, 운용현황, 운용매니저의 코멘트 등이 담긴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초기 가입 시 제공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감독기관에 변경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고객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변경된 자료를 제공시킵니다. 해당 자료들은 KB자산운용 및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되며, 잠재 투자자들도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p> <p>[KB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은 투자안내서에 명시된 배당률이나 예상수익률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는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투자상품의 사업성 검토 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파악된 각종 리스크 요소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p> <p>KB부동산신탁은 「내부통제규정», 「내부통제지침»,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윤리강령」 등을 포함한 관련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준수사항, 윤리의무 및 고객 보호 관련 내부통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Code of conduct 및 ethics」, 관련 사항을 준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영업실적 포상관리지침」을 통해 REITs 사업 신규계약 체결 또는 관리를 통한 보수 확보시, 신규 수주 과정 및 관리를 통하여 보수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리츠별 주주 대상의 정기미팅(화상회의, 대면미팅 등)을 통해 사업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이슈 발생시 수시 소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p> |
|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 | (1) 경영진, (2) 관리직, (3) 전문직, (4) 기타 모든 종업원의 성별 및 다양성 구성비 | FN-AC-330a.1 | 임직원 다양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40, 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ASB Index

자산관리 및 수탁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 다음 항목별 운용자산 규모 (1) ESG 통합 (2)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3) 스크리닝 활용 (네거티브/배제, 포지티브/베스트인클래스, 규범기반 스크리닝) | FN-AC-410a.1 | <p>[KB자산운용] 다음 항목별 AUM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요소 통합 금액(AUM): 3,318억 원 - 채권: 363억 원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2억 원 - 기타: 2,893억 원 (2)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금액(AUM): 5조 2,483억 원 (테마투자 4조 7,001억 원, 임팩트투자 5,029억 원, 기타 453억 원) - 주식: 1조 8,966억 원 - 채권: 2조 271억 원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16억 원 - 기타: 1조 3,129억 원 (3) 스크리닝을 활용하는 운용자산 금액(AUM): 1,072억 원 - 주식: 1,000억 원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억 원 - 기타: 2억 원</p> <p>[KB부동산신탁] 최근 금융시장의 ESG 및 지속가능성 투자 선호 경향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우량 ESG 테마 자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자본재구조화를 진행한 빙셀금융타워와 같은 친환경(LEED) 우량 오피스의 밸류에드(Environment)를 지속 유지 중이며, 정부정책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Social Responsibility)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p> |
| 투자관리 및 자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포함 | 투자 및 자산관리 프로세스 및 전략에 ESG 요소를 포함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AC-410a.2 | <p>KB자산운용은 투자 전반에 걸쳐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 'KB ESG Model portfolio'를 구축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 및 환경을 개선하는 성장 기업'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p> <p>ESG 관련 의사결정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각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며, 운용 과정 전반에 걸쳐 ESG 요인의 평가 및 반영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매 분기 정기적으로 ESG 세미나를 운영하여 국내외 ESG 동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p> <p>투자의사결정 시에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재간접 펀드의 경우, American Century Investments 등 위탁운용사의 ESG 분석 기법과 평가방법론 등을 감안하여 펀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ESG 모니터링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ESG 요인과 재무적 성과가 동시에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
| | 의결권 대리행사 및 피투자자에 대한 주주권여 정책 및 절차 | FN-AC-410a.3 | <p>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과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여 행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p>KB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①주주총회 정보 확인 ②주주총회 관련 자료 작성 ③주주총회 안건 분석 ④의결권 행사 의견 결정 ⑤의결권 행사</p> <p>KB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재산과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주주의 권리 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 및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p> <p>KB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의 중장기적 발전과 고객 및 수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수행함에 있어, 투자대상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p> <p>KB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주주권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상시 점검 ②대상기업 선정 ③관여활동 수행 ④후속 대응 ⑤관여활동 공개</p> <p>KB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대화 및 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공개 서한 발송,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

SASB Index

자산관리 및 수탁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금융배출량 | 각 범위별 절대 총 금융배출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 FN-AC-410b.1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9~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공시에 포함된 AUM 총액 | FN-AC-410b.2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9~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에 포함된 총 AUM 비율 | FN-AC-410b.3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9~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 | FN-AC-410b.4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4~4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업 윤리 |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금융업 관련 법령 및 규제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AC-510a.1 | 보고년도에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등과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 FN-AC-510a.2 | 내부자 신고 제도 관련 상세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6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활동지표 | 총 운용자산 중 등록/비등록된 자산의 규모 | FN-AC-000.A | [KB자산운용] 운용자산 중 비등록 운용자산은 없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등록 자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설정원본 89조 5,689억 원 + 투자일임 계약금액 66조 5,842억 원 = 156조 1,531억 원 - 펀드 순자산총액 95조 3,230억 원 + 투자일임 평가액 79조 7,559억 원 = 175조 789억 원 [KB부동산신탁] 운용자산 중 비등록 운용자산은 없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등록 자산의 규모는 49조 8,086억 원입니다. |
| | 총 수탁 및 관리자산 규모 | FN-AC-000.B | [KB자산운용]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수탁 및 관리 자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원본 + 계약금액: 156조 1,531억 원 - 순자산총액 + 평가액: 175조 789억 원 [KB부동산신탁]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수탁자산의 규모는 49조 8,086억 원입니다. |

SASB Index

보험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고객 대상 투명한 정보 및 공정한 자문 제공 | 보험상품 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마케팅 관련된 소송 및 제재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 FN-IN-270a.1 | 보고년도에 보험상품 계약 체결 전 고객에게 중요 정보 전달(3대 기본 지키기) 미비와 관련된 소송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보유계약 대비 민원율 | FN-IN-270a.2 | 보고기간 동안 공시기준으로 접수된 보유계약 십만건 대비 민원 환산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손해보험] 29.91건 [KB라이프생명] 24.01건 |
| | 계약 유지율 | FN-IN-270a.3 | 계약유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AH124) 참조, 계약유지율 13회차 기준 [KB손해보험] 88.46% [KB라이프생명] 86.5% |
| |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IN-270a.4 | KB손해보험은 계약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영업 부문 판매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판매준칙을 마련하였으며, 완전판매 절차 준수를 위해 관련 규제사항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 정보 제공 시에는 「보험업감독규정, 「보험협회공시규정 공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규제사항 리스트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종사자는 금융상품 권유 및 판매 시 회사의 소비자 보호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와 통신판매규준 기반 QA 스크립트를 운영 중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을 내규로 두고, 소비자에게 거짓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청약단계에서 가입제안서 및 상품설명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여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상품의 적합성, 사업비 및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설명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분,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비롯하여,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함께 제공하며, 계약 성립 후에는 보험증권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고령금융소비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불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과의 상담 시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느린 속도로 설명을 진행하며, 보험가입 목적, 청약철회, 품질보증이의신청제도, 지정대리청구제도 등 고객 권리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청약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표준 스크립트에 따른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품설명서 의무 이행과 완전판매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유발 모집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완전판매 강화 콜 적부를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투자관리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포함 | 투자관리 프로세스 및 전략에 ESG 요소를 포함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 | FN-IN-410a.2 | KB손해보험은 KB금융지주의 ESRM(Environment&Social Risk Management) 체계를 적용하여, 배제영역인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관심(유의)영역으로 분류된 산업군-임업,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 투자 시에는 지주 및 계열사 공통 'ESG 통합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ESG 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ESG 항목에 대해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해당 환산 점수는 투자 심사 시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됩니다. KB손해보험은 그룹 차원의 ESG 금융상품 목표-2030년까지 누적 취급액 100조 원, 금융상품 잔액 50조 원-에 발맞추어, 자체 ESG 금융상품 잔액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목표는 2030년 ESG 금융상품 잔액 4.4조 원 달성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지주의 ESRM(Environment&Social Risk Management) 체계를 기반으로 리스크관리부와 협의를 통해 ESRM 요구사항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배제영역에 대해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ESG 위배 시 검토가 불가하며,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투자의 경우 ESG 정책을 미보유한 자산운용사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향후에는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부 정책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투자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공개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블라인드 펀드, 채권형펀드(투기등급) 투자 시에는 지주 및 계열사 공통 'ESG통합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ESG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3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점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투자심사 단계에 반영합니다. 자산심사파트 투자심사역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ESG 역량을 'ESG통합역량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ESG 정책의 발굴, 심사, 관리, 기타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SASB Index

보험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약 |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순보유보험료 | FN-IN-410b.1 | 2025년 연간 기준으로 KB손해보험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관련 조립보험 및 기관기계종합보험의 순보유보험료는 약 54억 원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안전운전 및 책임있는 소비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자동차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건강, 안전 및 환경적 가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사고예방, 친환경부품사용 등을 반영한 보장 및 할인요소를 통해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있는 선택을 유도하며, 이는 교통사고 감소 및 자원 절약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친서민·친환경 약관은 총 14개이며, 각 상품별 할인특약 약관은 기본약관 내 특별약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약 :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많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독려 · 마일리지 할인특약 : 자동차 운행거리를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걸음수 할인특약 : 90일 내 하루 5,000보 달성일이 50일 이상일 경우 할인을 적용하여 걷는 습관 장려 ·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 차량에 첨단안전장치(차선 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제공 ·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 : 티맵 안전운행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안전운전 및 규정준수 유도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 차량과 통신망을 연결해 실시간 차량 제어 및 운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커넥티드 서비스(쌍용, 현대, 기아) 가입자 중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인 제공 KB라이프생명도 건강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무)KB착한정기보험 II'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자는 신청한 날 이후부터 2종(비흡연체), 3종(건강체) 및 4종(슈퍼건강체) 중 신청한 종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 안전 혹은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활동 혹은 행동 등을 장려하는 상품 또는 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 | FN-IN-410b.2 | |
| 금융배출량 | 각 범위별 절대 총 금융배출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 FN-IN-410c.1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9~50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각 산업의 자산군별 총 익스포저 | FN-IN-410c.2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55~58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에 포함된 총 익스포저 비율 | FN-IN-410c.3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55~58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배출량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 | FN-IN-410c.4 | 관련 상세 정보는 본 보고서 44~4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 위험 노출 | 날씨 관련 자연재해 보험 상품의 최대가능손실 (Probable Maximum Loss, PML) | FN-IN-450a.1 | KB손해보험은 주요 기후 관련 자연재해 중 하나인 '태풍'으로 인한 보험 손실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입 금액, 건물 위치, 업종, 건물의 구조 등급, 자기부담금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AIR/RMS 등 전문 분석기관이 개발한 자연재해 모델(Catastrophe Modeling)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50년, 100년, 2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태풍 피해에 대해 보험금 손해를 추정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KB손해보험의 최대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년 주기: 원수 3,222억 원, 보유 1,068억 원 (2) 100년 주기: 원수 4,221억 원, 보유 1,456억 원 (3) 250년 주기: 원수 5,776억 원, 보유 2,088억 원 KB손해보험의 재난 출재보험이 적용되면 출재보험(보험회사가 자체 부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위험을 나누어 전가하는 제도)에 따라 보유손해액(실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자기부담금인 30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1) 50년 주기: 원수 3,222억 원, 보유 300억 원 (2) 100년 주기: 원수 4,221억 원, 보유 300억 원 (3) 250년 주기: 원수 5,776억 원, 보유 300억 원 |

SASB Index

보험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환경 위험 노출 | 재해 사건별 및 지리적 부분별 (1) 모델링한 자연재해 및 (2) 모델링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금전적 손실 총액(출재보험 고려 전/후) | FN-IN-450a.2 | <p>KB손해보험은 2025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인 호우(장마, 8월 및 9월 집중호우), 산불(3월 경북), 폭설 및 강풍(1월~4월)으로 인한 손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p> <p>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보험 적용 전 원수손해액 기준(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직접 부담하는 기준)의 손실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p> <p>① 호우: 270.0억 원 ② 산불: 87.4억 원 ③ 폭설 및 강풍: 75.0억 원</p> <p>반면, 비례재보험(위험과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재보험사에 나누는 방식)을 통해 일부 위험을 분담한 후 보유손해액(보험회사가 실제 부담한 손해액) 기준의 손실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p> <p>① 호우: 204.6억 원 ② 산불: 59.5억 원 ③ 폭설 및 강풍: 35.3억 원</p> <p>전세계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물건의 자연재해 손실은 2025년 약 1,210억 달러(한화 175조 원)로, 이 중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산불 손실(약 400억 달러, 한화 5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의 자연재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손실 규모와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반면 재보험업계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었는데,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으로 보험업계의 발생빈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부담금 미만 손실 발생으로 원수보험사가 손실을 출재보험으로 전가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고, 원수보험사 손실 중 출재보험으로의 위험전가 비율은 3년평균 18%에서 12%로 감소하였습니다. 재보험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신규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재보험 공급이 충분해졌고, 이에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무사고인 경우 10% 이상의 출재보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보험사들은 매년 자연재해 모델 분석을 통해 특정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최대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2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자연재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재보험 계약기간(보통 1년) 중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재보험사로부터 보전받습니다.</p> <p>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존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모델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모델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차손해(secondary peril)를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으며, 개선된 모델 결과는 보험요율 산정 및 담보 조건 설정에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p> |
| | 환경 위험을 (1) 개별 보험계약 인수 프로세스 및 (2) 전사 수준 위험 및 자본적정성 관리에 포함시키는 접근법 설명 | FN-IN-450a.3 | <p>[KB손해보험]</p> <p>(1) 개별 계약 및 전사적 수준에서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p> <p>일반손해보험 중 기후 관련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매년 1회 보유계약의 기초정보(보험가입금액, 주소, 업종, 건물등급 등)를 수집해 자연재해 모델링(Catastrophe Modelling)을 실시하여 최대 예상 손해액을 분석하고 이를 보험 인수 및 재보험 구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p> <p>자연재해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2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담보하는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손해 한도인 순보유금액(Net Retention Level)은 10년 주기 최대 손실을 참고해 설정하고 있으며, 재보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보유금액 조정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p> <p>(2) 자본적정성과 전사 리스크 측정체계</p> <p>IFRS 17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K-ICS(신지급여력제도)로 변경되면서, 대재해(자연재해) 위험이 일반손해보험의 주요 리스크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대재해위험 중 풍수해(태풍·홍수 등) 관련 손실 위험액을 매 분기마다 집계하고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 부문에서는 국내 계약(원수 및 수재)에 대해 지역별, 보험종목별 위험 노출액을 매년 1회 측정하며,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모델링을 통해 최대 예상 손해액을 분석하고 있습니다.</p> <p>[KB라이프생명]</p> <p>(1) 자본적정성과 전사 리스크 측정체계</p> <p>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전략에 KB금융그룹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ESRM)에 기반한 배제·관심영역 선정, 기후리스크(전환 위험) 식별 및 모니터링 추진방안이 포함됩니다.</p> |

SASB Index

보험

| 주제 | 지표 | 코드 | KB금융그룹 대응 내용 |
|-----------|---|--------------|---|
| | 파생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를 다음 분류로 구분: (1) 중앙청산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총액 (2) 중앙청산소가 인수한 수용가능한 담보의 공정가치 총액 (3) 중앙청산된 파생상품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총액 | FN-IN-550a.1 | 2025년 말 기준 파생상품 익스포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손해보험] (1) 중앙청산되지 않은 파생상품(거래소 밖에서 개별 계약 형태로 체결되어 중앙청산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9조 1,139억 원 (2) 중앙청산소가 인수한 수용가능한 담보의 공정가치(중앙청산기관이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확보한 담보자산의 평가액): 0원 (3) 중앙청산된 파생상품(중앙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0원 |
| | 대차거래에 대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총액 | FN-IN-550a.2 |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차거래에 대한 담보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시스템 위험 관리 |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는 비보험활동과 연관된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 설명 | FN-IN-550a.3 | KB손해보험은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는 비보험 활동과 관련된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바젤3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리스크관리는 3단계 통제체계 하에서 관리되며, 1차 통제체계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리스크 점검을 수행하며, 2차 통제체계는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준법 조직, 3차 통제체계는 감사조직으로 확대됩니다. 자가진단 방식의 리스크 통제 평가(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를 통해 핵심 리스크를 찾아내고 핵심 리스크 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활용해 중요한 리스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핵심 리스크 프로파일을 도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안정적 성장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감내 가능한 최대 리스크 수준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여력비율(위기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매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습니다. 위험성향 목표 수준에 따라 총 위험자본 한도 안에서 각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나누어 관리하고, 특정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자산이 몰리지 않도록 총 익스포저 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 절차를 내규에 명시하고, 감독당국 및 내부 자체 시나리오를 활용해 매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승인받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자산이 몰리지 않도록 총 익스포저 한도와 국가별 신용 공여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K-ICS(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토대로 각 리스크 규정과 세칙을 수립하고, 회사의 경영계획에 기반한 지급여력비율 예측과 다양한 시장 환경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의 감내능력을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지주 차원의 내부자본도 K-ICS 방법론에 따라 관리되며, 연 1회 최대 리스크 수준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설정하고,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활동지표 | 다음 부문별 보유계약 건수 (1) 재산보험 및 상해보험 (2) 생명보험 (3) 수재보험 | FN-IN-000.A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보유 계약 건수는 다음과 같으며, 재보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손해보험(KB손해보험): 25,023,430건 (2) 생명보험(KB라이프생명): 1,780,307건 |

제3자 검증의견서

202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202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KB금융그룹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독립적인 검증결론을 KB금융그룹 경영자에게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검증대상

KB금융그룹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다음의 지속가능성 관련 조직의 성과와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202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 202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북

준거기준

- GRI Standards 2021

검증기준

검증팀은 ISO 17029와 KMR EDV 01의 품질관리 업무시스템을 적용하고, IASE3000 및 KMR 검증기준인 SRV1000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ISAE3000에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고, SRV1000에서는 데이터오류 제로를 목표로 입체적 심사를 수행했으며, 중요성 기준은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 ISO 17029 : 2019, ISO 14065 : 2020, ISAE 3000 (Revised), SRV1000 : 2022 (KMR), KMR EDV 01 : 2024 (KMR)
- 보증수준/중요성수준 : limited/설정되지 않음

검증범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된 검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지속가능한 회계표준위원회(SASB) 기준 준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2021 보고 원칙
-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 GRI 2 일반 공시 2021
 - GRI 3 중요 주제 2021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101: 생물다양성,
 - GRI 201: 경제 성과, GRI 202: 시장 지위(202-2), GRI 203: 간접 경제 영향, GRI 205: 반부패, GRI 206: 경쟁저해행위, GRI 207: 세금(207-4),
 - GRI 301: 원재료(301-1), GRI 302: 에너지, GRI 303: 용수, GRI 305: 배출, GRI 306: 폐기물,
 - GRI 401: 고용, GRI 402: 노사관계, GRI 403: 산업안전보건, GRI 404: 훈련 및 교육, GRI 405: 다양성과 기회균등, GRI 406: 차별 금지, GRI 4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RI 408: 아동노동, GRI 409: 강제노동, GRI 410: 보안 관행, GRI 411: 원주민 권리, GRI 413: 지역사회, GRI 414: 공급망 사회평가, GRI 415: 공공 정책, GRI 416: 고객 안전보건,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GRI 418: 고객 개인정보 보호
- SASB Sustainability Disclosure Topics & Accounting Metrics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정보, (재무정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 근거로 사용한 준거기준의 적합성,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신뢰성 및 결과 평가
- 질문으로 데이터 관리 통제환경과 프로세스, 정보시스템을 이해(통제활동 효과성을 테스트하지 않음)
- 추정치 도출 방법이 적절하고 일관적인지 평가(단, 기초데이터 테스트나 검증인 자체추정치 미도출)
-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방문현장은 현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기여도, 이전 기간 이후 예상치 못한 변동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데이터 샘플링, 방문한 현장에서 제한된 수의 원천기록을 실사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지속가능성 정보의 표시 및 공시가 정확하고 명확한 범위로 표현되었는지 고려
- 기초정보 간 비교 및 대사와 재계산, 분석, 역추적 등을 통한 오류 포함여부 식별
-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과 균형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심사의 고유한계로서 비재무 데이터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한 보고체계나 충분히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측정치와 측정방법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비재무 데이터는 기업들 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검증팀은 이에 대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랐습니다. 제한적 보증에서는 위험평가 절차와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된 절차의 범위가 합리적 보증보다 제한적입니다. 검증심사팀은 KB금융그룹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KB금융그룹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 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KB금융그룹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검증팀은 KB금융그룹이 제시한 준거기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발간하였으며, 보고서 내용 관련 입수한 증거가 검증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증팀은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증인 적격성 및 독립성과 품질관리시스템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9 : 2019 (적합성평가 - 계획검증과 결과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원칙과 요구사항 : ISO 14067, 추가 인정기준 ISO 14065) 및 ISO/IEC 17021 : 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입니다. 또한, 한국경영인증원은 IAASB ISQM1 : 2022 (국제감사인증표준위원회의 국제품질관리기준서)에 준하고 ISO/IEC 17029 요구사항에 근거한 KMR EDV 01 : 2024 (ESG공시 검증업무시스템)의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경영인증원은 IESBA Code : 2023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준하는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및 전문가적 품위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KB금융그룹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제한 및 유의사항

본 검증의견서는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B금융그룹의 경영진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KB금융그룹의 경영진 이외의 제3자 사용에 대하여 당 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아래 검증일 현재로 유효합니다. 아래 검증일 이후 이 검증의견서는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가장 최신 보고서인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주)한국경영인증원은 KB금융그룹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에 대한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KB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주1)}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검증

주1)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 KB인베스트먼트, KB데이터시스템 등 11개 사

검증 기준

- ISO 14064-3:2019
- ISO 14064-1:2018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200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제2025-64호)

검증 절차

검증은 리스크 분석 접근법 및 데이터 평가 기반 현장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데이터 및 인자는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검증팀은 검증지침에 근거하여 보고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리적 방법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독립성

(주)한국경영인증원은 피검증기관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편향된 의견 및 시각으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기준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내부심의를 통하여 검증의 전 과정 검증 수행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한계

검증팀은 피검증기관에서 제시한 관련 보고서, 정보 및 데이터를 샘플링 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고유 한계가 있으며, 적합성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충실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오류, 누락, 허위 진술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검증의 한계로 제시합니다.

검증 의견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검증기준에 의해 합리적 보증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 검증과정 중 배출량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활동자료와 증빙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산정되었음을 표명합니다.
- 중요도 : 5% 미만 기준 충족

내부 온실가스(Scope 1, 2)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tCO ₂ eq) | | | 에너지 사용량 (단위: TJ) |
|--------------------------------------|------------------|---------------|------------------|
| 직접 배출량 (Scope 1) | 간접 배출량 (Scope 2) | 합계 (Scope1+2) | |
| 22,253 | 126,673 | 148,926 | 2,689.020 |

※ 측정 범위: KB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국내 및 해외 사업장, 계열사별 종속기업 포함)

* 반올림에 의하여 총량과 항목별 배출량합이 상이할 수 있음

종합 의견

주요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누락 없이 산정 보고되었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기준에 따라,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업은 관련 법령 및 표준에 따라 검증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KMR의 책임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검증 당사자에 국한되며, 이 검증 의견서를 기반으로 한 투자 등의 다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기업은 KMR과 합의된 계약 하에 인정마크 및 로고 마크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

KMR 대표이사

황은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주)한국경영인증원은 KB금융그룹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에 대한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KB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주1)}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검증

주1)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 KB인베스트먼트, KB데이터시스템 등 총 11개 사

검증 기준

- ISO 14064-3:2019
- ISO 14064-1:2018
- WRI/WBCSD GHG Protocol(2013)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200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제2025-64호)
-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PCAF) - The Global GHG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Part A(second edition)

검증 절차

검증은 리스크 분석 접근법 및 데이터 평가 기반 현장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데이터 및 인자는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검증팀은 검증지침에 근거하여 보고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리적 방법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독립성

(주)한국경영인증원은 피검증기관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편향된 의견 및 시각으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기준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내부심의를 통하여 검증의 전 과정 검증 수행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한계

검증팀은 피검증기관에서 제시한 관련 보고서, 정보 및 데이터를 샘플링 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고유 한계가 있으며, 적합성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충실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오류, 누락, 허위 진술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검증의 한계로 제시합니다.

검증 의견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검증기준에 의해 제한적 보증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으며, 검증 결과에 대한 중대한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KMR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도 : 5% 미만 기준 충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외부 온실가스(Scope 3) 배출량

|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 ₂ eq) | | | |
|---------------------------------------|------------------------------------|-------------------------------|------------|
| 51,911,633 | | | |
| 카테고리 | Scope 3 |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q) | |
| CAT 1 |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 5,376 | |
| CAT 2 | 자본재 | 4,529 | |
| CAT 3 |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 20,639 | |
| CAT 4 |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 139 | |
| CAT 5 |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3,721 | |
| CAT 6 | 임직원 출장 | 6,136 | |
| CAT 7 | 임직원 통근 | 29,162 | |
| CAT 11 | 판매된 제품의 사용 | 26,895 | |
| CAT 12 | 판매된 제품의 최종 처리 | 184 | |
| CAT 13 | 다운스트림 리스자산 | 248,588 | |
| CAT 15 | 투자(PCAF) ^{주2)} | 2024 | 49,462,484 |
| | | 2025 | 51,566,264 |

* 주2) 2024년 및 2025년 말 기준 산출된 PCAF 자산군별 금융배출량으로 자산군별 집약도를 포함하여 검증하였으며, 합계는 2025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반올림에 의하여 총량과 항목별 배출량합이 상이할 수 있음

* 측정 범위: KB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국내 및 해외 사업장, 계열사별 종속기업 포함)

종합 의견

주요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누락 없이 산정 보고되었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기준에 따라,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업은 관련 법령 및 표준에 따라 검증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KMR의 책임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검증 당사자에 국한되며, 이 검증 의견서를 기반으로 한 투자 등의 다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기업은 KMR과 합의된 계약 하에 인정마크 및 로고 마크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

KMR 대표이사

황은희

 KB 금융그룹